



발간등록번호

71-3830000-100015-14



THE HISTORY OF ANYANG CITY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안양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단체의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지역 의제를 형성하며 성장해 왔다. 산업화·도시화 속에서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의 기억이 축적되었고, 활동가들의 실천은 안양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었다.



제10권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첨삭을 하였다.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contents

1 안양 시민사회의 형성과 전개

제1장 안양 지역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의 태동 / 008

제2장 안양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 / 030

제3장 안양 지역 시민사회단체 현황 / 056

2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실천

제1장 아름다운 노동 : 신영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 / 090

제2장 장애인 인권지킴이 : 최승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장 / 098

제3장 장애인 돌봄 : 문경식 (사)난치병아동돌기운동본부 상임대표 / 108

제4장 희망 연대 : 노윤희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장 / 118

제5장 나눔과 돌봄 : 안승영 (사)유쾌한 공동체 이사장 / 126

제6장 환경 지킴이 : 노훈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136

제7장 여성 인권 : 이미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 / 146

제8장 행복한 교육 : 이효순 안양시민학교 교사 / 154

제9장 건강 주권 : 김종성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 166

제10장 민주 평화 : 장재근 6·15공동선언 경기중부본부 상임대표 / 176

제11장 마을공동체 :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 188

제12장 주민자치 : 김정아 안전한안양시민연합 대표 / 198

3 안양 사람들의 생애 경험

제1장 내 고향 안양 / 208

제2장 안양, 삶의 터전이 되다 / 232

제3장 이주민의 안양 정착기 / 250

제4장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다 / 270

4 안양 사람들의 생애주기별 생활세계

제1장 아동기의 생활세계 / 294

제2장 청소년기의 생활세계 / 326

제3장 청년기의 생활세계 / 364

제4장 노년기의 생활세계 / 394

01

안양 시민사회의 형성과 전개

제1장 안양 지역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의 태동

제2장 안양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

제3장 안양 지역 시민사회단체 현황

제1장

안양 지역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의 태동

우은주 인왕마을네트워크 대표



1. 안양 지역 민주화 운동의 배경과 출발

안양 지역의 민주화 운동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신체제의 억압과 불의에 저항하며 전국 곳곳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안양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안양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지역으로, 공장 밀집 지역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아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양의 민주화 운동은 전국적 흐름의 일부로서 전개되었지만, 동시에 지역 노동운동과 시민 저항이라는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보인다.

안양은 경기 남부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많은 노동자와 청년들이 모여 들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도 커졌고, 이를 바꾸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안양에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후에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우며, 안양 지역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진 안양에는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많은 노동자가 이주해 왔다. 당시 안양에는 자본과 기술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공장 부지 확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산업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안양으로 많은 공장이 이전해 왔다. 노동자들이 몰리면서 주택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지 개발과 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안양의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1960년대 금성방직 여성 노동자(안양시청 제공)



안양5동 냉천동 언덕에서 보이는 안양3동 공업지역과 안양4동 주거지역(1970년, 안양시청 제공)



안양 근로자회관 낙성식(1969년, 안양시청 제공)

하지만 이렇게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정작 노동자들의 삶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많은 노동자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에 시달렸고, 노동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저항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지역의 일부 교회와 성당도 1970년대 안양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바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집회와 강연을 열었고, 민주화 세력이 모일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하였다.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노동자와 학생을 보호하거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안양중앙성당은 1969년 9월 근로자회관을 준공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며 노동 상담과 노동자 모임을 주선하였다. 안양중앙교회는 1960년대 후반부터 도시산업선교회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노동자들의 선교와 교양 교육, 구호 활동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박정희 정권의 강압적인 통제 속에서 안양 지역의 민주화 운동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 운동가와 운동권 학생은 감시와 체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는 구속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운동가



안양 근로자회관(1970년대, 안양시청 제공)

들은 지하 조직을 통해 저항운동을 지속하였다.

안양 지역의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준비 단계였다. 당시 노동운동과 유신 반대 운동이 지역 기반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안양 지역은 경기 남부 지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1980년대 안양 지역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전개

10·26 이후 들어선 전두환 군사정권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안양교도소에는 민주화 운동에 연루된 양심수가 많이 수용되어 있었다. 이들은 교도소 안에서도 단체로 항의하고 저항을 벌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1981년 안양교도소 양심수 농성 사건이다. 양심수 석방, 교도소 처우 개선, 군사정권 규탄을 외친 안양교도소 양심수 농성 사건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있어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으며, 민주화 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 주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좌절된 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엄혹한 탄압을 받으면서 잠복하거나 민중의 현장으로 운동을 확산해 가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공장 등 사업장에 취업해 현장에서 생활하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시위 등으로 제적되었던 운동권 출신들이 현장 노동자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양 지역에서도 대학교 운동권 출신들의 현장 취업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970년대에 활동하던 1세대 해고 노동자의 뒤를 이은, 이른바 2세대 노동 활동가였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진 안양은 생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으며, 금성전선·만도기계·한국제지·동양나이론 등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덕분에 1983년 이후 변혁적인 성향의 학생운동 출신들이 위장 취업을 통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활발해졌고, 이와 함께 안양 지역의 노동 운동도 본격적인 전개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노동운동은 안양 지역 민중운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하였으며, 이 시기에 안양 지역 최초의 반공개 노동운동 단체인 안양노동상담소가 결성되었다. 안양노동상담소는 1985년 6월 22일 전태일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었다. 이는 안양 지역 최초의 노동상담소로서 지역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개소 직후부터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았지만, 활동가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안양노동상담소는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활동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외부 요청에 따라 움직였다.

1984년 말부터 안양 지역에서는 현장 중심의 노동 활동가들이 각 사업장에서 소그룹 형태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5년부터는 안양노동상담소와 한무리교회, 돌샘교회 같은 민중교회들이 공개적인 활동의 거점이 되었다. 당시 노동 활동가들은 대부분 서클 형태로 보안을 유지하며 고립된 채 활동했지만, 1986년부터는 점차 서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처음에는 각 사업장에서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개별 투쟁이었으나, 점차 공개적으로 연대하는 전환의 과정이었다.

1985년에 발생한 금강개발 안양공장 노동 쟁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이전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려 했던 중요한 노동운동 사례이다. 이 노동 쟁의는 198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부흥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후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전태일 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상담소

개소식 : 1985. 6. 22(토) 오후 5시

-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료사업내용 : 노동법률자문, 노동문제상담, 교양강좌개최
 회보발행, 기타 각종상담
 (건강, 심리, 취업, 가정문제 등)

노동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배전대 부
 달노동쟁취, 밀린임금, 산업폐해, 직업병, 각종 수당미지급, 부당해
 고 및 전출 등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려
 겠습니다.

연락처 : 안양시 인양2동 28-16(12동 7번)
 TEL. 3-0537-
 2549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상담소 개소식 초청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즈 제공)



1985년 삼원극장 앞에서 열린 가두시위에 대해 알리는 한신대학교 대자보(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제공)

안양 지역은 비교적 일찍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측에 우호적인 어용 노동조합이었다. 1980년대 노동조합 결성이 활발해지면서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1985년 부평 대우자동차 동맹파업과 구로 동맹파업 등이 알려지면서 단위 사업장을 넘어 공동 투쟁 또는 동맹파업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갔다. 1986년 안양 지역에서는 국제전기·동전산업·한샘 등의 노동 활동가들이 모여 공동 임금 투쟁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고, 국제전기와 동전산업에서는 실제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87년에도 한선사, 창화공업, 후지카, 대원전기, 안남운수 등에서 공동 임금 투쟁이 일어났다.

1980년대 중반은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조직화하고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 시기였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노동조합 결성을 막고 집회를 강경 진압하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였기 때문에 노동 운동가들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하고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였다. 1986년 안양 지역 노동 운동가 130여 명이 경기도 화성의 용주사 근처 그린파크에 모여 노동조건 개선과 민주노동조합 결성 전략을 논의하였다. 민주노동조합 조직화와 함께 지역 내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이 모임은

단순한 집회가 아닌 향후 안양 지역의 노동운동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였다. 이후 안양 지역 노동운동은 더 조직적이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게 되었고, 노동운동의 의제를 지역사회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6년 노동운동은 점차 공공연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용주사 회합 이후 노동 운동가들은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호계동 1번 국도 포도원사거리에서 대중 집회를 열었다. 안양 지역 400여 명의 노동자와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된 가두집회는, 노동자와 시민에게 노동조건 개선과 민주화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구호와 연설이 이어졌으며 정부를 향해 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연행되거나 부상을 당했다. 그럼에도 포도원사거리 가두집회는 노동운동의 지역적 확산과 대중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지역 노동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전조로 평가받는 사례가 되었다.

1986년에 있었던 용주사 회합과 포도원사거리 가두집회는 당시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이 결합한 흐름 속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이었다. 안양 지역에서 활동하던 노동 운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연대와 저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3. 1987년 6월 안양 지역의 민주화 투쟁

1987년 6월은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억압에 맞서 일어난 6월항쟁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움직임으로 확산되었다. 안양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집회를 열고 시위에 참여하며 민주화 운동에 힘을 보탤었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열기가 점점 고조되었다. 특히 6월항쟁 이후 시작된 노동자 대투쟁에서 안양 지역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과 집회를 벌이며 노동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안양 지역에서는 6월항쟁 기간에 6월 19일, 6월 23일, 6월 26일 모두 세 차례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6월 19일과 6월 26일 집회는 안양권 노동운동 그룹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개최하였다. 6월 19일 집회는 노동운동 그룹 단독으로, 6월 26일에는 노동운동 그룹의 주도과 대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 6월 23일 시위는 경기대학교와 한신대학교가 중심이 된 수원 지역 대학생을 주축으로 개최되었다.

6월 19일 집회는 유인물을 뿌리면서 거리로 나가 싸웠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집회가 활기를 띠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형성되어 갔다. 진보 성향의 시사 월간지 『말』 1987년 8월호에 이 집회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9시 30분경,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도로에 앉아 대중 집회가 시작되었다. 전국 각지의 상황 보고가 있었고, 노점상인은 안양 시민이 도로를 막고 시위하기는 처음이라 신기한 기분이라고 말했고, 한 노동자는 노동자의 처지를 말하고 이렇게 모여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니 민주라는 것이 실감 난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약 2시간 가까이 집회가 계속된 후 시위 초기에 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하자는 주장이 나와 “경찰서장 나와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고, 마침내 전경대에 달려들어 투구와 방패를 빼앗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당황한 경찰은 최루탄을 있는 대로 쏘아대기 시작했고, 군중은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벽산쇼핑 앞에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다. 도로변 공사에서 자갈과 나무, 경유를 날라와 불을 붙여 바리케이드를 치고 보도블록을 깨 부분적인 무장을 했다. 경찰이 타고 온 버스에 불을 붙여 뒤에서 밀려 전경대에 접근했으나 최루탄 경험이 없는 안양 시민들은 또다시 흩어졌다가 자정쯤 우체국 앞 사거리에 1천 명가량이 집결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1시간 이상 격론이 벌어졌다. 집회를 계속하자는 주장, 다음날 다시 모여서 하자는 주장, 지금 싸우자는 주장의 세 가지가 나왔으나, 안양이 생긴 이래로 것처럼 많은 시민이 모인 일은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간단히 무너진 데 대한 아쉬움이 강해 일부는 무장을 시작했다. 공사에서 자재를 날라오고 길가에 서 있는 봉고차에서 기름을 빼 40여 개의 화염병을 만들어 5백 명가량이 전진하면서 화염병과 최루탄이 나는 격전이 계속되는 동안, 안산으로 지원 갔던 경찰이 새벽 2시경 시위대 뒤로 나타나 협공을 시작하자 군중들은 흩어져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다가 잠잠해졌다.

6월 23일 집회는 안양 지역 노동운동 그룹과 사전 조율 없이 추진된 시위였다. 6·10 범국민대회 이후 학생운동 세력은 지쳐가고 있었기에, 제한된 역량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안양을 시위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당시 시위대는 안양중앙시장을 돌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시위가 시작되자 학생들이 한 줄로 늘어서 안양본백화점 앞 대로를 막고 집회를 열었다. 집회 내내 비폭력을 유지했다는 점은 매우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6월 26일 집회는 국민운동본부가 선포한 ‘6·26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에 동참하여 2만여 명의 시민이 안양1번가에서 안양우체국에 이르는 거리를 가득 메웠고, 안양시청(현 만안구청)을 지나 안양경찰서(현 명학역유보라아파트) 앞까지 행진하



1987년 6월항쟁 당시 안양 시내 가두시위(최병렬 제공)



1987년 6월항쟁 당시 안양 시내 야간 시위(안양시청 제공)

면서 차량 통행이 끊긴 일종의 '해방의 거리'로 만들었다. 삼원극장(현 롯데시네마 안양 1번가점) 사거리에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은 우체국사거리를 지나 안양경찰서 앞까지 행진하며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쳤다. 이날 시위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6월에 이어진 집회들은 최대 2만여 명이 모일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6월 민주항쟁이라는 전국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지만, 안양 지역만의 특징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로로 나와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다. 안양에서 시위가 빠르게 대규모로 확산한 것은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강하게 분출된 결과였다. 하지만 단순히 열망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시위대가 지금의 안양로를 접거해 노선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이 시위에 합류할 수 있었고, 6월항쟁 초기 안양 지역에서 뚜렷한 집회나 시위가 없었던 탓에 경찰력이 대부분 서울로 차출된 상황도 시위가 자유롭게 확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1987년 6월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포함한 6·29선언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다. 각 정당과 정치 세력들은 집권을 향해 경쟁적인 활동으로 들어갔지만, 그동안 억압받고 통제되었던 노동 현장에서는 열린 공간을 통한 투쟁이 분출되었다. 6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파업 형태의 노동 쟁의가 발생하였다.

4. 1987년 이후 안양 지역 사회운동의 다발적 전개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민주화의 공간이 크게 확장되면서, 안양 지역에서도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이후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기반이 차츰 다져진 안양에서는, 6월항쟁 이후 본격적인 조직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노동 활동가들은 노동자 대투쟁을 대비해 사전에 조직적 준비과정을 거쳐 시위를 계획하였으며, 안양 시민의 높은 지지 속에 노동자들은 회사 내 소그룹 또는 개별 단위로 투쟁에 참여하였다. 6·29선언 이후 자유로워진 사회 분위기와 공권력의 노동 통제력 약화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그 결과, 노동자 대투쟁 기간 안양 지역에서는 40여 개의 신규 노동조합이 급속히 결성되었고, 조합 결성 직후 파업과 적극적인 투쟁이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안양의 노동운동은 민주화의 진전에 발맞춰 빠르게 성장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7월 2일 금영택시의 운수 노동자 62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월급제 실시, 사납금 제도 폐지, 조합장 전임제, 생명 수당 신설 등의 요구를 내걸고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추진하였다. 7월 4일에는 전자제품 원료 생산업체인 혜성공업의 현장 노동자 70여 명이 구내식당을 점거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같은 달 27일에는 한국제지 노동자들이 사측의 어용 노동조합 결성 시도에 맞서 자주적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임금 협상에 나섰다. 7월 28일에는 태광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 없이도 집단행동을 통해 회사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고, 임금 인상과 휴일 대체 근무제 폐지 등 주요 요구사항을 대부분 관철하였다. 이 밖에도 삼덕제지, 대우중공업, 만도기계, 금성전선, 유신중전기 등 중대형 사업장들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회사 측과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요구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확산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노동 현장에까지 뿌리내린 결과였다. ‘근로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흠어지면 노예 되고 뭉치면 인간 된다’, ‘8시간 노동으로 생계비 보장받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사업장마다 내걸렸다. 노동권 쟁취를 위한 파업을 경험하면서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자주적 인간으로서 당당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치권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수준에서 타협하려는 것과는 달리,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은 생존을 전면에 내건 더욱 근본적인 투쟁을 전개한 것이었다.

이러한 안양 지역 노동조합 설립 운동의 중심에는 1985년 설립된 안양노동상담소가 있었다. 안양노동상담소는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노동자들로 뭉쳤으며, 하루에 세 곳의 사업장에서 조합이 결성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1988년 이후에는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협의회’와 ‘안양지구협의회’ 같은 연대 조직이 만들어졌고, 현장 활동가들은 ‘경수지역노동자연합’(경수노련), ‘안양지역노동자회’(안노회) 등 노동운동 단체를 결성하며 운동의 외연을 넓혀 나갔다.

노동운동이 강화되는 한편, 기독교계 역시 활발히 움직였다. ‘경서지역기독교청년협의회’(경서EYC), ‘경서지역기독교교회협의회’(경서NCC), ‘경서지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경서목정평)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으며, 1987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는 경서지역 기독교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 선거 감시 운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박달교회·살림교회·우리교회 등 새로운 민중교회들이 창립되고, 1988년에는 기존의 한



유신중전기 노동조합 결성
(1987년, 진승일 제공)



유신중전기 노동조합 조합원 토론
(1987년, 진승일 제공)



유신중전기 노사 협상
(1987년, 진승일 제공)

125페이지 (4항목)

유신중전기(주)와 유선 노동조합은 노사협조증진과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임금 인상 (87.8.1부터)
 앞달 120%의 뒤벌었음을 한다.
2. 수당 지급 및 40시간 근무
 ① 동문동매지 ② 무안읍읍읍읍
 ③ 현제아의 자택한 주택 제외한 관백
 ④ 불기별자급 (3.6.9.12월, 단
 라이카아짓 주택 하고 자급 코퍼)
 ⑤ 3개월 이상아 40시간 근무자급
3. 생산수당 협회한다.
4. 유선공무원(발전보장)은 유선근
자한다.
5. 유선근로자
 ① 7월2일 ② 추석2일 ③ 하기 3일
6. 적석시간은 20분으로 하여 퇴근시간
 9:30으로 한다. (간접 4시간)
7. 중직은 무조건유하여 상급근로자
 이서 승명한다.
8. 작업환경은 쾌적한 시설내에
 개원한다.
9. 마당은 우리 노동자의 평안한 크로를
 편히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것으로
 임원 및 크로전에 의하여 일해
 부양해끼른 하의 같다.
10. 파업기간은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유신중전기 노사 합의서(1987년, 진승일 제공)

11. 회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을
 위하여 먼저 교섭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응한다.
12. 9월 15일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개국
 한다. (편하기 및 사무용바통)
13. 유선 노동조합을 유선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14. 위의 화제함을 야행하여 같은 경우
 크로전 즉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15. 이 합의안은 즉 각정하여 회사와
 크로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유선관청에
 1부를 제출한다.

1987년 8월 25일

유신중전기 대표인 김승일
 유선노동조합 대표인 김승일



유신중전기 노동조합의 요구사항(1987년, 진승일 제공)



안양 근로자회관 사물놀이반 '휘모리' 공연(진승일 제공)



그림사랑동우회 '우리 그림' 창립전 안내장(최병렬 제공)

무리교회·돌샘교회와 함께 ‘안양지역민중교회협의회’를 결성하여 지역 교회의 사회운동 기반을 확장해 나갔다.

1987년 하반기에는 ‘안양독서회’, ‘안양민요연구회’, ‘우리 그림’ 등의 단체가 창립되어 활발한 문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단체들은 1988년에 ‘안양문화운동연합’(안문연)으로 통합되어 지역 문화운동을 주도하였다. 같은 시기에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도 출범하여 청년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처럼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안양 지역에서는 노동운동, 청년운동, 문화운동, 기독교 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5. 안양 지역 사회운동의 제도화와 네트워크 형성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사회운동의 공간이 넓어지자, 안양 지역에서도 변혁적 성격의 합법적 공개 조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조직으로는 ‘안양지구협의회’(후에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으로 발전), ‘안양지역노동자회(안노회)’, 노동교육 연구 공간 ‘우리 자리’, 청년운동단체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양민청련), 학생 조직 ‘안양사랑학생회’ 등이 있었다.

1987년에 설립된 노동교육연구소 우리 자리는 노동자들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공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안양민요연구회, 11월에는 안양독서회, 12월에는 우리 그림이 잇따라 창립되어 문화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1988년 안양문화운동연합으로 결집하여 지역 문화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노동운동 역시 조직화와 정치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노동 현장 활동가들은 경수지역 노동자연합, 안양지역노동자회, 안양노동정책실 등을 결성하여 지역 내 노동자 연대와 민주노조 조직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안양사랑청년회가 창립되었고,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군포지회, 안양참교육학부모회가 설립되었다. 1988년 결성된 안양지역총학생회연합은 자체 신문인 『구국신문』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1988년 3월,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시점에, 비산동의 그린힐 봉제공장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그린힐 봉제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은 공장 내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였는데, 사업주는 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기



그린힐 화재 참사 합동 위령제(1988년, 최병렬 제공) 영정 그림은 '우리 그림'이 제작하였다.

숙사의 문을 밖에서 잠그고 퇴근하였다. 3월 25일 새벽에 공장 계단에서 발생한 불은 순식간에 기숙사로 번졌고, 여성 노동자들과 경비원이 밖으로 피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 직후 안양노동상담소, NCC경서지역인권위원회, 안양민청련 등 10여 개의 재야 단체가 연대하여 안양노동상담소장 정금채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린힐 봉제공장 참사사건 안양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 참사는 민중미술가 김인순의 작품을 통해 예술로도 표현되었다.

안양지역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안양민청련은, 서울 중심으로 활동하던 민청련이 지역으로 활동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안양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민청련은 1983년 김근태 의장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공개적 투쟁을 이어왔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쟁취 이후 지역과 청년운동으로 영역을 넓혔다. 이후 동서울·북서울 민청련이 결성되었고, 1988년 3월에는 김태숙 여성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양민청련이 발족하였다. 안양은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민청련 지부가 설립된 지역이며, 수원·중서울 직장인 민청련 등이 이어서 결성되었다. 이는 안양이 탄탄한 노동운동의 기반 위에 시민운



안양노동상담소 개소식에 참석한 민청련 김근태 의장(1985년, 박용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동과 청년운 동으로 확장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대중운동이 확산하면서 안양에서도 민청련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운동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회운동이 본격적으로 조직화하던 흐름 속에서 1989년 3월에는 경기남부민족민주운동연합 안양지부가 결성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전교조 탄압 저지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안양공동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한편, 안양YWCA는 1986년 창립되어 1988년에 소비자개발센터를 열고 소비자운동을 시작했으며, 안양YMCA는 1991년 창립되어 청소년 교육 사업을 펼쳤다. 두 기관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공명 선거 운동에 참여하여 '공명선거실천안양지역협의회'를 결성하고, 이후 '남북 인간 띠 잇기 행사' 등 다양한 연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노동조합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를 넘어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안양천 오염 등의 환경 문제 대응을 통해 연대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민주화 운동을 통해 높아진 시민의 권리 의식은 지역



안양YMCA 설립 준비 조찬 기도회(1987년, 이두섭 제공)



안양YWCA 소비자교육(1988년, 안양시청 제공)

정치 참여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시의회와 시 정부와 소통하며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체적 협력으로 풀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안양·군포·의왕지역 민주화 운동사 편찬위원회, 『안양·군포·의왕지역 민주화 운동사』, 미발간, 2018.
이시정, 「안양 지역 노동 운동사」, 『안양·군포·의왕 지역 노동 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조완기, 『안양 지역 민족민주운동(민중)과 시민운동 비교』, 2000.

제2장

안양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

우은주 인왕마을네트워크 대표



1. 안양 지역 시민사회의 태동과 전환의 시작: 노동운동에서 지역 운동으로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등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안양 지역의 노동조합과 시민은 주체적으로 지역 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동자는 단체 행동으로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저항하면서 민주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결성된 노동조합은 단순히 노동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환경·복지·정치 문제까지 관심을 확장하였고, 시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시민사회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민주화 운동은 노동운동을 넘어 환경운동·교육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안양 지역사회는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변화해 갔다.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정부와 기업이 강하게 대응하면서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그중에는 대학생 출신으로 위장 취업했던 활동가들도 있었는데,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은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노동운동을 외부에서 지원하거나 사회운동 단체의 활동가로 활동 방향을 바꾸었다. 이들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갔고, 지역 주민과 함께 연대하며 지원 활동도 계속해 나갔다.

여전히 민중운동의 성격이 강했던 시민사회는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5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기초·광역 지방의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이는 1991년 지방 선거에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뽑았던 것과 다른 점이였다. 지방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었다. 자연히 지역 의제나 민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사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이슈를 중심에 두고, 단체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모여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부각하였다고 해서 노동운동의 흐름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출범하였다. 당시 민주노총에는 15개 산별(업종별) 조직과 10개 지역본부 그리고 2개의 그룹 조직이 가맹하였고, 861개의 단위 노조와 41만 8,154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대규모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분출된 노동자들의 의지가 조직적 결실을 맺은 것으로, 여전히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동시에, 민주노총의 출범은 노동운동이 과거보다 한 단계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이정



안양시의회에서 시정 보고하는 민선 1기 안양시장(1995년, 안양시청 제공)

표가 되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사회운동의 발전을 이끌어 갈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것이기도 하였다.

민주노총의 창립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경쟁과 협력이라는 구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1995년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 권력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사회단체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실질적으로 정치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방 여론을 주도하며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는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의 분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경로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기초 단위의 선거는 지역 시민단체의 존재감은 물론,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정치 관심 집단 또는 주민자치를 지향하는 시민이 출현한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민주노총 출범은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 예로 산본신도시 주민 중심의 군포 소각장 건립 반대운동은 지역 시민사회의 존재와 성장을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시위 관련 기사(『동아일보』 1994년 6월 12일)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안양 지역 시민사회의 전환점이 되었다.

군포 산본신도시 입주 초기 분양 안내에 없었던 소각장 건설이 발표되었다. 신문에 소개된 분양 안내는 ‘산으로 둘러싸인 신도시’라는 화려한 문구로 치장되었고, 이러한 입지에 마음이 끌려 분양을 신청한 사람도 많았다. 분양 안내문 어디에도 소각장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산본신도시 주민들은 애초 계획에 없던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면서 1993년 7월 6일 군포시청 앞에서 첫 소각장 반대 켈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주민들은 분양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각장을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건설하려는 것은 사기 분양에 해당한다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특히 산본신도시 아파트단지외와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려는 것과 소각 용량이 과다한 점 등을 들어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하였다.

소각장 반대 운동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역 내에서 단체가 결성되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녹색연합·여성민우회·환경운동연합·환경과공해연구회 등의 전국 조직에서 산본신도시 주민들과 연대했고,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소각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7월 6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1994년 11월까지 총 19차례의 소각장 건설 반대 집회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쓰레기 분리수거,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 시작되어 환경자치시민회 같은 단체도 만들어졌다.



안양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창립대회(1993년, 『안양저널』 제54호)

2. 안양 지역 시민운동의 단체 설립과 확산

평촌신도시와 산본신도시 건설로 고학력 직장인과 젊은 주부층이 많이 포함된 약 30만 명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면서 안양 지역의 사회 구성에 변화가 생겼다. 생산공장 중심의 제조업은 감소하고, 정보통신·유통·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서 장점이 줄어들게 되어, 대규모 사업장의 지방 이전이 IMF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된 것이다.

그것에 더해 지방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전국 단위 시민단체의 지부가 설치되거나 자생적 지역 조직이 설립되었다. 시민운동의 좋은 토양이 마련된 것이다.

민주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미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적 지배구조를 극복하려 했던 민중운동은, 문민정부 이후 퇴조하며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변화의 동력에 힘을 신게 되었다. 1989년 7월 공정한 소득분배에 기초한 경제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실련이 전국 조직으로 창립되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 내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감시와 시민 참여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안양 지역에서도 1993년 안양경실련이 출범하여



안양천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신문 기사(『동아일보』 1993년 6월 8일)

지역 정치 참여, 시민예산 참여, 학교 급식 네트워크, 동네 경제 살리기, 실업 극복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환경운동은 반공해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으나,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해가 불가피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울산·온산·안산·구미 등 전국 곳곳에서 주민 중심의 공해추방운동이 시작되었다.

1982년 한국 최초의 환경단체인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발족하여 환경오염 피해자 중심의 반공해 운동을 시작하였다. 1988년에 발족한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은 환경운동을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시켰다.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공해 추방 운동



안양YMCA의 '지구의 날 환경 한마당' 행사(1993년, 『안양저널』 제43호)

을 전국 연대체로 조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3년 4월 공해추방운동연합과 한국 공해문제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8개 지역연합 조직으로서 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였다.

안양 지역은 1970년대부터 수질오염 문제로 악명이 높았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안양천·수암천·학의천 등의 하천 주변에 공장이 하나둘 들어왔다. 공장에서 사용한 물을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하면서 주변 하천은 심하게 오염되었다. 안양 지역을 흐르는 여러 하천은 안양천으로 합류하기 때문에 안양천의 오염은 지속되었고 급기야 1993년 안양천이 한강 지천 중 최악의 오염 수위를 기록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다.

1992년 2월부터 평촌신도시 입주가 시작되었다. 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양천 오염 문제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988년 창립총회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안양YMCA는 1995년 안양천 전체 구간을 탐사하고 안양천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양 지역 교사 5명이 합류하여 안양교사생태모임을 꾸렸다. 이러한 민간의 움직임에 안양시청도 적극적으로 가세하여 안양천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1997년에는 안양·군포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졌다. 안양노동상담소가 문을 닫고



안양여성회 창립대회(1995년, 안양시청 제공)

대중 활동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상담소의 활동가들이 환경운동연합으로 이동하였다. 1999년 서울시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7개 구와 경기도 안양시·광명시·군포시·의왕시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게 된다. 당시 안양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안양천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여성 중심의 단체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부녀회를 중심으로 여성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주거환경과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단체의 창립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였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5년 3월 안양여성회가 창립되었다. 안양여성회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안양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유권자의 역할과 올바른 주권 행사하기, 지방의회 여성 참여를 위한 시민연대, 여성 정책 수립 등의 지속성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안양시 여성 정책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와 여성 전담과 신설,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학교 급식 확대, 교육환경 개선 요구 청원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어린이·여성·노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평촌신도시 샘마을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1997년 3월 안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 안양지역협의회 결성식(1995년, 『안양저널』 제15호)

양여성의전화를 창립하였다. 심각한 여성 폭력 문제를 개인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적 접근을 위해,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설립되었는데, 안양 지역에서는 1997년에야 비로소 여성의전화가 창립되었다. 여성 인권 운동 단체로서 여성 중심의 상담을 진행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 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여성 폭력에 대한 주민 의식 캠페인은 물론 여성 폭력 추방 운동, 부부재산 공동명의 같은 여성 경제 세력화 운동도 전개하였다.

1995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안양 근로자회관에서 공명선거실천협의회 여성분과(내일신문 안양문화센터·안양여성회·안양YWCA)가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여성 유권자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후보들의 현실성 있는 공약화 강제 등이 토의되었다.

교육 관련법의 개정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교육개혁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1996년 3월 공립학교부터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점차 확대되었다.

1998년 안양지역시민연대가 창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양·군포·의왕·과천을 아우르는 안양권의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의견 발표, 토론회 등을 진행하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표방하며 창간한 『안양저널』 창간호의 내용(1991년, 『안양저널』 창간호)

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FAX 신문을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안양내일신문』, 『안양포커스』, 『안양저널』, 『안양시민신문』 등도 창립되어 안양 지역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994년 9월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참여연대가 창립되어 대표적인 전국 단위의 시민운동 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여성·환경·복지·교육·주민자치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설립되어 진보 정치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사회 기반과 정치적 이슈, 생활 수준의 변화는 민주화 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다시 시민사회 운동으로 향하는 배경이 되어 주었다. 1990년대 이후의 시민사회 운동은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안양 지역 민중운동의 쇠퇴

안양 지역의 민중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안양

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양축으로 한 민중운동은 군사정권 시기부터 1994년까지 지역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 세력이었다.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에 맞서 노동자·청년·학생·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이 운동은 독재정권 아래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열망을 집결시키며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95년을 전후로 민중운동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시민운동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순한 세대교체나 조직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조건의 변화와 민중운동 내부의 분열, 운동 전략과 방식 전환의 실패, 대중과 괴리 심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이루어진 변화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중운동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시민운동은 사회적 실천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안양 지역 사회운동의 지형을 새롭게 구성해 나갔다.

1989년 ‘공안정국’이라는 살얼음판 속에서도 안양 지역 민중운동 진영은 민주노조 연대체인 경기노련안양지구협의회를 결성하고, 금기시되었던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전국적인 민중운동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지역 내 민주화와 자주화, 통일운동을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경기남부연합 안양지부의 구성을 통해 단일 전선체를 만들어내며 운동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으나, 199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야 단체가 독자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자는 ‘민중후보론’과 야당 세력이 연합하여 정권을 교체하자는 ‘민주대연합전술론’으로 정치적 노선이 나뉘면서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잠복해 있던 이념적 대립과 정파적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었고, 어렵게 형성된 단일 전선은 급속히 균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한 전술적 차이를 넘어, 운동 내부의 전략적 방향성과 주체 간 신뢰의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다. 각 정파는 독자적인 활동 방식을 고집하며 경쟁 구도로 치달았고, 결과적으로 민중운동 진영은 지역 대중과의 결합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되었다.

1988년 구성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안양 지역 청년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우리 그림, 우리민요연구회, 안양독서회 등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1991년 안양사랑청년회가 구성되었다. 안양사랑청년회는 청년층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전국적인 투쟁 실패와 지역적 기반 약화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해산되었다. 이는 민중운동의 내부 갈등과 전략 부재가 지역 운동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안양독서회, 안양문화운동연합 등 오랜 기간 지역 내 문화·사회운동을 이끌어온 조직들도 재정적 악화와 활동가 이탈 속에서 조직 유지가 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경기남부연합 안양지부의 안양교도소 앞 시위(1995년, 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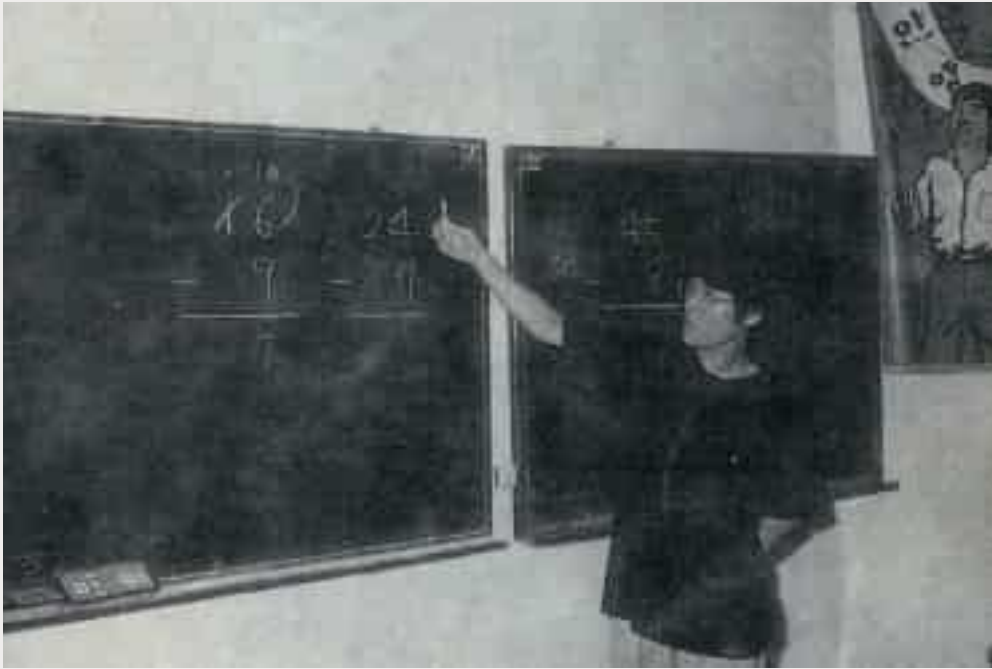
려워지며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안양 지역 민중운동의 쇠퇴는 단순한 내부 분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보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민중운동의 약화로 이어졌다.

첫째, 전략과 전술을 둘러싼 갈등으로 민주노총 안양지구협의회 구성 단계부터 분열이 발생하였으며, 안양지역노동자회·안양사랑청년회·안양민주화청년연합 등 주요 단체 사이에서도 지역 대중운동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충돌이 잦았다. 같은 변혁적 목표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술과 후보 전략에 대한 불일치가 이를 극복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중앙에 의존했던 운동 방식도 민중운동의 쇠퇴를 가속화하였다. 모든 정치적 방침이 중앙의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적 특성과 요구는 배제되었고,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지역 운동을 고민하기보다는 정파적 입장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실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민주노총의 탄생과 함께 노동운동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기존 노동운동 단체들이 수행하던 정치·교육·조직화 사업이 민주노총 내부로 흡수되었고, 노동운동 내에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운영하던 '문맹자를 위한 한글·산수 교실'(1991년, 『안양저널』 제3호)



안양문화운동연합 산하 극단 '큰힘'이 1989년 10월~11월에 순회 공연한 「선생님 힘내세요」(1992년, 『안양저널』 제12호)

도 민중운동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특히 새로운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노동운동 단체들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 위한 정책으로 인해 안양 지역 대형 산업시설이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안양 지역의 노동자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넷째, 사회주의 붕괴와 문민정부 등장으로 인해 운동을 지탱해왔던 이념적 정서가 약해지고, 민주화의 일정한 진전 속에서 과거의 급진적 투쟁 이슈가 설득력을 잃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민중운동의 전통적 방식은 시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시민운동 방식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심각한 재정난과 활동가 이탈이 지속되었다. 민중운동은 재정 기반이 취약하였으며, 안정적으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웠다. 반면에, 안양YMCA·안양YWCA·안양환경운동연합·안양경실련 등의 시민운동 단체들은 회비, 기업 후원, 지자체 지원, 각종 수익사업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해 나갔다. 이러한 차이는 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민중운동을 이끌던 활동가들이 시민운동 영역으로 옮겨오면서, 시민사회는 실무 역량과 헌신성을 갖춘 활동가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4. 안양 지역 시민 사회운동의 성장

민중운동의 분열과 쇠퇴 속에서도 일부 활동가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운동을 표방한 시민 사회운동이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출발점 중 하나가 1990년대 초 창립된 ‘군포시민의 모임’이었다. 이 조직은 ‘난시청 지역 시청료 분리 고지 운동’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확대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형 운동 모델을 시도하였다. 이는 기존 민중운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이후 시민운동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안양경실련의 창립과 함께, 안양YMCA·안양YWCA·한국노총 중부지구·안양 근로복지관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명선거 운동과 정책 감시 활동을 전개하며 시민운동의 연대 틀을 형성해 나갔다. 특히 이들 단체는 민중운동 진영의 급진적인 이념 노선에 동의하지 않거나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있던 지역의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전문가층의

안양시민의 모임 태동한다

각계 각층 시민 대거참여 오는 7월14일 창립총회



안양시민의 모임 태동을 알리는 기사(1993년, 『안양저널』 제46호)

참여를 이끌어내며, 조직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시기 평촌·산본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안양·군포 지역의 인구 구성은 젊은 직장인과 고학력 중산층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러한 변화는 시민운동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은 이전보다 생활 속 구체적인 권리와 정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는 시민운동이 생활 밀착형 의제와 참여 모델을 통해 대중적 기반을 확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시민운동은 폭넓은 주민참여와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수용하며 급속히 성장하였다.

환경운동·여성운동·문화운동·복지 등으로 의제 영역을 확장하면서 지역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축이 되었고, 지역 내 전문가 그룹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꾸준히 이어졌다.

1995년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통해 민중운동·시민운동·노동조합이 연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민중운동의 쇠퇴를 근본적으로 되돌리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시민운동 단체의 넓은 대중 포섭력과 민중운동 진영의 헌신적 실무 능력이 결합하며, 시민운동이 안양 지역 사회운동의 주류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민중운동 일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체 통합이나 조직 개편을 시도하였으나, 전통적 강령주의에 머무는 세력과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인해 변화에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소멸과 쇠퇴의 길을 걸었다. 반면 시민운동 진영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수용하며 유연하게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1997년 정권 교체 이후 시민운동의 활동 영역은 더욱 확장되었으며, 정책 감시, 주민참여 확대, 공공성 확보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갔다.

안양 지역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정한 지점에서 접점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두 운동 진영은 보완적 협력보다는 대립과 불신의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민중운동 진영은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의 지역 투신이 중단되면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른 정치적 위상 약화라는 이중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사회운동의 과제는 이념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주민들과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변혁적 지향과 개혁적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운동 모델을 구축하고, 공동의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민중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시민운동의 실천적 유연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역 운동의 지평을 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5. 시민 사회운동의 성과

안양 지역의 시민운동은 1994년 이후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안양경실련의 창립과 함께, 기존의 민중운동 방식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웠던 시민 권리 중심의 운동 방식과 체제 내 개혁 지향의 활동이 자리 잡으면서, 전환기마다 동요하는 중간층을



안양시의 벽산로 노점상 강제 철거에 대한 안양 지역 18개 시민단체 및 각종 인사들의 비난 성명서 발표(2005년, 안양시청 제공)

포섭하며 시민운동으로서 안양 지역에 안착하게 되었다. 이후 1997년을 기점으로, 안양 지역의 시민운동은 민중운동 진영이 주도해왔던 노동, 통일, 각종 대책위원회 활동이나 실천 사업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대중의 공감대를 얻기 쉬운 환경 및 지방자치 관련 사업을 주도하며 지역 사회운동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억압에 대한 저항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중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사회 구조도 복잡해짐에 따라, '민주와 반민주', '자본과 노동' 같은 이분법적 사고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어려워졌다. 특히 경제적 처지에 기반한 민중운동은 일정한 정당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시민공동체 정신을 확산시키거나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시민운동은 계급적 요구와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대중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폭넓은 사회적 호응을 얻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안양 지역의 시민 사회운동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



안양천 살리기 보트 캠페인(2004년,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 제공)

사회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 여성, 환경, 노동,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갔다. 안양 지역 시민 사회운동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 행복추구권, 불평등 해소에 집중되었다.

특히 안양천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자,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안양시와 시민사회의 협력은 민관협치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정파성을 띠지 않는 환경운동이었으므로 주민참여율도 높았다. 하천 복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화 활동, 무분별한 개발 제한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그린벨트 보전 운동을 통해 자연 훼손을 막고, 녹지 보호 및 친환경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되었다.

2003년 전국적인 친환경 무상 급식 운동이 시작되면서 2005년 안양시에서도 김인봉을 상임대표로 하는 ‘친환경무상급식시민행동’이 출범하였다. ‘친환경무상급식시민행동’은 「안양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끌어냈고 ‘친환경안양도시농업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시민 행동으로 설립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에



안양시와 안양시 새마을부녀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교복 물려주기 행사(2007년, 안양시청 제공)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센터 발기인 총회(2013년, 안양시청 제공)

서 이어받아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지역 내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 부천에서 시작한 교복 나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며 안양 지역은 안양 YMCA에서 교복 은행을 운영하였다. 2010년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청도 이에 거들면서 교복 나눔 운동이 보편화되었다. 안양시 관내 각 학교 내에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규모로 교복 은행을 운영하고, 안양시는 교복 무상 지원을 정책으로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안양 지역에는 공교육의 회복을 돕는 교육 네트워크를 설립해 학교에 시민교육을 보급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보편적 교육 복지에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주민운동이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석수동 연현마을에서는 인근 제철산업의 산업시설 이전을 촉구하였고,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신축 관련한 고압선 지중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한 호계동에서는 에브리쇼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처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한 주민 주도의 운동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주민 주도 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한편,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은 특히 격렬하게 전개되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강한 지역 여론을 형성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LG치타스가 안양 연고를 떠나는 과정에서 팬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고, 이후 이를 계기로 FC안양 시민축구단 창단을 추진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여부, 문화관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안양 지역 시민사회 활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각종 봉사나 지역사회 공헌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 참여를 주도하며 공공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시민단체 활동이다. 특히 주민들은 생존권이나 기본권보다 주거환경 보존과 개선에 더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으며, 단체 중심의 운동보다는 특정 이슈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 두드러지는 등, 전국적인 시민운동의 추세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안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연대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토론, 시정 참여, 시정 및 의정 활동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안양시 시민사회단체연합(201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안양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가 주요한 동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6. 안양 지역 시민 사회운동이 이끄는 지역사회 건설

안양 지역의 시민 사회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치며, 민중운동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 운동의 역사는 안양 시민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고, 이러한 연대와 조직화의 경험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안양 지역의 민중운동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움직임을 넘어,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한 중요한 역사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운동은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을 전개하며 시민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왔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개소(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며, 시대적 요구와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발전과 정체, 쇠퇴를 반복해왔다. 자본 중심의 사고방식과 편리함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과거에 비해 희미해질 수밖에 없으며, 시민운동에 대한 의지도 점차 약해지고 개인화와 파편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삶의 기반과 조건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념에 기반한 운동보다는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운동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다. 안양 지역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이념적 지향을 여전히 놓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며 지역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경부터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던 노동자의 인권 보호 이슈는 2021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추진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안양시는 플랫폼 노동자, 이동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2022년 전국 최초 비영리 사단법인 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였다. 시민사회 지원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구성된 공익활동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5년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안양 지역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역사적 토대 위에 마련된 이 두 곳의 센터



찾아가는 배달라이더 안전교육(2022년,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제공)

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었을 때 어떻게 시민사회가 성장하게 되는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운동이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나온 운동의 역사는 현재의 결과를 낳았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운동은 언제나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시기의 가장 절실한 의제가 운동의 중심에서 시민을 움직였다. 이는 안양 지역 시민 사회운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왔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안양 지역 시민운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시민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시민 감시기구의 활동 강화와 연대를 통한 정치·행정 감시·환경·언론·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대응하는 연대기구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발굴과 양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활동가와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와 합

계 지역 특성에 맞게 뿌리내리는 주민 밀착형 조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시민운동에 대한 이념과 철학을 강화하고, 거시적 안목을 갖추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재구성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층적인 분석과 지속 가능한 활동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시민 사회운동을 지역 주민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질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 중심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적 가치와 정신을 실생활 속에서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공감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야말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례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함께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3장

안양 지역 시민사회단체 현황

우은주 인왕마을네트워크 대표



안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경 보호, 복지 증진, 청소년 지원, 노동, 인권 등 여러 분야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안양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다음은 2024년 현재 안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현황¹이다.

1. 환경 및 지속 가능 발전

1)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 목적 : 사람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자연과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인간이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바꾸어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사업 : 생태계 보전 및 보호, 환경 교육 및 캠페인,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 구조 및 대책,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22

2)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 목적 :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며, 지역 주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참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202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여하여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생산·소비하도록 돕는다.

- 주요 사업 :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및 운영, 에너지 절약 교육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22

3)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목적 : 안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를 점검하고 실천한다.
- 주요 사업 : 시민 환경 교육 및 홍보 활동,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천 사업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2층

4) 한살림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 목적 :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먹을거리를 비롯한 생활의 필요를 자립과 협동의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업과 자연 생태계를 살리고 더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불어 사는 생명 살림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사업 :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건강한 밥상 차림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온실가스·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 공급 박스 및 병 재사용 운동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00

5) 안양바른두레생협

- 목적 : 환경에 이로우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와 생활 물자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 주요 사업 : 생산자 직거래, 마을 모임, 21세기 동아시아 생활협동조합네트워크 참여, 환경 보호, 소비자 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3번길 7

6)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

- 목적 :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의 환경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단체 간 연

대와 홍보·교육·의식개혁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권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 주요 사업 : 환경 관련 기념일 행사 공동 개최, 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계몽·예방 활동, 환경 세미나 개최, 환경 교육 실시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212번길 23, 충훈동다목적복지회관 1층

2. 여성 인권 및 성평등

1) 안양여성의전화

- 목적 :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 주요 사업 : 안양여성인권영화제 개최,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 가정 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9

2)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 목적 : 정의·평화·생명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며,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며, 전국의 지역 YWCA와 함께 시민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사업 : 가정폭력상담소, 소비자상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EM사업단 운영,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 참여 확대와 정책 제안 운동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94

3) 안양나눔여성회

- 목적 : 여성의 역량 강화, 사회적 지위 향상, 권익 실현을 도모하며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안양YWCA 미투 위드유 캠페인(201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 주요 사업 : 성평등 사업, 성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가사사업단 운영, 심리 상담연구소 운영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1-1

4) 안양시여성지도자회

- 목적 : 안양 지역 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와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 주요 사업 :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내

5) 안양여성자원봉사회

- 목적 :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개인의 자아실현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사업 : 대인 봉사, 교육 지원, 취업 및 의료 지원 등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제18대·19대 회장 이취임식(2025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실내빙상장 외부상가 5호

6)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 목적 :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여성복지 및 봉사 활동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지역 공동체를 지원한다.
- 주요 사업 : 취약계층 지원, 양성평등 촉진, 남녀평등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 여성 권익 향상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동안종합사회복지관 2층

7) 안양여성시단체협의회

- 목적 : 여성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여성 단체 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회원 단체의 성장과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주요 사업 : 여성 단체 조직 활성화, 여성의 능력 신장 및 사회 참여, 취업 상담 및 알선, 의정 모니터, 여성 단체 사업평가 및 여성대회, 바자회·이웃 돕기 등의 사랑 나



안양시민축제 시민참여 퍼레이드에 참가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200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늬움 복지 사업, 양성평등 기금 사업 추진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8)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 목적 : 농협 주부대학 수료생들이 결성한 단체로, 농협조직이라는 제약성을 벗어나 독립된 소비자 조직으로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여성 단체 간의 고리 역할을 통해 우리 농산물 애용, 고향 농촌 돕기 운동을 확실히 전개하고자 한다.
- 주요 사업 :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젝트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3. 장애인 및 복지

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

- 목적 : 지체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와 장애인이 함께 하는 걷기대회(201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 사업 :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 이동 지원 서비스, 재활과 자립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84번길 44

2)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 목적 :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추구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인권 친화적 가치와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을 이어 나간다.
- 주요 사업 : 장애인 차별 상담, 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와 교육,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업무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4

3)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부

- 목적 : 안양시의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교통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주요 사업 : 장애인 가정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인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44

4) 밀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목적 : 장애인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지역에서 동등한 기회와 완전한 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 사업 : 동료 상담, 정보 제공 및 의뢰, 권익 옹호, 자립생활 기술 프로그램(ILP), 이동·주거 서비스, 활동 보조 서비스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327번길 11

5) 희망과 사람

- 목적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교육·직업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 주요 사업 :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직업 재활 카페 운영, 『안양희망신문』 발행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0번길 78

6) 장애인 그림 공간 소울음(소울음아트센터)

- 목적 : 그림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미술을 교육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숨어 있는 재능을 꽃피워 전업 작가로의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 주요 사업 : 중증 장애인의 미술을 통한 재활 교육, 장애인 인권 옹호, 장애 인식 개선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212번길 23

7) 세종장애아동후원회(세종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

- 목적 :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소울음아트센터 이전 개소식(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장애인 직업 재활 카페 '안녕'에서 판매하는 메뉴(희망과 사람 제공)

를 만드는 데 방향을 안내하고 함께 도전하고자 한다.

- 주요 사업 : 중증 장애인 돌봄 및 교육 복지 통합 서비스,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창업 지원, 사회적 기업 생산품 공판장 운영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145번길 127

8)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목적 : 과천·군포·안양·의왕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건강과 의료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협동을 통해 서로 살리는 상생의 의료 사회,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받으면서도 차별과 소외가 없는 평등 의료 사회의 구현을 통해 협동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 주요 사업 : 행복한마을 한의원, 건강 강좌 및 프로그램, 다양한 소모임,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의료 지원 서비스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5

9) 유쾌한공동체

- 목적 :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한다.
- 주요 사업 : 무료 급식소·노숙인 쉼터·푸드뱅크 운영, 지역사회 돌봄 사업, 노숙인 자활사업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5

10)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 목적 :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주요 사업 : 치료비 지원, 정서적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45



빛진자들의집 자선 나눔 전시회(2025년, 빛진자들의집 제공)

11) 안민사랑동지

- 목적 :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나눔과 돌봄의 실천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사업 : 저소득 가정 지원, 불우 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 상담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05번길 33

12) 빛진자들의집

- 목적 :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호, 교육, 상담,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다.
- 주요 사업 : 지역아동센터·작은도서관 운영, 위기 가정 아동 임시 보호시설 운영, 소외된 아동을 위한 연말 행사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45

13) 회정치료공동체

- 목적 : 인간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중독이나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그 가족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서로의 경험과 용기, 희망을 나눈다.
- 주요 사업 : 상담·교육 프로그램 제공, 중독 관련 연구·프로그램 개발·논문 발표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1 금강벤처텔 512호

4. 교육 및 청소년

1)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 목적 : '지역사회교육 운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 주요 사업 :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정책 포럼 개최, 전통 문화 계승 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진행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20번길 4, 3층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안양과천지회

- 목적 : 전교조의 안양시·과천시 지역 조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한다.
- 주요 사업 : 교육 정책 제안, 교사 권익 보호, 학생 중심 교육 실현,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 연대 활동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3)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름

- 목적 : 민주시민 교육과 마을 교육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안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포럼, 강좌를 운영하며 공교육 회복과 지역사회 교육 활성화

화에 기여한다.

- 주요 사업 : 민주시민 교육, 강사 양성, 지역 청소년·시민 대상 워크숍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72번길 5
- 소속 단체 : 안양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세바WE, 시민교육연구소 시소, 평화아카데미, 울목icoop생협

4) 안양시민학교

- 목적 :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기초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 성장하고 더 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 주요 사업 : 한글 문해 교육, 초등학교·중학교 학력 인정 과정, 스마트폰 수업, 공동체 프로그램 등 운영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1-1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례를 진행하는 예절강사회(201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5) 예절강사회

- 목적 : 청소년에게 바른 인성과 예절을 교육하고, 전통 예절을 기반으로 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차례나 절, 예절 등을 실습하는 기회를 통해 청소년이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사회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감을 얻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힘쓰는 활동을 한다.
- 주요 사업 : 청소년 인성 교육, 전통 예절 교육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01번길 62

5. 통일 및 평화

1) 안양시재향군인회

- 목적 : 국가 보훈과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 주요 사업 : 보훈 및 안보 관련 행사 개최,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지



안양시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202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역사회 봉사 활동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03

2) 안양시이북5도연합회

- 목적 : 이북 5도민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실향민과 이산가족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주요 사업 : 평화통일·보훈 활동, 통일 교육, 문화 활동, 복지 사업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별관 2층

3)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 목적 : '6·15공동선언실천안양본부'를 시민 참여형 개방적 조직으로 확대·개편하여 안양·군포·의왕 지역 평화통일 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시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6·15공동선언실천경거중분부부가 주최하는 평화통일축제(2023년, 최병렬 제공)

다양한 열망을 담아내고자 한다.

- 주요 사업 : 평화통일축제를 비롯한 평화통일 사업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

4)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 목적 : 시민의 힘으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킨다.
- 주요 사업 : 평화의 소녀상 건립,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사무소 소재지 : 없음



평촌중앙공원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2017년, 안양시청 제공)

6. 문화예술 및 지역 공동체

1) 안양여성무용단

- 목적 : 한국 전통 민속춤뿐만 아니라 현대무용과 외국 민속춤을 공연하며 국내외에 한국의 무용 예술과 외국 문화를 알린다.
- 주요 사업 : 예술적 교류, 전통문화 계승, 공연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8번길 5

2) 현사랑

- 목적 : 기타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문화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주요 사업 : 복지시설 방문 기타 공연, 기타 강사 육성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36번길 16 안양문화재단 내

3) 방타 타악기앙상블

- 목적 : 타악기의 대중화를 통해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주요 사업 : 공연, 타악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 소외계층 지원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 평촌아트홀 내

4) 예봉국악단

- 목적 : 전통음악의 계승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
- 주요 사업 : 일반 공연, 전문 국악인 양성,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 소외계층 대상 국악 공연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96



도시공상가의 문화 공간(2024년, 도시공상가 제공)

5) 필로스하모니

- 목적 : 장애인의 조화로운 신체 발달과 문화예술 발달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주요 사업 : 장애인 무용단, 특수체육단, 장애인 연극단, 우드볼단 운영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96, 505호

6) 문화예술단체 도시공상가

- 목적 : 지역에 대한 애정과 도시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사라져가는 골목 문화를 활성화하고 이웃을 연결하고자 노력하는 예술가 모임이다.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모여 안양의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고 안양 지역사회를 기록한다.
- 주요 사업 : 지역사회 아카이빙, 골목 문화 활성화 사업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12번길 26



안양호스피스선교회 국민추천포상 대통령표창(2025년, 안양호스피스선교회 제공)

7. 자원봉사 및 시민 안전

1) 안양호스피스선교회

- 목적 :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돌봄과 위로를 제공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며,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 생명과 믿음의 가치를 전한다.
- 주요 사업 : 호스피스 돌봄, 환우를 위한 다양한 봉사, 호스피스 교육 및 홍보, 지역 사회·관련 기관과 협력 및 후원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33번길 8 메트로병원 내

2)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

- 목적 : 지역의 치안 유지와 청소년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머니자율방범대의 야간 순찰(2017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산불 예방 및 산악 안전 지킴이 활동(2025년, 안양소방서 제공)

을 순찰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 주요 사업 : 지역 치안 유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통 봉사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3) 안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 목적 :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순수 민간봉사 조직으로, 화재와 재난 대응, 안전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주요 사업 :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의 역할 보조, 화재 예방 및 홍보 활동, 다양한 봉사활동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32

4) 어머니안전지도자회

- 목적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머니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주요 사업 : 각종 안전교육 실시, 사회봉사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 내

5)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

- 목적 : 안양 지역에서 재난 구호, 건강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등 여러 사회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 주요 사업 : 급식 제공, 재난 지원, 건강 관리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안양국제유통단지 지원동 706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의 반찬 나눔(202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삼성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교통 지도(202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사랑나눔회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품 전달(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6) 만안·동안 녹색어머니회

- 목적 : 관내 초등학생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등하교 때 안전한 보행을 지도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없는 환경을 만들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교통문화를 익히도록 돕는 활동을 한다.
- 주요 사업 : 관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녹색어머니회 회원 교통안전교육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만안·동안경찰서 내

7) 안양사랑나눔회

- 목적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취약계층을 후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
- 주요 사업 : 정기후원(CMS), 다양한 사회봉사, 급식시설 지원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7번길 6-29



안양YMCA 주최 관양마을장터(안양YMCA 제공)

8. 기타

1) 안양YMCA

- 목적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함양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 주요 사업 : 아기스포츠단·대안학교 ‘벼리학교’·등대생협 운영, 마을 운동, 청소년 운동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184번길 3

2)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안양시협의회

- 목적 :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정신운동 단체로,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새마을회의 국제교류사업 물품 지원(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 주요 사업 : 독도 주권 지키기, 국토 청결 운동, 장묘문화 개선 운동, 저출산 극복 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과 봉사활동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3) 안양시새마을회

- 목적 :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근면·자조·협동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주요 사업 :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환경 보호, 공동체 문화 확산, 주민 자립 지원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51번길 58-2



안양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전원회의 및 발족식(201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4)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 목적 : 한국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 각국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주요 사업 : 안보 의식 함양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봉사 및 나눔,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문화 및 시민의식 함양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86 자유회관 내

5) 안양청년회의소

- 목적 : 다음 세대를 이끌어간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내일의 지도자를 양성하며, 세계 회원국 간의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다.



제37주년 6월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2024년,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제공)

- 주요 사업 : 국제사업, MOU 체결, 지역사회 활동, 기부 활동 등
- 사무소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44번길 46

6)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목적 : 안양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공동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 주요 사업 : 안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민 모니터링, 정책 제안 및 시민 교육, 공익 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 사무소 소재지 : 없음
- 참여 단체 : 안양YMCA,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안양여성의전화, 대안과나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7)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목적 : 경기 중부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을 이어가며,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존하는 활동을 한다.
- 주요 사업 : 민주화 역사 보존 및 교육,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 시민 인권 보호 활동, 지역사회와 연대 활동, 청소년·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
-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

8)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 목적 :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한 지역 기반의 노동 지원 단체이다.
- 주요 사업 : 노동권 보호 및 고용 안정, 노동 상담 및 교육, 실태 조사 및 정책 제안, 노동 인식 개선 캠페인, 노동자 자조 모임 지원 등
-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20
- 부설 단체 :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

註

1.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2023. 12. 21 기준)과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대장(2023. 12. 31.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원고 제출일 기준(2024. 11. 30.) 활동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단체 위주로 서술하였다.

배달대행

권리찾

찾아가

노동

상담



안전한
행동

제1장

아름다운 노동

: 신영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전업 시민운동가의 길

만안구 냉천로 도로변에 자리한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는 2010년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과천 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며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로 바뀌었다가, 다시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라는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 센터의 사무국장인 신영배는 누가 뭐라 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전업 시민운동가이다. 시민운동이 그의 현재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는 오롯이 시민운동에 대한 일념 하나로 대기업 부장이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저 없이 내려놓았다. 매달 일정한 급여가 보장되는 일도 하지 않는다. 생계를 위한 직업 대신, 온전히 현장 활동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택이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돕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내 건강이 과연 언제까지 이 꿈을 허락할까?’,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에 퇴사를 서둘렀다고 한다.

전업 운동가 신영배가 주로 하는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이다. 이를 위해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캠페인을 펼친다. 또 아파트 경비원, 배달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맡고 있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고, 직장에서도 주로 법률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경력을 바탕으로,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내려놓고 전업 시민운동가로 나선 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 같지만, 그의 설명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료하다. 시민운동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때마침 경제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새로운 일



신영배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사무국장

에 도전해야 한다는 그의 독특한 인생관이 더해져, 과감하게 사표를 낼 수 있었다.

그가 젊었을 때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야 일에 대한 적응이 훨씬 수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가 일찌감치 회사를 떠난 결정적인 이유였다. 더 늦게 퇴직했다면 실무자가 아닌 시민운동의 원로 역할만 맡게 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 이유로, 나이로 보면 시민운동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그가 현재도 ‘대표’나 ‘고문’이 아닌 ‘사무국장’이라는 실무 직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빠른 사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철저한 준비라는 것이 신영배의 생각이다. 그는 ‘준비 없이 변화는 없다’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삶의 진리로 여긴다. 실제로 그는 철저한 준비 끝에 안락한 직장을 그만두고, 찬바람 부는 광야로 나왔다. 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독서와 인맥 쌓기였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시민운동 관련 서적을 섭렵했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준비를 이어갔다. 만약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아무리 일찍 퇴직했더라도 결국 퇴직 직전과 다르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았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역시 중요한 것은 ‘살림살이’다. 먹고살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한 준비였다. 그가 택한 방법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방식이었다. 바로 ‘안 벌고 털 쓰기’이다. 대기업 직원의 연봉이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그만큼 소비도 컸을 것인데, 그는 과감하게 씬씀이를 줄이기로 결심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예전처럼 쓰고 싶은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표 낼 때의 결심을 지금까지 지키며 돈을 버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철저한 소비 계획을 세웠다. 퇴직금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버티는 계획을 세우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그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다. 넉넉하진 않아도 부부가 함께 사는 데 큰 부족함은 없다고 한다. 퇴직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으로, 그래도 부족하면 주택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활 설계이다. 돈을 벌지 않지만, 가끔 강연료 같은 예기치 않은 수입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것이 시민운동을 하며 얻는 거의 유일한 수입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상담하는 신영배

신영배는 통일운동가 고 문익환 목사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오십의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철학과 사회과학 서적을 집중적으로 탐독하였다. 그리고 준비가 끝났다는 판단이 섰을 때 마침내 사표를 던졌다.

신영배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가족들은 그의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다. 대학 입시부터 취업까지 스스로 해낸 기특한 아들과 딸이 있었고, 덕분에 그의 어깨는 가벼웠다. 오히려 감사패까지 만들어 그에게 건넸고, 신영배는 그 감동적인 응원 속에서 더 큰 힘을 얻었다.

27살 청년으로 입사하여 30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근무하셨습니다. 한 여자의 사랑하는 남편으로 아이들의 존경하는 아빠로 우리의 인생 선배로 모범이 되어난 당신 신영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반백의 멋진 중년으로 돌아와 젊은 날 품었던 신념을 위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2. 비정규직 권익 보호와 평화로 향하는 걸음



신영배가 가족에게 받은 감사패(신영배 제공)

신영배는 이미 청소년기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 이 마음은 대학 시절, 1987년 6월항쟁을 목격하면서 더욱 구체화하였다. 그런 생각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법대생 신영배를 결국 학생운동의 길로 이끌었다. 하지만 당시 학생운동권 사이에서 유행하던 노동 현장이나 시민운동 현장으로 곧장 뛰어 들 수는 없었다.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대생으로서 집안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그는 심한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고시 공부를 계속하였다.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는 1980년대 후반의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당시 이른바 ‘빨간책’이라 불리던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노동 현장을 찾아다니며 스스로 의식화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려야 한다는 점이었다. 자식이 판검사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젊은 신영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성실하게 네 남매를 키워낸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 그의 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노동운동이나 통일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취업해서 돈을 벌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그는 취업을 선택하였다. 빨리 돈을 벌어야 했고, 임종을 앞둔 아버지께 아들의 결혼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생계를 위해 발을 들인 회사였지만, 신영배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만 하지는 않았다. 노동조합 활동을 병행했고, 거주하던 대구 지역의 시민단체 일도 틈틈이 하며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본사의 부장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는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민운동에 대한 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권익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신영배(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제공)

신영배는 연봉 높은 직장인으로 살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주저 없이 말한다. 마음을 다하여 하는 일과 단지 먹고살기 위해 하는 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신영배가 선택한 길을 한결같이 응원해 주던 아내는 지금은 종종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 불만은 알고 보면 칭찬에 가깝다.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사, 어쩌면 사장까지도 됐을 텐데…”라는 말은 분명한 칭찬이다.

그는 전업 시민운동가로 살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아내와 여행 한 번 제대로 다니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한다. 든든히 지지해 주는 가족과 헌신하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슴 깊이 자리한 사명감, 그리고 일 자체의 즐거움 덕분에 얼굴을 찡그릴 일이 없다고 한다.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신영배에게도 걱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다.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기능과 민간의 자율적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불황과 실업, 빈부 격차 확대,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신영배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전체 노동자의 60%에 이를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문화한마당 사물놀이 공연(202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분단 80년 판문점선언 7주년 전쟁반대 오직평화 사회대개혁 거리 캠페인에 참여한 신영배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분부 제공)

정도로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의미하는 현상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공적 개입을 꺼리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서, 경비·미화원·이주 노동자·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권익 침해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종이 다양하고 근무지도 분산되어 있어 노동 환경 실태 파악도 어렵고, 조직화는 더더욱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신영배는 노동운동의 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 아닌,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배가 하는 일은 비정규직 권익 보호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통일운동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과천 지역의 평화·통일운동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에서 집행위원장으로 5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2019년 철원 DMZ에서 열린 ‘평화 손잡기’ 행사에 시민 2,000명을 참여시킨 일을 그는 지금도 가슴 벅찬 순간으로 기억한다.

그는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정한 목표 지점을 정하고 나아가기보다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목표에 도달하려는 집착은 오히려 매일을 실패로 느끼게 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의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매일이 성공이라는 것이다.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신영배는 정치와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그는 정치에 마음을 두게 되면, 권력을 감시하고 정치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운동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2024년 11월 16일, 신영배는 모교인 경북대학교의 민주동문회로부터 ‘민주동문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고생하신 선후배들 앞에 부끄럽지만, 이번 수상을 시민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소감을 밝혔다.

제2장

장애인 인권 지킴이

: 최승민 안양시장장애인인권센터장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장애인의 이동과 삶을 바꾼 그의 실천

최승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장이 내딛는 한 걸음이 얼마나 고된지, 필자는 2층에 있는 식당으로 함께 올라가면서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왼손으로 난간을, 오른손으로 는 지팡이를 꼭 움켜쥔 그는 양팔의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리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평지를 걸을 때 보였던 경쾌하고 자연스러운 걸음은 그곳에 없었다.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그의 장애가 상당히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필자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힘겨운지 제대로 느끼지 못하였다. 그의 걸음걸이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증의 장애를 지녔지만, 그는 자신의 장애 극복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래도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진 상태이다. 신체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그렇다. 사고 직후에는 똑바로 앉기도 어려워 늘 누워만 있어야 했다. 지금도 어딘가에 기대지 않으면 혼자 앉아 있기는 어렵지만, 외견상 움직임은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의 걸음걸이가 그만큼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걷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평지를 걷는 최승민의 모습을 보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떨쩍하다’는 표현이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다. 종종 휠체어를 타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디 아프냐고 묻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처럼 걷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은, 그가 관절 속 근육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걷는 방식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다. 보조기를 벗으면 바닥을 기어 다녀야 할 정도로 상태는 심각하다. 강한 진통제의 도움도 필요하다.



최승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장

최승민은 2015년에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였다.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중에, 보다 진취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이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인권 상담,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교육 등

을 통해 장애인 권익 증진은 물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실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는 2008년~2014년, 최승민이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이미 초석이 다져지고 있었다. 그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양시에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했고, 그 결과 2011년 5월 안양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착한 수레'라는 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착한 수레'는 중증 보행 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이다.

2011년 11월에 문을 연 '안양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역시 최승민의 제안과 활동이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장구 수리센터는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례이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에서는 휠체어나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펑크나 부품 교체 등 간단한 수리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최승민이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을 위해 나서자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보탰다. 작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렸을 때, 고마운 이들이 알아서 찾아와 주었고, 후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모인 '유료 회원'이 설립 당시 250여 명에 달했다. 이 중 약 2/3는 장애인이고, 나머지 1/3은 비장애인이다. 회원들의 장애 유형도, 지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시각장애·뇌병변 장애 등으로 다양하다.



안양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개소(201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시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이동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착한 수레'(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 '장애'와 '비장애'로 나누지 않는 세상을 바라며

안양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 영화제는 장애인의 삶과 시선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거의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3년에는 4월 13일~14일 이틀간 안양시청 강당, 평촌CGV, 범계역 샬롯데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주제 아래 총 7편의 영화가 상영되었고, 4월 14일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밴드 '위풍당당밴드'가 식전 공연을 펼쳤다.

2024년에는 9월 6일 범계역 샬롯데광장을 중심으로 열렸으며, 장애 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영화들이 무료로 상영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권영화 상영, K-POP 공연, 장애인과 비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전시 등이 이어졌고, 인권과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도 마련되었다. 행사장에서는 선착순 100명에게 인권 배지를 증정했으며, 텀블러를 가지고 온 참가자에게는 음료를 제공하고, 텀블러 가방도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는 영화제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 인권 강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인권 관련 토론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연대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활동가 전원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없이 오직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 최승민 센터장은 도움을 받지 않고 몇몇하게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금껏 실천하고 있다. 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들의 잘못된 장애인 정책이나 관행을 비판하거나 개선을 제안하는 데 제약이 생긴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이 센터를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는 근본 이유이며, 그는 지금까지 이 원칙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의 활동가는 최승민 센터장을 포함해 14명에 이르며, 모두가 급여 없이 일하고 있다. 그만큼 운영의 어려움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에도 참여하여, 거주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현재 최승민은 다양한 시설과 기관에서 운영



2024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



2024 안양 장애인 인권 문화제

"함께 하는 일상"

The 10th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담다



일 시 2024. 9. 6. (금) 10:00 -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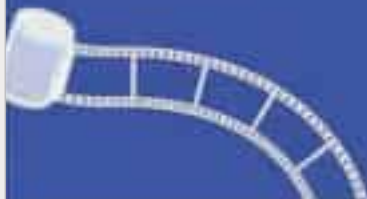
장 소 범계역 롯데백화점 사포대광장

행사내용 인권영화상영, 공연행사, 전시, 체험, 이벤트

혜택 텀블러 이벤트 음료 무료 제공 선착순 300명
텀블러가방 무료제공 선착순 100명



YouTube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주최 주관 경기도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후원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내일 우리
지원 안양시, 롯데백화점

제10회 장애인인권영화제 홍보물(안양시청 제공)

위원 또는 인권 지킴이 단장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승민의 역할은 장애인인권센터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가 하는 일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부터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최승민은 2016년부터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예술로’에 참여해 ‘나의 인권, 모두의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오고 있다.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예술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4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예술인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예술가와 협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연결해 예술과 사회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최승민은 대한민국 상이군경체육회 사이클연맹에서도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군 복무 중 훈련 사고로 다리를 다쳐 장애를 갖게 된 상이군인으로, 의병 전역 이후 7년간 재활치료를 받았다. 이후 경기도 장애인사이클연맹 소속 선수로 전국대회에 두 차례 출전하기도 했으며, 2023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3 독일 인빅터스 게임’에서는 남자 실내 조정 1분 경기 부문에 출전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승민이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2023 독일 인빅터스 게임' 실내 조정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환호하는 모습(최승민 제공)



제1회 안양시장애 론볼대회(201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당시 그는 취재진에게 청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군대에 가야 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처럼 사고를 겪은 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공포와 좌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승민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연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를 맡아 미래의 사회복지사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승민은 안양시 장애인론볼연맹을 창립하여 선수 겸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장애인기업 ‘너른 우산’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안양 시민사회 연대체인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사무국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안양시의 시정 소식지 『우리 안양』의 점자책(2025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최승민은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서 우리 사회의 장애 인권 수준을 100점 만점에 약 60점 정도로 평가한다. 그는 장애 인지 감수성은 10여 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편견과 오해가 존재한다며, 60점 정도면 낙제는 면한 정도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표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한다.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언어가 오히려 장애인 차별을 만든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비장애인이라고 해도 시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 등 장애의 요소를 겪는 사람이 많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처럼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결국 두 단어 모두 불필요하며, 이런 구분이 존재함으로써 차별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언어 구분이 사라져야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차별도 줄어들며,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봐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1.9%이며, 나머지 88.1%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였다. 그중 후천적 질환이 58.1%, 사고가 29.9%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대부분 장애는 후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막연한 두려움이나 차별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최승민의 생각이다. 그는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인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제3장

장애인 돌봄

: 문경식 (사)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완소남의 즐거운 인생

(사)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조사·발굴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능 향상, 정서적 지원은 물론 그 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까지 아우르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행복을 주는 기관, 사람이 중심인 활기찬 희망세움터’를 표어로 하며,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아동·부모·후원자·봉사자·동료가 서로 존중하는 삶’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 단체는 2002년 9월 ‘난치병어린이돕기운동 안양본부’로 출발하여, 2008년 ‘난치병어린이돕기운동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2009년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난치병 아동 전용 센터인 ‘희망세움터’를 개소하였고, 2015년 7월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2012년부터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의 상임대표를 맡아온 문경식은 ‘작은 거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지만, 본인은 자신을 ‘완소남’이라 소개한다. 여기서 ‘완소남’은 기존의 유행어였던 ‘완전 소중한 남자’가 아니라, ‘완전 작은 남자(完小男)’라는 의미의 패러디 표현이다.

문경식의 키는 약 158cm로, 같은 연령대 한국 남성 평균 키인 170cm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이 작은 키는 그에게 중·고등학교 시절 큰 스트레스였다. 버스에서 내려야 하는 정류장이 다가와도, 여학생들이 옆에 서 있으면 키가 들통날까 봐 내리지 못하고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뛰어오는 일이 흔했다. 대학 시절에는 나폴레옹·강감찬·등소평 등 키가 작은 역사적 인물들을 조사해 영웅은 키가 작다며 주위에 떠들고 다니기도 했지만, 이 역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난치병아동돌봄기운들본부 희망세움터 환영 현수막

문경식은 대학을 졸업한 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건설회사·병원 원무과 등 당시로서는 별이가 좋은 직장이었지만, 문제는 마음이 늘 허전했다는 점이다. 안정된 직장이 그의 지갑은 채워주었지만, 마음까지 채워주지는 못하였다.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그가 선택한 길은 사회복지였다.

대학 졸업 후 10여 년간, 문경식에게 붙는 수식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병원 원무과장 등으로 일했지만, 이런 일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학창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언젠가는 사회 변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먹고사는 문제로 인해 결국 직장에 들어가야 했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허탈감을 안고 살았다. 현실과 타협하며 손을 맞잡으려 애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허전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져만 갔다.

대학 시절 그는 교지 편집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까지 갔던 운동권 학생이었다. 졸업 후에는 대학 선배였던 고(故) 이철규 열사의 추모사업회 일을 1년

간 맡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이철규는 조선대학교 교지 편집장으로 활동하다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되었고, 도피 중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문경식은 그의 뒤를 이어 교지 편집장을 맡았고, 졸업한 해인 1990년에는 같은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4개월간 수감되었다.



문경식 난치병어린이돌기운동본부 상임대표

결국 그는 평범한 직장인의 길을 내려놓고 사회복지에 뛰어 들었다.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서른여덟이라는 이른 나이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자칭 '완소남' 문경식이 처음 시작한 사회복지 활동은 군포 한무리교회 공부방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는 것이었다. 먹고사는 일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그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며 사회복지 인생의 첫발을 내디뎠다.

문경식은 안정된 사무직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하며 퇴근 후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을 이어갔다. 이후 자원봉사를 하던 한무리교회 부설 나눔의집 사무국장을 맡으며 사회복지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게 되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서 허전한 마음은 어느 정도 채워졌지만, 문제는 가벼워진 지각이었다. 평소 웬만해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무뎠던 아내였기에 돈을 벌어오라는 눈치를 주는 일은 없었지만, 가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떨치기는 어려웠다. 그는 직장 일로 바쁜 아내를 위해 설거지와 빨래 같은 가사노동을 성심껏 도왔지만, 마음 한편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문경식이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연봉 5,000만 원이 훌쩍 넘는 '좋은 자리' 제안이 계속 들어왔다. 2000년 무렵 당시 기준으로 5,000만 원은 제법 고액 연봉이었다. 한 달에 75만 원 정도였던 한무리나눔의집 사무국장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돈이었다. 문경식은 그만큼 내적 갈등이 컸다고 한다. 자꾸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선언'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사회복지에 목숨을 걸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의의 표현이었을 뿐, 주변 사람들이 그의 굳은 결의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난치병 아이를 둔 부모 중에는 1~2년 하다 그만둘 거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2007 난치병어린이돕기운동본부 정기총회 및 모금 선포식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재활치료센터 개소(201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정작 난치병 아동의 부모도 아닌 그가 과연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던 것이다. 그러나 문경식이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이 바로 그 부모들이다.

문경식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선언이라는 형태로 맺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그는 2002년 9월, 한무리나눔의집을 모태로 한 난치병어린이돕기운동 안양본부의 창립을 주도하였고, 2010년에는 장애통합지원센터인 ‘희망세움터’를 개소하여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사업을 확장해 지금은 ‘두리ماغ장애인주간이용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두리망은 2022년에 문을 열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은 물론 성교육, 인권 교육, 보호자 상담, 재활 서비스 등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일을 비롯해 각종 기념일도 함께 챙겨주며, 장애인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2.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희망을 세우는 사람

희망세움터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아동 18명과 다양한 유형의 장애 아동 61명을 포함해 총 86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란 근육이 점차 퇴화하는 근이영양증(筋異營養症)처럼 매우 드물게 발병해, 이해하기도 어렵고 치료도 까다로운 질환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0여 종의 희귀·난치성 질환과 80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망세움터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근육병, 다운증후군, 백혈병, 뇌병변 등 10여 가지의 질환을 앓고 있다. 또한 자폐나 지적장애 등 난치성 장애를 지닌 아동도 61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완치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어, 평생에 걸친 돌봄이 필요하다.

희망세움터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공연 관람, 행사 체험 등의 문화교육과 함께 제과·제빵·바리스타 교육 등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봄과 가을에는 나들이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이 외에도 방송댄스·체육·국어 독해·창의 수학·미술 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육활동은 주로 미니 볼링처럼 큰 움직임이 필요 없는 활동 위



제10회 '세상의 다리가 되어준 나무' 콘서트에 참석한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임원진(2016년,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제공) 왼쪽부터 김영우 이사, 국상표 이사장, 문경식 상임대표

주로 구성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비교적 활동량이 많은 댄스이다. 직업교육 중에서는 커피 바리스타 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장애 관련 직업군 중 가장 각광 받는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제과·제빵 교육도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문경식은 더 많은 직업군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이 그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안양·군포·과천시 등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일이다. 이 사업은 문경식이 2002년 난치병 아동돕기운동본부를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2년 첫해에는 모금을 통해 16명의 아동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매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규모의 치료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 금액은 약 12억 원에 달한다.

사회복지의 길에 들어설 당시, 문경식은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희망세움터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가 특히 어려웠다. 큰 건물이다 보니 소유주가 44명이나 되었고, 입주를 위해서는 규정상 90% 이상



(사)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희망세움터' 사랑의 산타행사



희망세움터 아이들의 딸기농장 체험(2019년,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제공)



지속가능한 청렴도시 안양을 위한 반부패 청렴 실천 공동 협약 선언식에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로 참여한 문경식 (2023년, 안양시청 제공). 왼쪽 두 번째가 문경식이다.

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난치성 질환’이라는 말을 들은 일부 소유주들이 그것을 전염병으로 오해해 동의를 꺼려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한 달가량을 쫓아다니며 난치성 질환은 전염병이 아니라 다만 치료가 어려운 병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얻어내 결국 어렵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경식은 그것을 감내하기 힘든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기쁜 순간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인지 그는 20여 년 동안 남들 다 가는 여름휴가 한 번 가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문경식은 아주 큰 꿈을 품고 있다. 그것은 ‘희망세움터’와 같은 장애인 돌봄 시설을 동(洞)마다 하나씩 세우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일이 꿈을 꾸며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되었고, 그런 간절함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따라서 동마다 돌봄 시설을 만드는 꿈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나름의 논리로 뒷받침된 그의 지론이다.

문경식은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가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이다. 남들이 보기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그는 이를 학창 시절 꿈꾸었던 사회 변혁 운동의 연장이라 여긴다. 그가 말하는 사회 변혁 운동의 핵심은 ‘나눔’과 ‘연대’이다.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유사한 일을 하는 이들이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 아래, 지금도 그는 여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나눈다. 승합차도 하루 2만 원 정도의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다른 단체에 빌려주고, 누군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다고 하면, 개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심지어 비영리 업계에서는 일종의 영업 기밀인 모금 노하우까지도 아낌없이 제공한다. 그로 인해 후원자가 다른 단체로 후원을 변경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문경식은 퍼주기를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근·비상근 직원을 모두 합치면 50여 명이 넘는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대표 문경식이 하는 일은 과거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일반 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아이들 송영(送迎) 업무가 점점 힘에 부친다고 한다. 어느새 환갑의 나이가 되었다.

제4장

희망 연대

: 노윤희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장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돌봄이 낳은 희망

승원이(가명)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얼굴로 쏠렸다. 8개월 전에 졸업하고 센터를 떠난 아이였다. 졸업한 아이가 다시 센터를 찾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다.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었지만 성실하게 배우고 익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고 졸업한 아이였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인 19살까지 센터에서 돌봤으니,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특히 버스에 관심이 많아 안양시 버스 노선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아이였다.

문 앞에 서서 머리를 한 번 꾸벅 숙인 승원이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유희가 “승원, 어쩐 일이니?” 하고 물었지만, 승원이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으로 눈만 깜빡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유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서자, 승원이는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지듯 놓고는 줄행랑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여러 번 이름을 불렀지만, 승원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승원이가 놓고 간 봉투를 열어본 노유희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동시에 가슴 밑바닥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북받쳐 올라오는 느낌도 있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네 장이 들어 있었다. 후원금으로 가져다 놓고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메모도 없었다. 노유희가 승원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역시 예상대로였다. 그날은 승원의 월급날이었다. 취직을 하고 첫 월급을 받은 날, 봉투를 들고 센터를 찾아온 아이는 승원이뿐이었다.

노유희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장의 25년 사회복지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기억을 이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부설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입구

렇게 이야기로 재구성해 보았다.

그는 정말 가슴이 뭉클 했노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승원이는 선생님들에게 간식비를 보내고 싶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귀한 돈을 간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논의 끝에, 그 돈은 장애 아동을 위한 '미래희망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되었다.

2. 장애 아동 돌봄의 일상과 어려움

노유희의 일터는 장애 아동 전용 지역아동센터다. 초·중·고 학령기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용하는 시설이다. 경기도에는 약 78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이 중 30여 곳이 장애 통합 지역아동센터이고, 장애 아동 전용 지역아동센터는 단 두 곳뿐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이다. 센터장과 조리사를 포함해 총 8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모두 여성이다.

이곳에서 돌보는 25명의 아동은 모두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다운증후군 등 다양한 장애를 복합적으로 지닌 난치성 장애 아동들이다. '프레더 윌리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도 있는데, 이 증후군 아동은 식욕 조절이 어려워 스스로 음식을 자제하지 못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병원이 아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장애 아동에게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센터의 고유 업무는 각 아동의 증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눈높이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언어 치료, 심리

치료, 기초 학습 지도 등이며, 이를 통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훈련을 병행한다. 장애 아동에게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 즉 사회성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화 관람이나 봄·가을 나들이 같은 문화 활동 역시 아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매월 첫째 주 주말에는 문화 시설 견학 등 외부 활동을 주로 진행하며, 미니 볼링이나 댄스와 같은 체육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어울려 살아가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사람이 모여 있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다. 비장애 아동보다는 빈도가 낮지만, 장애 아동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다툼이 발생한다. 이럴 때가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이다. 다툼이 일어나고, 힘이 약한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선생님들이 즉시 나서서 중재에 들어간다. 아이들을 화해시키는 것이다. 쉽게 화해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사로서 매우 난감하다.

또 훈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소 높아질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자폐 아동처럼 감각에 민감한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심할 경우는 교사에게 달려들어 무는 일도 있다. 어린아이라면 제지할 수 있지만, 덩치가 큰 아동의 경우 여성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때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억지로 화해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을 일단 분리하고,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이다.

장애 아동 돌봄 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 돌봄은 사회복지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를 채용할 때는 유아 보육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는 편이다. 신체가 성장한 청소년기의 아동이라도 사고와 행동은 여전히 유아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 채용 시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로 유아를 돌본 경험이 있는 교사가 장애 아동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윤희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장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사업의 아이들 활동(2021년,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제공)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사업 프로그램(2023년,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제공)



왁자지껄 체육대회(2022년,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제공)



케이크 만들기(2024년,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제공)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노윤희

3. 희망을 세우는 삶

노윤희가 사회복지의 길에 들어선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다. 그는 초등학교생이던 딸을 방과 후에 ‘한무리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보내면서, 자원봉사를 계기로 이곳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다 1999년부터 한무리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일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사회복지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기 전에는 치과 병원에서 간호사로 10여 년간 근무하였다. 결혼 후에는 약 3년간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장사는

그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았다. 장사란 기본적으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일인데, 이윤 추구는 노윤희의 성향과 상반되었다. 그는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성격이었다. 이러한 성향은 이윤을 극대화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과는 잘 맞지 않았다. 이런 성격을 바꿔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그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이익이 많이 남는 제품을 권해야 했지만, 그는 늘 손님의 주머니 사정부터 먼저 생각했다. 결국 열 번 중 아홉 번은 저렴한 제품을 권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팔아도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았다.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의 그의 성격과 아주 잘 맞았다. 그는 교사로 시작하여,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책임지는 센터장 자리까지 올랐다. 물론 노력 없이 ‘장(長)’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는 적극적으로 공부에 매진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는 일을 그냥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만큼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도 땀다.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고 판단해,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마침내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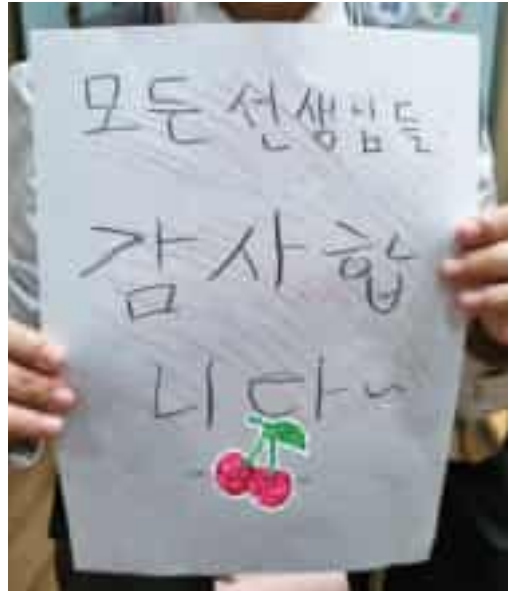
그의 공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내친김에 사회복지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지난 2014년, 51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회복지가 적성과 잘 맞는 일이었기에, 지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사실 젊은 시절 노유희의 꿈도 사회복지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스물한두 살 무렵, 그는 결혼하지 않고 보육원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였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참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할 기회가 찾아왔고, 아이들을 돌볼 기회도 생겼다. 돌이켜보면 그가 이 길로 들어선 것은 운명적이고, 동시에 필연적인 일이었다.

장애 아동들이 좀 더 편안하게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부모들이 센터를 믿고 오롯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노유희가 세운 가장 큰 목표이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 역시 센터장으로서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노유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복지 공약과 정책이 쏟아지지만, 장애 아동 돌봄과 관련한 정책은 여전히 드물다고 말한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듯해 늘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소연한다.

장애 아동 전용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10년 문을 열었다.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과 난치성 장애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과 재활치료의 전용 공간으로서, 지금도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스승의 날에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받은 편지(2021년,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제공)

제5장

나눔과 돌봄

: 안승영 (사)유쾌한 공동체 이사장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노숙인의 쉼터 ‘유쾌한 공동체’

(사)유쾌한 공동체는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실직자 급증과 이로 인한 노숙인 증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안양노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노숙인 보호시설이 그 모태이다. 유쾌한 공동체는 그동안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에게 잠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해 왔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치유 활동도 함께 펼쳐왔다. 또 직업 교육 같은 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약 700명의 노숙인이 사회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왔다.

유쾌한 공동체는 ‘희망사랑방’과 ‘유쾌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사랑방은 노숙인 쉼터로, 숙식은 물론 인문학 강좌와 취업 지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유쾌한 무료급식소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 하루 약 100명에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이 모든 활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오롯이 봉사자와 후원자의 따뜻한 손길로 운영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추모사업도 이어오고 있다. 안양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2명에 달하며, 지금도 그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쾌한 공동체는 참여와 나눔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이 공동체를 이끄는 인물은 안승영 목사이다. 2018년 7월, 유쾌한 공동체는 재개발로 인해 안양역 인근의 세 들어 있던 건물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임대료 때문에 마땅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유쾌한 공동체는 세입자 신분이었기에 별다른 보상을



안양역 인근에 있던 유쾌한 공동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었다.



안양5동으로 이전한 유쾌한 공동체



건물 이전 감사예식에서 유쾌한 공동체의 활동을 보고하는 안승영 목사(2023년, 유쾌한 공동체 제공)

받을 수 없었다. 더구나 비영리 사업체라는 이유로 상가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영업 손실 보상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1,000만 원 정도의 이사비가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노숙인 쉼터가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주민들의 반대였다. 우여곡절 끝에 유쾌한 공동체는 안양우체국사거리 중화한방병원 맞은편에 새 보금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안승영 목사는 노숙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라고 말한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든 사람들의 모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명절에도 급식소 문을 닫지 않는다. 평소에는 쉼터 식구들(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7명에게만 세 끼를 제공하지만, 명절에는 급식소를 찾는 모든 이에게 세 끼를 제공한다. 쉼터 식구들과는 함께 차례도 지내고, 설날에는 윷놀이도 하며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

유쾌한 공동체는 몇 년 전부터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추모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안승영 목사는 2020년 추모제에서 직접 지은 추모 시를 낭독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슬프고 아름답다.

길 떠난 노숙 형제에게 바치는 시

안승영

먼 길 떠난 노숙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움에

미안함에

그렇게 떠난 길 한은 풀리셨소

모난 아스팔트 바닥에서

끊어져라 이 목숨

그렇게 무심하게 살아왔는데

마침내 그 뜻을 이루셨소

부디 평안하시오

이승에 더럽고 험잡한 번뇌는

이제 우리의 몫으로 돌려주시구료

그리고서 하늘에서 꽃비 내리는 것도 보고

폭풍처럼 휘휘 휘날리는 비바람에 세상 시름도 흘려보내고

낙엽이 지면 또 깃발 빨강게 될 겨울 걱정일랑

허허 웃어넘기고 눈보라 속에 그리운 추억만 되새기구료

이승은 아직도 매섭소.

2. 노숙인 돌봄에 뛰어든 목사

노숙인의 친구, 안승영 목사. 그가 처음부터 노숙인 돌봄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30대 중반에 이 길로 들어섰으니 이른 나이이긴 했지만, 이 일이 그의 첫 직업은 아니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던 시절도 있었다. 고향인 전라북도 남원의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그는 종종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 의문을 품곤 하였다. 그의 마음을 끌었던 것은 ‘복음’ 그 자체보다는 가난과 불행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 온 고향 사람들의 모습, 밤낮없이 일하면서도 늘 가난에 시달리는 그 현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가난과 불행에 대해 묻고 또 물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내면의 흐름이 있었기에, 선배 목사가 노숙인 사역을 권유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백일도 채 되지 않은 둘째를 들쳐업고 서울로 상경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던 복음이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복음이 진정 생명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다.

안승영은 2002년, 선배 목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유쾌한 공동체에 발을 들였다. “너하고 딱 맞는 일이야.”라는 지인들의 격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신학대학 시절부터 꿈꾸던 일이었기에 그는 주저 없이 노숙인 돌봄에 뛰어들 수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돌쇠 목사’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몸으로 부딪치는 일을 좋아했기에, 적성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그는 사회적 약자가 잘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가난한 시골 유학생이던 안승영은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무려 13년 만에 신학대학을 졸업하였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했고, ‘총알택시’ 기사도 해봤으며, 두부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기독교 농촌연구소’를 표방하며 수박 농사도 지어봤지만, 장마 때 닝쿨째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픔도 겪었다.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가난과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게 되었다.

유쾌한 공동체에 오기 전, 안승영이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는 그의 고향인 남원의 시골 마을에 있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마을은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가난한 곳이었다. 역세계 노동해도 가난은 대물림되었고,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마을 사람 몇몇은 여성 장애인에게 ‘미친년’이라며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지키는 일이 곧 신앙이 되었다.

안승영은 태생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늘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고, 함께 행동하며 눈높이를 맞춰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안승영 유쾌한 공동체 이사장



유래한 공동체의 무료 급식(2024년, 유래한 공동체 제공)



취약계층을 위해 보쌈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유래한 공동체 제공)



유래한 공동체 보쌈데이 안내판

본성을 선배 목사는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안승영은 노숙인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나친 경쟁에서 찾는다. 노숙인은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 중의 약자에 속한다. 대부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경쟁에서 밀려나 오갈 데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또한 노숙인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애초부터 약한 고리이다. 신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약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건강하고 학벌 좋은 사람들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하물며 원래부터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신체까지 허약한 사람들이 그 경쟁을 버텨내기란 더더욱 어렵다. 결국 이들은 사회에서 낙오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고달파지며, 그러다가 가족에게조차 외면받으면 거리로 나오게 된다. 막노동을 전전하다 결국 노숙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노숙인 중 상당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이다. 이들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때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곤란한 경우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숙인이다. 이들은 맨정신으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피한 뒤, 차분히 다독여 병원에 데려간다고 한다. 그래서 우울증 증세가 있는 노숙인이 심터를 찾으면 초기 상담부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안승영은 알코올 의존증이나 우울증이 호전되어 노숙인이 사회로 복귀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알코올 의존증은 마음만 굳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한 번 술을 입에 대면 한 달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않으며 술만 마시던 이가 있었는데, 결국 그도 금주에 성공하였다. 병원에 수없이 데려가고, 마음을 써주고 돌보면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일에 대한 의욕을 되살려 준 결과였다. 그렇게 몇 년 만에 술을 끊고 사회에 복귀한 이들이 봉사자로 다시 찾아올 때가, 안승영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다. 그러나 술을 끊지 못해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마주할 때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안타깝다고 고백한다.

그는 노숙인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라고 강조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노숙인에게 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어, 통계상 노숙인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노숙인의 정의가 '집이 없는 사람'이니 집만 주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 물론 주거 복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직업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 비로소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승영이 생각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에 대한



안승영 목사의 노숙인 이웃리치
(유쾌한 공동체 제공)



희망사랑방 노숙인을 위한 신용
회복 교육(2021년, 유쾌한 공동
체 제공)



무연고 사망자 묘지 벌초 후 묵
념하는 유쾌한 공동체 가족
(2021년, 유쾌한 공동체 제공)



희망사랑방 쉼터 노숙인들 예절교육(2022년, 유쾌한 공동체 제공)

사회적 성찰과 반성이다.

안수받은 목사로서, 안승영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반적인 목사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안승영이 생각하는 목사 본연의 일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대형 교회나 교회 성장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운영하고 교육하는 곳도 적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교회들의 문제점이 고쳐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가 생각하는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아픈 사람과 낮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주고,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는 이기적인 자본주의 논리에 물들어, 전혀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곳이 많다고 지적한다. 크고 좋은 교회 건물을 세우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예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제6장

환경 지킴이

: 노훈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자본주의 ‘번 아웃’을 겪은 뒤에 만난 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환경 운동을 통해 지구를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터로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에 설립된 환경운동 단체이다. 그동안 환경 운동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과 전문가 확보, 시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 환경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주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1999년~2014년에 안양천 환경 감시와 자연형 하천 복원 협력 사업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2009년에는 'SBS 물환경대상'에서 안양시와 함께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1999년~2009년에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명학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도 했다. 2014년~2018년에는 지역 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주도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은 자신을 '뺏속까지 친환경주의자'라고 말할 만큼 환경 운동에 진심이다. 단지 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친환경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운동은 바로 탄소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가전제품 가운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정수기, 비데, 압력밥솥을 과감히 없앴다. 이 세 가지만 줄여도 전기 요금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그는 말한다. 배달 음식도 아이들이 특별히 원할 때가 아니면 시켜 먹지 않고, 장을 볼 때는 항상 바구니를 들고 가 비닐 포장을 줄인다. 텀블러는 그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노훈심이 처음 가졌던 직업은 환경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였다. 그는 일명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및 환경지킴이상 시상식(201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PB(Private Banking)’라 불리는 투자·자산 관리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환경운동의 길로 들어섰다. 대부분의 환경운동연합 상근 활동가들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환경운동으로 전환하거나, 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것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진입 경로이다.

PB는 주로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 전략을 제공하는 직군으로,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권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고 인기 있는 분야이다. 실적에 따라 고액 연봉도 가능하지만, 업무 강도도 매우 높다. 노훈심은 투자신탁회사에서 PB로 근무하였다.

20년 차 금융인의 삶을 살던 어느 날, 노훈심은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었다. 이대로 계속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밀려올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특히 고객의 투자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순간은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괴로웠다. 역대 연봉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꿰뚫어 보아야 했고, 고객 자금을 운용하며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긴장의 연속 속에 살았다.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가 고객의 원금 5,000만 원 전액을 날린 적도 있었다.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순간이 마음 약한 그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였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며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고,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금융업계 PB 시절 노훈심(노훈심 제공)

동료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고, 손해도 투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고 위로했지

만, 그런 말이 노훈심의 번아웃을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수백억 원의 손실에도 흔들림 없는 강심장을 가진 동료들도 있었지만, 노훈심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노훈심은 일을 그만두는 결단을 내렸다. 2014년 초, 20년간의 금융인 생활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직업을 바꾸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40대 중반의 그는 집에서 살림만 하기엔 너무 젊다는 생각이 들었고, 20년간 지속한 직장생활의 리듬이 몸에 배어 있어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회사를 그만둘 때, 공익적인 어떤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파트 부녀회에서라도 봉사를 해보려 했지만, 이미 기존에 자리를 잡은 이들이 있어 진입이 쉽지 않았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출발은 생각보다 더 많은 도전과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질 즈음, 노훈심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친한 친구가 전한 반가운 소식이었다. 노훈심에게 딱 맞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친구가 말한 것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상근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공고였다. 당시까지 노훈심은 환경운동연합이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상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 하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친구는 "장담 하건대 너하고 딱 맞는 일이야."라며, 지원서를 대신 작성해서 접수까지 해주었다. 정작 노훈심 본인은 알지 못했던 그의 성향을 친구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받을 들인 환경운동연합에서의 일은 정말 노훈심에게 딱 맞는 일이었다. 돈을 좇지 않는 일이라 마음이 편했고, 공익성이 있어 자본시장에서 쌓았던 업보를 씻는 듯한 기분이었다. 무엇이든 아껴 쓰는 그의 생활 습관과도 잘 맞아떨어졌다. 일할수록 자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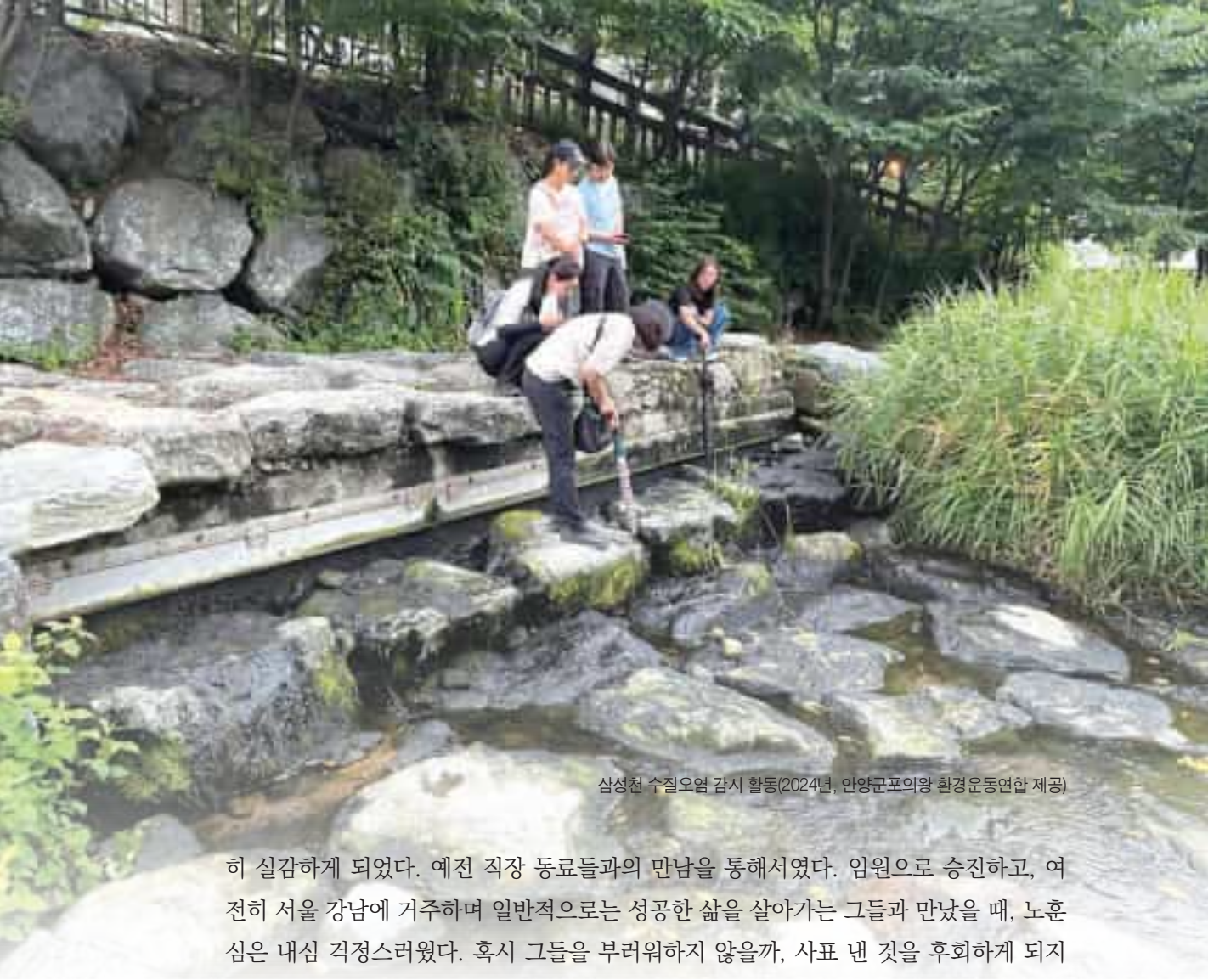
맹꽁이 서식지를 관찰하는 노훈심 사무국장(노훈심 제공)

은 점점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이때 말하는 자유로움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자녀의 성적이나 진학한 대학, 자동차 크기 같은 세속적인 비교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번아웃 증후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인생의 큰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었다. 바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PB로 살았던 시절, 그의 가치 기준은 돈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랬다. 최대의 관심사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였고, 대화 주제도 돈 버는 기술이 대부분이었다. 돈이 많고 적음이 곧 능력의 척도였다. 말 그대로 인생의 최고 가치를 돈에 두고 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 들어온 이후에는 대화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지,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실천이 가능한지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과 수년을 함께하면서, 노훈심은 번아웃의 원인이 되었던 돈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돈을 비롯한 온갖 세속적인 것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는, 최근이야 확실



삼성천 수질오염 감시 활동(2024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제공)

히 실감하게 되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임원으로 승진하고, 여전히 서울 강남에 거주하며 일반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만났을 때, 노후심은 내심 걱정스러웠다. 혹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까, 사표 낸 것을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혹은 환경운동가로서 자신의 생활이 초라하게 느껴지면 어쩌나 하는 등의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였다. 임원이 되어 성공한 금융인의 길을 걷는 그들을 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히려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들과 통장 잔고를 비교하고 싶다는 생각은 마음속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단단해졌을 뿐이었다.

2. 탄소 중립 전도사의 친환경적인 삶

노후심이 사무국장으로서 열정을 바치고 있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1997년 발족한 이래, 안양천 환경 감시와 자연형 하천 복원 운동, 안양시 명학공원 조성 추진

운동 등을 꾸준히 펼쳐 왔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한편, 탄소 저감을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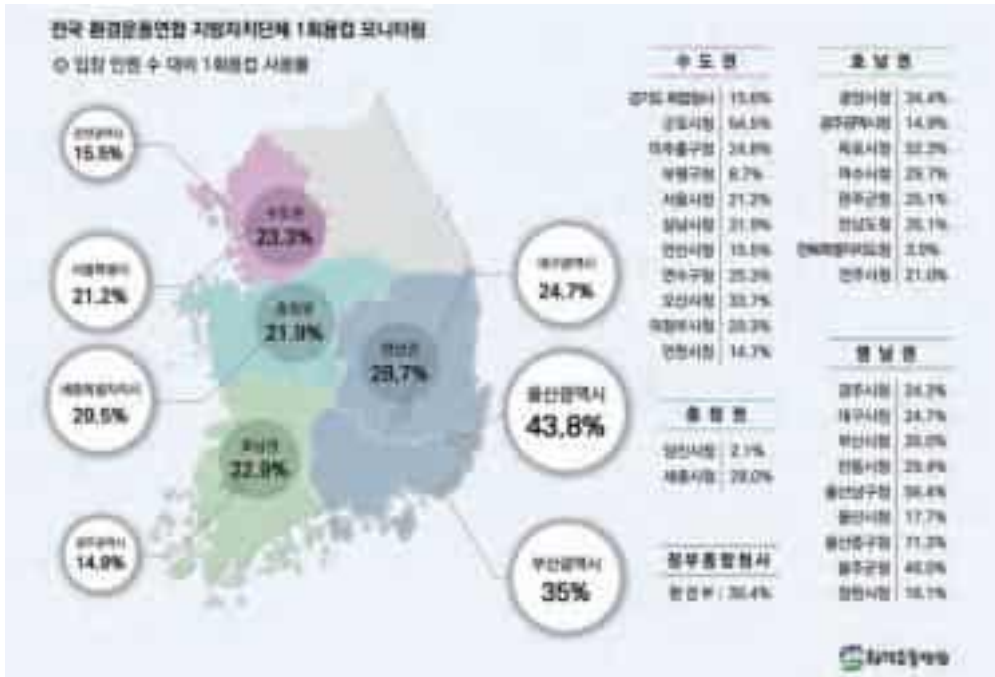
환경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 문제로 화제가 이어진다.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은 2024년 7월 22일~24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3일간 점심시간(12:00~13:00) 동안 총 43,320명의 방문자 가운데 10,649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권역

별로는 영남권(28.7%)이 가장 높았고, 수도권(23.3%), 호남권(22.9%), 충청권(21.9%)이 뒤를 이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도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당시 노훈심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고 조레까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정작 공공청사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모습에 실망이 컸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1인 시위 (2023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제공)



전국 환경운동연합 지방자치단체 일회용 컵 모니터링(2024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제공)

그 역시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3일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본 텀블러 사용자는 고작 세 명뿐이었다. 그중 한 명은 예비군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민원인으로 보였다. 공무원 중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보며 정말 분통이 터졌다고 회상한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조사를 진행한 해당 시청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장의 시책으로 규정한 곳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로,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이 수도권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참고로, 안양시청의 일회용 컵 사용 비율은 27.7%였다.

노후심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친환경적인 생활 덕분이었다. 금융인으로 일하던 당시의 연봉과 비교하면 지금의 수입은 5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는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환경을 생각한 생활 방식 자체가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여주기 때문이다.

많이 벌려면 그만큼 돈과 시간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법칙이며, 이는 노후심이 오랜 금융인 생활을 통해 체득한 지론이다. 직장 일로 바빠 집안일을 할 수 없



‘지금 당장 기후정의’ 캠페인(2021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제공)

을 때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많이 벌수록 많이 쓰게 되는 생활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의 노후심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가사도우미를 부르지 않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전제품도 과감히 줄였다. 채소도 아주 소량씩만 구매하고, 배달 음식도 거의 먹지 않는다. 이렇게 소비를 줄이니 수입이 적어도 생활이 부족하지 않다. 역대 연봉을 받을 때는 가사도우미 비용을 비롯해 여기저기 새어나가는 돈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지출이 없다. 결국 계산해 보면, 많이 벌고 많이 쓰던 그때나, 적

게 벌고 적게 쓰는 지금이나 살림살이의 실질적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역대 연봉을 내려놓고 시작한 환경운동은 노후심에게 삶의 전환점이자 돌파구였다.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친환경적인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절제된 소비는 가계에 도움이 되었고, 동시에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이 되었으니, 일거양득 아닌가.

노후심은 은퇴를 앞두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든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의 삶도 돌보며 살아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살림살이를 위해서라도 탄소 줄이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부탁한다. 이는 곧 친환경적인, 그리고 현명한 소비를 권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잘나가던 금융인이 인생 2막에서 환경운동가의 길을 택했다. 하지만 노후심은 자신을 ‘투사’라고 부르길 원치 않는다. 싸우는 것을 무척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는 ‘연대’라는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한다. 연대와 공감, 그것이 노후심이 추구하는 길이다.



경기 남부 탄소중립 실천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사례발표하는 노훈심(2024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제공)



안양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 '뿔깡'(2024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제공)

제7장

여성 인권

: 이미라 (사)안양여성의전화 대표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대표가 된 자원봉사자

(사)안양여성의전화 사무실에는 ‘지금처럼 당당하게 여전답게 싸우자’는 전투적인 문구가 있다. 교육실 벽에 붙은 현수막 내용이다. 이 문구를 봐도 안양여성의전화라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안양여성의전화는 1997년에 설립된 여성 인권 단체이다.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가정·직장·사회에서의 성평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안양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립공동체 ‘쉼터’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다.

통합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에 대한 상담과 법률·의료·정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재발 방지 및 추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유포 불안, 딥페이크 피해,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무료 심리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연계, 법적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자립공동체인 쉼터는 피해 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중장기 보호시설이다.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의료 지원과 함께 피해 여성과 자녀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미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가 안양여성의전화에 발을 들인 것은 지난 2012년이다. 상시 근무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첫발을 들이면서 여성 인권과 연을 맺게 되었다.

20대의 이미라는 기획사 직원이었다. 가수의 공연 기획, 체육대회 기획과 진행 등 다



안양여성의전화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신인 캠페인(안양여성의전화 제공)

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회사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까지 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김광석, 남궁옥분, 이승철 등 당대 유명 가수의 공연을 직접 기획했던 일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무전기를 들고 무대 뒤에서 분주히 돌아다니느라 노래를 제대로 감상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들었던 김광석의 노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 김광석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포스터에 사인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은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미라가 기획사 일을 좋아한 가장 큰 이유는 늘 새로웠기 때문이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항상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서 좋았다. 그러나 결혼 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임신과 출산 이후에는 아예 일을 놓게 되었다. 이른바 '경력 단절'을 겪게 된 것이다. 2001년에는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광주 생활을 접고 올라왔다. 그리고 2년 뒤에 안양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결혼과 출산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던 그 시절이 이미라에게는 재도약을 위한 준비 기

간이 되었다.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며 포토샵과 동영상 편집 같은 실무 기술도 익혔다.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던 그 시절은, 단절이 아니라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이미라가 여성 인권 단체에 발을 들인 배경에는 대학생 때부터 장애인 후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했던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찾은 일이 여성의전화 자원봉사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해보라는 친구의 강력한 추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안양여성의전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이미라가 한 일은 전화 상담, 폭력 예방 강의, 여성인권영화제 기획 등이다. 다양한 행사 기획단 참여와 가정폭력 피해 현실을 담은 연극의 모의재판 참여, 여성 폭력 추방을 위한 1인 시위, 각종 캠페인 참여도 중요한 경험이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열정이 강해졌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여성으로서 여성 인권 운동을 한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맹렬한 여성 인권 운동가인 그녀지만, 안양여성의전화에 발을 들일 때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 인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가정폭력 상담원과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인 자신이 여성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우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깨우침은, 자신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얼마나 떨어지는 사람인지 자각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교육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그런 자각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자신이 수없이 많은 폭력의 피해자였고, 가해자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반성도 하였다.

이미라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대표가 된 것이 아니다.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 전임연구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2020년 안양여성의전화 부설기관인 통합상담소장을 거쳐, 2023년에 안양여성의전화 대표로 임명되었다.



이미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



안양여성의전화가 주최하는 안양여성인권영화제(201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가정폭력 피해 여성 가족 자립공동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큰 나눔 장터'(201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18년에 시작된 '미투(Me,too)' 운동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1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 여성 인권 현실과 사회적 과제

몇 년 전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였고 어쩌면 지금도 뜨거운 이슈에 속하는 '미투(Me,too)'에 대해 이미라는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시의적절하게 일어났다고도 생각한다. 미투 광풍이 불었던 2018년을 기점으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고 단언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나가보면 대중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했다. 좀 더 엄격해진 것이다. 2018년 이전 실태조사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보아도 '참는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지만, 2021년에는 10명 중 6명 정도가 '참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미투 운동 보면서 이런 일은 이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투 운동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이미라 대표는 매우 비판적 견해를 가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시위에 참여한 안양여성의전화 회원들(안양여성의전화 제공)

고 있다. 성폭력 방지나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익 증진에 힘써야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미라 대표는 이와 같은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 왜 지금도 수많은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정부가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10개월 이상 공석으로 둔 사실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특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그 후보자는 논란 끝에 후보직을 사퇴하였고,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성폭력 경험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안양여성의전화 대표 이미라의 지론이다. 여기서 성폭력이란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는 여성의전화 문을 두드린 여성들을 상담하면

서, 아픈 기억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늘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인데, 상담자로서 이미라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그들이 피해 속에 매몰되지 않고 생존자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라 대표는 지금 하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 상담 덕분에 이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연락을 받는데, 이럴 때 정말 기쁘고 굉장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 지금, 이미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는 여성 인권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제8장

행복한 교육

: 이효순 안양시민학교 교사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숨기고 싶던 과거 공순이, 안양시민학교에서 활짝 핀 꿈

안양시민학교는 가정 형편 등 다양한 이유로 한글을 배우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文解) 교육과 정보화 교육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기관이다. 1991년 창립되어 2009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었으며, 2012년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학력 인정 문자 해독 교육기관으로, 2021년에는 중학교 학력 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이 학교는 매년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기준 누적 졸업생은 97명에 달한다.

이효순은 안양시민학교에서 한글 기초반을 가르치는 교사로, 올해로 3년째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이 학교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서 본 모집 공고였다. 글을 좋아해 어린 시절에는 서점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계를 위해 공장에 들어가야 했던 현실은 그 꿈에서 멀어지게 하였다. 조금만 노력하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서점 주인도 되기 힘든 현실에서 선생님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존재였다.

그런 이효순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 사람은 바로 딸이었다. 선생님이 되어 엄마의 꿈을 이루어준 딸은, 엄마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며 응원하였다. 이효순은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용기를 낸 이후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교사가 되었다.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찐 교사'로 자리 잡았다.

안양시교육청 지정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 기관

안양시민학교 성인 학생 모집

Q. 누가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인가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이 필요한 성인,
기초 영어와 스마트폰에 대해 배우고 싶은
성인을 위한 학교입니다.

Q. 어떤 과목을 배울 수 있나요?

각 과목은 수준별로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반, 영어반,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반, 스마트폰반 이 있습니다.

+ 입학 문의: 전화 통화 후 방문상담합니다.

위치 안내 만안구 안양로 151-1, 2층 (만안구청 근처)	문의 번호 031) 465-3691
--	--------------------------------------

안양시민학교 학생 모집 안내(안양시민학교 제공)

이효순에게 안양시민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공간이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말한다.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오히려 결혼·출산·육아의 시간은 재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으며, 그 시간 동안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며 포토샵과 동영상 편집 같은 실무 기술도 익혔다. 그래서 그 시절이 더 멀리 뛰기 위한 발판이었다고 그는 자부한다.

이효순은 2022년부터 안양시민학교에서 문해 교육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식품회사에서 25년간 근무하며 직장생활을 이어오다 정년퇴직한 그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향을 고민하던 중 안양시민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교사가 되는 것이 오랜 꿈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릴 적 막연하게 선생님이 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이 있었지만, 이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거나 깊이 품었던 적은 없었다.



이효순 안양시민학교 교사

퇴직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정부의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하고 싶은 마음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엄마는 할 수 있다는 딸의 응원과 격려가 이효순에게 용기를 주었다. 물론 그 용기는 단번에 생긴 것은 아니었다. 딸의 말에 따라 점점 커진 것은 용기라기보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효순은 마음을 다잡고 문해 교육이라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안양시민학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당시에는 소명 의식이나 사명감보다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고, 점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수업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일에 점점 애정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명 의식과 사명감이 생겼다.

지금 그는 이 일이야말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으로 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보살피는 선생님이 되었다.

이효순이 은퇴 후 삶을 문해 학교로 교사로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그 계기는, 지난 2022년 문화방송(MBC)의 「여성시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이효순의 사연 속에도 담겼는데, 그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는데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는 못 갔어요. 서울 구로 공단에 고등학교에 보내주는 전자 회사가 있다가에 생산직에 입사했고, 늘 잠이 부족했지만, 무사히 즐

업했어요. 결혼 후에는 식품회사에 취업해 25년 근무하고 정년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식품회사 취업할 때 고등학교 성적표가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뒤에도 회사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계속 공부했어요.”(「여성시대」 방송 내용 일부)

‘공순이’·‘공돌이’라는 말로 생산직 노동자를 낮춰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이효순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그들이 공장에서 젊음을 바쳐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미래를 향한 치열한 노력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2. 성인 문해 교사는 최고의 선택

안양시민학교에서 문해 교사로 일하면서, 이효순은 비로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과거에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당시 가정 형편으로는 고등학교 진학도 어려운 일이었기에, 어린 시절의 이효순은 아예 꿈을 꾸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그가 스스로 접었던 그 꿈을 대신 이뤄 준 이는 바로 그의 딸이다. 딸이 열심히 공부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딸의 임용 소식은 이효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였다. 지금 이효순은 다시 태어난다면 교사로 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고, 이런 꿈을 품게 된 데에는 안양시민학교에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어린 시절 꿈을 포기했지만, 타고난 학구열만큼은 버릴 수 없었다. 그는 거의 평생을 주경야독하며 살아왔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공장에 취직하면서도 상업계 고등학교에 다녔고, 학업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직장으로부터 방송통신대학 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일본어를 포함한 세 개 학과를 전공했으며, 중학교 졸업 이후 12년 넘게 꾸준히 공부를 이어갔다.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거의 없을 만큼 학문에 대한 열의가 깊었다.

이효순은 이 같은 학구열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디딤돌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부 자체가 좋아서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인생이 변화했다. 문해 교사 역시 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며, 이 또한 좋아서 도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은 지금 돌아봐도 정말



안양시민학교 한글반 수업(2024년, 안양시민학교 제공)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다면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바탕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고, 그 회사에서 방송대 등록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공부가 그의 삶을 바꿨고, 그래서 공부는 지금도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이효순은 퇴직 후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보람차다고 말하곤 한다. 그에게 있어 문해 학교 교사로서의 삶은 평생의 선택 중 최고의 선택이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조언도 빠뜨리지 않는다. 어떤 준비를 해왔냐는 질문에 그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철저히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공부해 온 것이 자연스럽게 인생 2막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렇다면 이효순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대목이지만, 뜻밖에도 그는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는 없다고 답한다. 얼핏 보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저 즐겁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다. 그 철학 덕분에 평생을 지치지 않고 공부해 왔고, 지금도 경기대학교에 다니며 '챗지피티(Chat GPT)'를 배우고 있다. 만약 공부가 그에게 재미없는 일이었다면 결코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공부가 재미있고 즐거웠기에, 특별한



제자가 쓴 글 앞에 선 이효순

목표 없이도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가르치는 안양시민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한글을 알지 못해 평생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심지어 자녀들이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단한 삶이다. 이런 사정을 들은 이효순은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이렇게는 안 살았을 것이라는 학생들의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순간이 이효순에게는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한 순간이다.

수업 중 학생들이 쓴 진솔하고 절절한 글을 읽을 때면, 이효순은 매번 이 일이 바로 자신의 길이고,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소명 의식이 솟구친다고 말한다. 그 역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그들의 고단함이 더 깊이 와 닿는다. 그래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보람이 커지고, 그 보람은 그가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견뎌 가는 힘이 된다.

2022년 안양시 평생학습 박람회 성인 문해 백일장 초등부문 우수상을 받은 이효순 제자의 글을 보면, 글 모르는 삶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중학교 급식실에서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일은 오후 2시에 끝나고 시민학교 공부는 1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학교 가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마음이 급해진다. 하루 3시간 일하고 33,000원 받는데 택시비가 4,800원이다. 택시 타고 와도 수업 시간은 2시간이나 지나버린다.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속상하다.

내 입학식 날 바쁜 부모님 대신 큰아버지 따라서 학교에 갔다. 어떤 일인지 사촌오빠만 입학하고 나는 입학하지 못했다. 큰아버지는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를 데리고 학교 앞 술집으로 가셨다. 입학식 끝날 때까지 나는 술 드시는 큰아버지 옆에서 기다려야 했다. 큰아버지께서는 “애가 소꿉장난하는 거 보니 아직 학교에 갈 나이가 아니다”라고 우리 부모님께 말씀하셨다고 한다. 나는 소꿉장난한 적이 없는 데..... 이후에도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13살 무렵부터 16살까지 남의 집 애기 봐 주는 일을 했다. 그때는 너무너무 서러운 일이 많았다. 빨래를 더럽게 했다고 마당에 내던져 버리고 때리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이 내가 불쌍 하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 글을 모르는 탓에 회사에 들어가기도 어려웠다.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근무 시간도 자기네 형편에 맞게 바꿔 버렸다. 참 속상했다.

그래도 착한 남편을 만나 4남매를 낳아 잘 키웠다. 내가 가장 기뻐할 때는 큰딸의 입학통지서를 받았을 때이다. 너무 행복해서 한참 동안 가슴에 안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과거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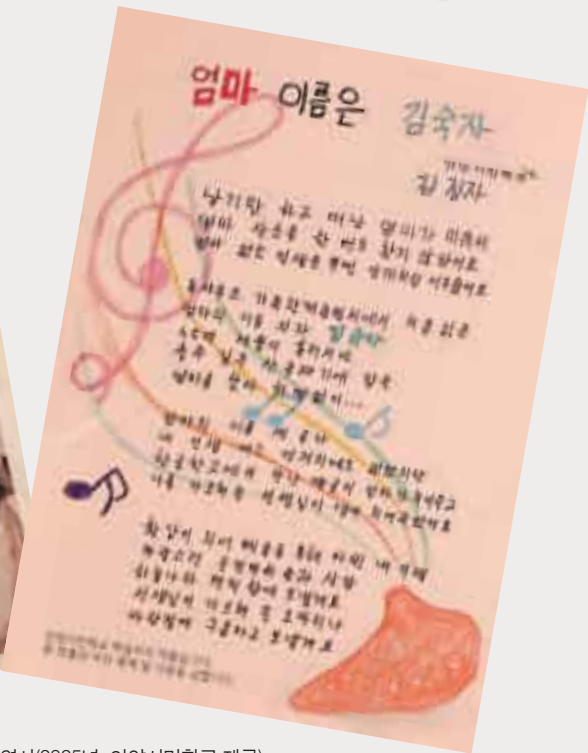
“순떡아(가명), 너무 고생했어. 잘 살아줘서 고맙다.” 라고.

오래전에 한글을 배운 적이 있다. 그때 계속했어야 하는데, 조금 힘들다고 그만둔 게 너무나 후회된다. 지금의 나에게 말하고 싶다.

“순떡아, 한 시간 공부하려고 택시까지 타고 학교 가는 너가 너무 훌륭해, 이번에는 포기하지 마.”

나는 백합처럼 향기로운 꽃이 되고 싶은 김순떡이다.

(2022년 안양시 평생학습 박람회 성인 문해 백일장 초등부문 우수상 수상작)



안양시민학교 학생의 시화 엽서(2025년, 안양시민학교 제공)



안양시민학교 자서전 모음집(안양시민학교 제공) 안양시민학교 한글 문해 수업(안양시민학교 제공)



제18회 전국문해한마당에 참가한 안양시민학교(안양시민학교 제공)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안양시민학교(안양시민학교 제공)



안양시민학교 졸업식(안양시민학교 제공)



교복 입고 사진 찍기(안양시민학교 제공)



안양시민학교 졸업앨범(안양시민학교 제공)

천생 교사라 불릴 만한 이효순은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잘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정하게 토닥이듯 말을 건넨다. 평생 공부를 즐기며 살아온 그의 오랜 꿈은 결국 안양시민학교에서 활짝 피어났다.

제9장

건강 주권

: 김중성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은 조합원이 자금을 모아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조합원이 병원의 주인이며, 병원의 존재 이유는 의사의 영리가 아니라 조합원의 건강이다. 이 협동조합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무엇보다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지향점은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전문에도 잘 드러나 있다.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과천·군포·안양·의왕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건강과 의료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설립하였다.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개인이 소유하는 의료나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가 아닌 협동을 통해 서로 살리는 상생의 의료사회를 꿈꾸며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받으면서도 차별과 소외가 없는 평등 의료사회의 구현을 통해 협동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의 문제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건강의 실현과 맞물려 있음을 직시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과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는 사회만이 건강한 사회임을 확신한다.(「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이처럼 목적은 이상적이지만, 의료의료사협이 지역 병·의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현실이다. 민간 의료기관들은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의료사협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의원

김중성 상무이사는 행복한마을 의료사협의 활동가로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접근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바로 그가 의료사협을 설립하게 된 이유이자, 2024년 기준 68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여전히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중성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김중성은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바로 그 점이 그가 행복한마을 의료사협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는 또 하나의 문제로, 노인 돌봄이 민간 시장에 맡겨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지적하며, 이를 후진적이라고 단언한다. 특히 주치의 제도가 부재한 탓에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현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있어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요양 기관에 있는 노인이 병에 걸렸을 때 요양 기관 자체에서 치료가 불가하므로, 결국 보호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 병원으로 모셔가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김중성은 의료사협이 노인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즉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방식을 이미 시도하고 있으며,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합 차원에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덧붙였다. 이러한 설명은 의료사협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김중성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경험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중성의 아내는 암 투병 끝에 약 7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그는, 아내가 직접 기록한 암 투병기와 자신이 간병하면서 터득한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아내의 암 투병과 교훈』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암과 싸우는 과정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식지(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허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책의 서문에 ‘비전문가가 쓴 암 치료 실패기’라고 소개하였다. 암 치료에 성공해서 얻은 교훈도 값지지만,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 또한 암 환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집필을 결심했다고 한다.

김중성은 그의 책에서 병원에서 흔히 겪는 ‘3분 진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다. 암으로 진단된 환자라도 진료 상담 시간은 대부분 3분, 길어야 5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초기 암 환자와 3~4기 중증 암 환자의 구분 없이 짧은 상담이 이루어지다 보니, 환자마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상담 시간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진료의 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그는 강조한다.

김중성이 말하는 ‘통합 진료’란 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암 치료와 관련된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하며 환자를 치료하는 ‘다학제 통합 진료’를 뜻한다. 그는 특히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이러한 다학제 시스템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3기 이상의 중증 암 환자가 건강보험의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의왕시 달리기 대회에 출전한 '행마(행복한 마라톤)클럽' 회원(2023년,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젊은 시절 김중성의 가족사진(김중성 제공)

2. 환자의 건강 주권

김중성은 행복한마을 의료사협을 만든 사람이다. 아내를 잃은 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사협을 설립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사협은 그의 아내가 병에 걸리기 전인 2012년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

김중성이 의료사협에 뛰어들기 전의 인생 궤적은 다채로웠다. 노동운동가에서 벤처 기업가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 차례 옥고도 치렀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자였지만, 졸업 후 그의 선택은 대기업 연구소가 아닌 노동 현장이었다.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하여 위장 취업을 한 것이다. 김중성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1980년 5월 광주 참상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중성의 노동운동 이력은 험난하였다. 1986년 5월 3일, 재야인사와 학생운동권이 주도해 민주헌법 쟁취, 노동자 권리 보장, 전두환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이른바 '5·3 인천 투쟁'에 노동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지명수배되었다. 이 투쟁은 이듬해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6월 항쟁 이후 수배가 해제되면서 김중성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1991년 '민주주의 민족통일 노동자 동맹'의 기관지인 『노동자의 깃발』 필진으로 활동하다가 구속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에는 '위장 취업'과 '구속'이라는 경력이 발목을 잡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웠고, 과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00년 무렵 학부 전공을 살려 벤처기업에 도전하였다.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다. 경험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돈에 욕심이 없던 그에게 사업은 낯선 영역이었다. 김중성은 그 시절을 군 복무에 버금갈 만큼 힘든 시기로 기억한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오히려 어렵게 마련한 집마저 잃게 되었다. 김중성은 이 시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없고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당시 그는 돈을 벌어 생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지만, 결과는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 시절은 지금도 그에게 참 아까운 시간으로 남아 있다.

결국 그는 생태공동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뒤, 의료사협을 선택하게 된다. 형태도 비슷하고, 공익적인 목적도 닮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료사협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중성의 인생 궤적을 정리해 보면, 전성기였던 젊은 시절에는 노동운동과 벤처기업



책 읽기 모임 '행복한 책마음'(2021년,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공)



행복한 삶을 위한 행복 공부 프로젝트(2021년,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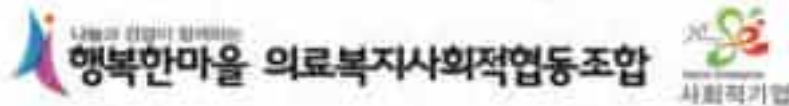
도전! 건강 증진 1기



함께하는 건강 증진 프로젝트!

나만의	도전! 행복관 안보 걷기 도전! 행복관 통산하기	도전! 행복관 0.3km 달리기 도전! 0.3kg 체중 줄이기
어떻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지극히 세우기 : 배 채워주는 과일, 허브 차보내기, 체중감량 0.3kg 등 • 건강 통산관행이유한 물과 더불어 주는 1차 물보 • (행복한마을 도전 건강증진) 연기에 자신의 사랑 받고 물레기 걷기 또는 달리기 없이 열매를 스캔하여 • 도전은 다른 활동을 동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참가자는 동일 1층에만 합니다. • 시간에 한미함에 내보하여 생체지표(혈당/혈중/혈압/체내)를 확인하고 결과 후에 확인합니다. 	
기간	• 모집 : 6/17 ~ 6/23 • 시상 : 10월 전통의 날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시행 : 6/26 ~ 9/27 3개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는 참여율, 원형과 건강 증진 진행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 목표 2점, 실행 4점, 결과 4점 • 통산하기는 설문수가 평가에 포함됩니다.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상 : 스타벅스 쿠폰(3만원대) - 3명 • 노력상 : 건강 행복관 - 3명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건강해 진다!



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도전! 건강 증진' 프로젝트(행복한마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에 매진했고, 보통 직장인이 은퇴할 시기에 해당하는 오십 후반부터는 의료사협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행복한마을 의료사협 상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실무자이다. 회원 관리부터 각종 행사 기획과 실행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다. 명함에 활동가나 실무자로 적어도 어색할 게 없을 정도이다. 곧 칠순을 맞이하는 나이에 불구하고 김중성은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행복한마을 의료사협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환자인 조합원이 병원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병원을 의사의 소유가 아닌 조합원의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삼고, 의사 중심이 아닌 조합원 중심의 건강 주도권을 확립하는 것이 이 조직의 핵심이다.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건강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체로 환자를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김중성은 지금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쉼 없이 달리고 있다.

제10장

민주 평화

: 장재근 6·15공동선언 경기중부분부 상임대표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1980년 5월의 약속

6·15공동선언 경기중부분부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체결한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통해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통일운동 연대체이다. 「6·15공동선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역사적인 문서로, 평화 통일을 향한 양측의 염원이 담겨 있다. 핵심 내용은 통일 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그리고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데 있다.

그러나 선언이 발표된 지 24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약속은 사실상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일운동 단체들 사이에서도 그 약속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운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가장 앞장서는 단체가 바로 6·15공동선언 경기중부분부이다.

장재근 6·15공동선언 경기중부분부 상임대표는 적지 않은 나이에 불구하고 지금도 열정적인 활동가로 나아가고 있다.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오랜 세월 시민운동에 몸담아 온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금도 6·15공동선언 경기중부분부 상임대표 외에,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상임지도위원, 경기중부민주화계승사업회 운영위원, 경기중부평화행동 상임대표 등을 겸임하고 있다.

대표나 지도위원 같은 직함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재근은 소위 ‘꼰대’처럼 행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집회와 1인 시위 등 현장에서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하며 젊은 활동가 못지않은 실천력을 보여주고 있다.

장재근은 전직 교장(경기도 광주 광수중학교)이기도 하다. 교장 출신이라면 흔히 사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창립총회 홍보물

했던 약속을 지금껏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을 위해 평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전투경찰이었기에 본래 임무는 시위를 진압하는 일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시민군을 돕는 데 마음을 쏟았다. 그 과정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삶의 진리로 여기는 장재근은, 교사 출신 시민운동가답게 누구에게도 함부로 분노를 퍼붓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한 집단만은 예외다. 전두환과 그 세력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며, 지금도 목소리를 높인다.

장재근은 광주항쟁 이후 이어진 군부 독재, 친일파 청산 실패, 뉴라이트 역사 논란 등 모든 문제가 결국 분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통일운동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민주주의와 통일의 과제를 나란히 붙잡고 살아가는 데에는 1980년 광주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회에서 뒷짐 진 어른으로 대접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는 이런 틀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의 삶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이유가기도 하다.

그가 왜 그토록 통일과 민주화 운동에 열정을 쏟는지에 대한 해답은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있었다. 얼핏 그가 시위에 참여했다가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테지만, 장재근은 당시 전투경찰로 광주에 배치되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내가 보고 들은 그대로 광주 민주항쟁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광주 시민들과



한반도 평화 실현 경기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2024년, 장재근 제공)

2. 전투경찰 장재근이 경험한 광주민중항쟁

1980년 5월, 장재근은 전투경찰 이경(二警) 신분으로 광주에 파견되었다. 그는 전남 도청 앞에서 방패를 들고 시민들과 대치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가 처음 목격한 현장도 이미 충격적이었지만, 나중에 시민군에 합류해 직접 보게 된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당시 계엄군은 거리의 젊은이들을 남녀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잡아서 마구 구타하였고, 도망치는 이들을 쫓아가서 다시 때렸다. 결국 몸이 피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된 이들은 팔다리를 잡혀 트럭 위로 던져졌다. 건물로 숨어든 사람들도 끝까지 쫓아가서 폭행하였으며, 그 광경은 도저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였다.

공수부대와 시민군 사이의 총격전이 격화되자 전투경찰에게는 부대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각자 알아서, 살아서 복귀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를 전달한 간부는 이미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을 한 상태였다. 장재근은 동료와 함께 군복을 입은 채 도망쳤지만, 광주 시내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고 무장을 한 시민군이 배치되어 있어 선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결국 도심을 배회하던 그는 세 차례나 시민군에게 붙잡혔고, 그때마다 목에 총구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된 전투경찰(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겨눴다. 당시 시민군은 전투경찰에게 비교적 관대했으므로 물리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지금까지도 몸서리쳐질 만큼 깊은 공포로 남아 있다.

세 번째로 시민군에게 붙잡혔을 때, 50대 남성이 장재근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말을 잘 들으면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직감하였고 그대로 따라나섰다. 장재근이 도착한 곳은 광주 적십자병원이었다. 병원 안에 있던 시민군들은 장재근과 동료가 자발적으로 합류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들을 환영하며 받아들였다.

장재근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부상자들을 돌보고, 사망자를 영안실로 옮기는 일을 도왔다. 당시 그는 참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때의 참담함과 두려움은 그가 틈틈이 기록한 일기장과 어머니께 보내려고 썼지만 결국 부치지 못한 편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경험은 장재근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는 지금까지도 광주에서 자신이 본 그대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장재근 6·15공동선언 경기중부분부 상임대표

5월 21일 이곳에 왔다. 언제 죽음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쓴다. 부모, 형제, 친지, 은사들에게 도움만 받아왔지 그들에게 무엇 하나 주지 못했다. 이대로 빛만 지고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1980년 5월 22일 일기 일부)

어제 시체 20구를 입관해서 도청 앞으로 옮겼는데, 저녁에 또 죽어 들어왔다. 오늘은 얼마나 죽어 들어올지 모르겠다. (1980년 5월 23일 일기 일부)

21일 저녁과 22일에는 당장 죽음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와 제 동료는 이곳 적십자병원에 들어와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나 닭보다도 더 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저도 죽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지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여기 광주는 전쟁터입니다. 서로 쏘고 죽고 죽이고 아수라장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되면 이글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글이 될 것입니다. (1980년 5월 23일 어머니께 쓴 편지 일부)

이 편지는 결국 부치지 않은 채 장재근의 비망록으로 남았다. 1980년 5월 25일에 쓴 그의 일기에는 “이 땅에 참 평화가 오고 민주주의가 꽃피워 통일이 이루어져 모든 민족이 웃으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도록... 그날이 오면 덩실덩실 춤을 추겠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글은 당시 20대 초반의 장재근이 느낀 감정과 다짐이 얼마나 깊고 절실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Handwritten diary entries in Korean, written vertically on a piece of aged paper. The text is dense and covers most of the page, starting from the top left and moving downwards. The handwriting is cursive and somewhat slanted. The paper shows signs of age, including yellowing and some wear at the edges.

1980년 5월 25일 장재근의 일기(장재근 제공)

3.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

장재근은 1980년 5월 28일, 병원으로 들이닥친 계엄군에게 붙잡혔다. 당시 군인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그는 심하게 구타당했지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계엄군 중 한 사람이 그의 인상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 판단해 부대에 직접 전화해 신분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한다.

목숨을 건진 장재근은 이후 제대하고 학업을 마친 뒤 교사의 길을 걸었다. 그는 교직 생활을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시작하였다. 광주를 경험하기 전이라면, 그는 아마도 평범한 교사로서 교장의 지시를 따르며 조용히 살아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경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시민군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에게 한 다짐이 그를 행동하는 교사로 만들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에는 안양 지역에서 민중 항쟁에 동참하여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치며 시위 현장을 누볐다. 장재근은 그때 현장에서 제자들과 마주친 기억을 잊지 못한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제자들은 교사 장재근을 보자마자 놀라 도망쳤다. 자신들을 잡으러 온 줄 알고 겁을 먹은 것이다. 장재근은 그들을 불러 안심시킨 뒤 시장에 데려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다. 그 자리에서 한 제자가 “선생님도 우리 본 거 말 안 할 테니, 우리도 선생님 본 거 말 안 할게요.”라며 껄껄 웃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그는 회상한다. 장재근은,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는 친구들 더 많이 데려오라고 격려했다. 제자들은 정말로 다음 시위에 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다.

1990년대 초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태동할 무렵, 장재근은 전교조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낮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동료 교사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당시 용어로는 ‘포섭 작업’이었다. 이에 더해, 노동자 파업 현장을 찾아 팽과리를 두드리며 풍물패 활동도 열심히 하였다. 장재근의 이런 활동이 교장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다. 아침마다 교장실에 불려가곤 했지만, 그는 퇴근 후의 개인 활동에 왜 학교가 관여하냐며 당당히 따졌고 그렇게 위기를 넘겼다. 승진은 뒷전으로 미뤄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교조 활동은 장재근의 개인사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교사와 연애 중이었는데, 여자친구는 장재근이 전교조 활동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 주고 싶어서 전교조 활동을 한다는 장재근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제5회 KBS배 추계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안양공고 축구선수들이 장재근을 행가래 치고 있다.(1986년, 장재근 제공)



안양고등학교 교사 재직 당시 학생들과 함께(1990년, 장재근 제공)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장재근 제공)

여자친구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 지금은 웃으며 에피소드처럼 말할 수 있지만, 젊은 시절의 그에게는 무척 쓰라린 기억이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장재근은 전교조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교사를 만나 결혼할 수 있었다. 1991년에는 전교조 경기지부 안양·군포·의왕·과천지회장을 맡았고, 2000~2001년에는 전교조 군포·의왕 지회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에 경기도 광주의 광수중학교 공모 교장으로 부임하여, 2019년 정년 퇴임하였다.

중학교 교장이 된 이후에도 장재근은 시민군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눈치 보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냈다. 직접 수업에 들어가 광주민중항쟁의 생생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추모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과 함께 안산 단원고등학교도 직접 방문하였다. 이런 활동 때문에 ‘빨갱이 교장’이 학교를 망친다는 비난도 들었지만, 그는 조금의 후회도 없다고 말한다.

장재근은 지금도 광주 시민들과 나눈 약속을 지키고 있다.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



학생 생활인권 규정(교복) 제·개정에 관한 광수중학교 교육공동체협의회(장재근 제공)



전쟁 위기 조장 세력을 규탄하는 경기중부한반도평화행동 장재근 대표와 회원들(장재근 제공)

는 삶을 이어갈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이 스스로 대단해서 원하는 대로 흘러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보살펴주었고,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도와주었다고 회고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도움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그 방식이 통일운동이자 민주화 운동이다.

물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앞장서서 총을 들고 나설 수는 없다. 그러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를 남겨주기 위하여, 장재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묵묵히 실천해나가고자 한다. 그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남북 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제11장

마을공동체

: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안양YMCA의 두 기둥, 아기사포츠단과 등대 공동체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운동 단체 중 하나이다. 이 단체는 1844년 영국의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산업혁명 시기에 결성한 개신교 민간단체로, 한국에는 1903년 처음 도입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지식인과 독립운동가가 이 단체를 거쳐 갔으며, YMCA를 통해 한국에 야구, 농구, 배구, 수영 같은 서양 스포츠도 도입되었다. 1970~1980년대에는 YMCA가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YMCA가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기에 재야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 선교사와 사제들이 관련된 국제 기독교 단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체의 성격 덕분에 독재정권이 반체제 인사에게 자주 씌우던 공산주의자라는 혐의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안양YMCA의 시작은 1989년경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이 된 1986~1987년을 지나 전국 각지에서 YMCA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당시 '실업기독교회'라는 단체가 주축이 되어 안양YMCA를 설립했고, 현재는 한국YMCA 전국연맹 소속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은 YMCA가 시민운동계의 맏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인정한다. YMCA가 다른 시민단체보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기에 그만큼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양YMCA는 창립 이후 마을 커뮤니티 형성을 중심으로 교육과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1994년에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시민중개소를 개소했고,



안양YMCA 창립대회(198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998년에는 자원 재활용 생활공동체인 '녹색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초등대안학교인 '벼리학교'를 세웠고, 2011년에는 '등대생활협동조합'의 법인화에 성공하며 살림터(매장)를 개장하였다. 이어 2013년에는 마을연구소 '공생'을 설립했으며, 2022년에는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사실 안양YMCA는 공식 창립 이전인 1988년부터 '아기스포츠단'이라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접점을 만들어 왔다. 이 사업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YMCA의 지역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자녀를 아기스포츠단에 입단시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안양YMCA 건물 앞에서 텐트를 치고 3일씩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 학부모 중 다수가 지금까지 열성적인 활동가로 안양YMCA를 떠받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기반 덕분에 안양YMCA는 지금도 시민운동의 중심에서 굳건히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아기스포츠단은 흔히 생각하는 운동만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스포츠단과는 다르다. 많은 사람이 스포츠 조기교육 기관으로 오해하지만, 아기스포츠단이 말하는 '스포츠'는 축구나 농구 같은 경기 중심의 활동이 아니다. 이곳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몸



안양시민의 날 체육대회 매스게임을 하는 안양YMCA 아기스포츠단(199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으로 하는 활동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아기스포츠단에서는 글자를 가르치거나 인지 교육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숲 체험, 부모와 함께하는 산행 등 몸으로 하는 활동에 집중한다.

아기스포츠단이 처음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신선했다. 유아기에 글자 교육보다 몸을 움직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한국의 유아 교육은 유아기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주입식 지식 교육을 강조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다. 김유철 사무총장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아기스포츠단의 교육 철학은 유아 시기에는 체험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하자는 것이며, 스포츠단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수 육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철학은 ‘잘 먹고 잘 노는 아이, 스스로 익히고 배워가는 아이, 걱정과 근심 없이 오늘을 사는 아이’라는 아기스포츠단의 표어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기스포츠단 활동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것이 바로 ‘등대모임’이다. 등대모임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초등학교인 버리학교를 세우는 데 이어, 등대생



안양YMCA 초등대안학교 버리학교 수업(안양YMCA 제공)

활협동조합 설립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아그스포츠단은 안양YMCA의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등대모임은 일종의 학습 공동체이다. 명상·토론·공동학습·생활 나눔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여기서 ‘생활 나눔’이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음 계획을 함께 나누는 활동을 의미한다. 배움은 특정 전문가의 강의를 아니라, 회원 간의 재능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요리나 악기 연주 등 각자의 특기를 서로 가르치며, 누구나 선생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등대모임은 공동체 기반의 자율적인 학습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김유철 역시 이 학습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은퇴한 교사나 대학교수 같은 학습 자원을 발굴하여,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데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동차 응급처치 교실을, 기타를 잘 치는 이에게는 기타 교실을 맡기는 식이다. 김유철도 자신도 기타 교실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YMCA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다 보니, 간혹 ‘백화점식 운동’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활동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유철은 그 이유를 ‘씨앗이



인덕원마을 터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최병렬 제공)



등대생협 살림터(안양YMCA 제공)

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YMCA의 활동을 통해 자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비슷한 방식의 활동을 이어가길 원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YMCA에서 환경 운동을 하던 이가 마을로 돌아가 이웃들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한 사례도 있고, 등대 활동가 중 한 명은 나중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지회'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2. 그의 선택 : 학생 운동가에서 공동체 운동가로

김유철이 안양YMCA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9년 3월경이었다. 당시 우리 사회는 1997년 말 시작된 IMF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시기였다. 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청년 실업률은 높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조차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특히 학생운동에 매진하느라 4학년 때 제적까지 당한 김유철에게는 취업의 문이 더욱 좁게 느껴졌다. 더군다나 그는 징집을 거부한 전력도 있는



기타를 가르치는 김유철 안양YMCA 사무총장

상태였다.

당시 김유철은 징집 영장을 받고도 2년간량 징집을 거부한 채 학교에서 대학 생협 설립 활동을 벌였고, 그 일을 마무리한 뒤 자수하여 군 복무를 마쳤다. 하지만 제대하고 사회로 복귀하니 때마침 IMF 사태의 한복판이었다. 취업은 고사하고 사회 초년생이 할 수 있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대학교 동기들 대부분 취직하지 못하고 도서관을 전전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시기, 김유철은 한동안 방황했고, 결국 생협 운동에 뛰어들기로 결심하였다.

김유철의 방황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방에 처박혀 술만 마시며 고뇌에 빠지는 삶은 아니었다. 그는 그 방황의 시기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생활인'으로 살기 위한 준비였던 셈이다. 그는 시험공부를 그만둔 게 아쉽기도 하지만, 만약 감정평가사가 됐더라도 금방 그만두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돈이 우선되는 일반적인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설사 적응했더라도 오래 버티지는 못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김유철이 YMCA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생협 운동을 함께 하자는 선배의 권유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안양YMCA 실무자들과 생협 회원들(2008년, 최병렬 제공)

다. 그 권유는 김유철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도 매력을 느꼈고, 직업적인 안정성도 나쁘지 않아 감정평가사 시험을 접고 YMCA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그때 찾은 곳이 바로 등대생협이 있던 안양YMCA였다.

그는 직장을 구한다는 마음보다는 사회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YMCA에 들어왔지만, 안양YMCA는 생각보다 '어엿한 직장'이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타이틀의 직장인이 된 것이었고, 특히 동기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부러움의 이유는 월급이었다. 군 복무 전 잠시 몸담았던 환경운동연합에 비해 YMCA에서는 4배나 많은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학교에 찾아가 동기들에게 술도 사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한다.

안양YMCA에 들어온 뒤, 김유철은 등대 모임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고, 그러면서 YMCA가 어떤 곳인지도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참고로, 김 사무총장은 아직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에 가깝다. YMCA 활동을 하면서 그는 학위나 졸업장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의 삶과 활동에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양YMCA

돌이켜보면, 안양YMCA는 김유철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는 이곳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고, 평생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도 만났다. 가난했고 앞으로도 가난할 자신과 결혼해 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수많은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해 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 자부할 만하다고 그는 말한다.

김유철은 가끔 자신이 학생운동을 하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에 다녔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상상을 해보곤 한다. 그런데 결론은 언제나 같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20대부터 40대까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왔기에 후회는 없다.

그의 꿈은 은퇴 후 고향인 덕적도로 돌아가, 안양YMCA에서 만들었던 ‘등대’ 같은 공

동체를 고향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김유철은 실제로 덕적도 이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세대교체'이다. 김유철은 현재 시민운동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이 30대였던 시절 처음 안양에 와서 무언가를 바꿔보겠다며 피켓을 들었던 사람들이, 60세가 넘는 지금도 여전히 피켓을 들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새로운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꼭 나쁜 일만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구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

김유철은 지금이야말로 기성세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한다. 기성세대가 과감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새로운 세대가 잘할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변화이다.

제12장

주민자치

: 김정아 안전한안양시민연합 대표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1. 영어 강사의 공익활동 도전

안전한안양시민연합은 특별한 목적과 계기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이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시민운동 단체나 정치 조직과 무관하게, 평범한 시민들이 주축이라는 점이다. 지도부 역시 직업 활동가가 아니며, 구성원 대부분은 학부모·가정주부·직장인 등 일상 속의 평범한 이들이다.

이 단체의 시작은 안양시가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하면서 비롯되었다.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15만 4,000V 특고압선의 지중화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결성되었으며, 관련한 투쟁을 거치며 점차 조직이 단단해졌다. 2023년 10월 기준, 등록 회원 수는 300명을 넘었고, 인터넷 카페 회원은 1,600여 명에 달한다.

안전한안양시민연합 김정아 대표는 28년 경력의 베테랑 영어 강사이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간 수학한 경험도 있다. 이후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영어 교육 전문 기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학생 과외와 기업체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그의 시민운동 경력은 아파트 동대표에 도전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정아가 사는 아파트는 2018년 안양시의 감사를 받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정도로 다수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파트 내부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동대표에 출마하였다.

김정아는 동대표 활동을 하며 여러 험한 일을 겪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글을 올리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 어렵스럽게 자신이 공격받는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한다. 이런 글을 그냥 두면 사실로 받아들여질까 두려워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

1% 진실과 거짓만 이야기하는.

가라 단체, 안양시청에 민원 동참해주세요.

이런 빨갱이가 시민단체 해도 되냐고,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봐주겠다.

511동 동대표 머리 흰 미친○ 하나 있습니다.

저런 대화 안 통하는 병○이 있으니 일 처리가 어려운 것도 있죠.

김정아는 이러한 글들이 아파트 리모델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리모델링에 회의적인 입장에 선 자신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담긴 글이라는 것이다. 누가 글을 올렸는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아마도 김정아가 아파트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고 문제 제기한 것을 두고, 누군가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이 아닐까 싶다는 것이다.

동대표 활동을 하던 중, 김정아는 아파트 주변을 지나가는 특고압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운동이 시작됐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다. 2022년 11월 말, 특고압선 설치 반대 시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시위 현장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냥 보러 간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김정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공사 중지’를 외치는 엄마들과 유모차에 탄 아기들이었다. 시공업체 측이 공사 재개하겠다고 나오자, 엄마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자신도 힘을 보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김정아의 인생에는 시민운동은 물론, 집회나 시위 경험도 전혀 없었다. 대학 시절에도 데모를 해본 적 없는 그가, 시민단체의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의 긍정적인 성격과 성실함이 더해지면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박수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영어 강사 시절의 김정아(김정아 제공)



안양 특고압선 반대 시민모임의 집회에서 발언하는 김정아(2022년, 김정아 제공)



안전한안양시민연합 창립총회(2023년, 김정아 제공)



안전한안양시민연합의 특고압선 설치 반대 집회 사회를 보는 김정아(김정아 제공)

2. 대화와 타협으로 끌어낸 성과

2022년 12월, 안양은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한 15만 4,000V 특고압선 지중화 문제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전자파 발생에 대한 우려로 특고압선 지중화 반대 시위를 벌였고, 김정아는 그 시위의 맨 앞줄에 서 있었다. 김정아와 시위 참여자들은 공사 허가를 내준 안양시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지만, 안양시는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허가였다고 난색을 표명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절차상의 하자가 의심된다고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고, 특고압선이 얇게 매설된 구간이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안양시에 요청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실제로 몇몇 구간이 시공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안양시는 LG유플러스에 재시공을 명령하였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몇 가지 지적 사항이 나오며, 안양시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시민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웠고, 대안이 필요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였다. 김정아는 이 시기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이미 데이



안양 특고압선 반대 시민모임의 안양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김정아 제공)

터센터는 완공되었고, 특고압선 역시 대부분 매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반대운동을 이어 가야 하는 상황은 심리적으로도 버거웠다. 지금 와서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특고압선 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다.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했지만, 자칫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두려웠다고 한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LG유플러스와의 대화를 통해 서서히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안전한안양시민연합과 LG유플러스는 「오마이뉴스」 등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통해서로 입장을 주고받았다. LG유플러스는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미한 수준으로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안전한안양시민연합은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 자체도 인체에 해롭다고 맞섰다. 이런 공방은 수 개월간 이어졌지만, 해법은 결국 토론회에서 대화를 통해 나왔다.

전자파를 차단하는 차폐판 설치가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LG유플러스는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에 제한적으로 차폐판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하며, 공사 중지 요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끝까지 공사 중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합의



안전한안양시민연합-LG유플러스 협약서 체결식(202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는 쉽지 않았다. 김정아는 대표로서 임원진과 함께 시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LG유플러스와의 밀고당기기를 통해 협상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결국 전 구간에 차폐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2023년 9월, 안전한안양시민연합·LG유플러스·안양시 3자는 15만 4,000V 특고압선 지중화 선로 전 구간에 차폐판을 설치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11개월간 이어진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협약은 단순한 합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전자파 관련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 사례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기업·행정기관 간의 갈등이 종종 충돌로 번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사례는 평화적이고 모범적인 합의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협약에 따라 전자파 차폐판은 검증된 방식으로 설치되었으며, 전자파 수준은 우리나라 허용기준인 833mG보다 훨씬 낮은 10mG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경험은 시민들이 단결하면 환경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차폐판 설치는 2024년 10월 초 마무리되었으며, 안전한안양시민연합은 설치 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점검하였다.

김정아는 ‘머리 흰 미친O’이라는 거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아파트 동대표와 시민 운동에 열정을 쏟았다.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

각하기 때문이다. 욕을 먹더라도 꼭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시민운동이란 그런 일이다.

시민단체 대표를 맡아 큰일을 해낸 것을 보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스타일일 것 같지만, 김정아는 큰 계획을 세우며 살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그 대신 늘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그래서 매일 하루가 소중했다고 회상한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후회’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어떤 순간이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만족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안전한안양시민연합 대표로서 자신이 옳다고 믿은 일을 여러 사람과 함께 해냈고, 그런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말한다. 그에게 시민운동이란 공익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유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함께 힘을 모아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매우 크며, 그 성취감은 모든 힘겨움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시민운동은 여러 사람과 손잡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정아 안전한안양시민연합 대표

제1장

내 고향 안양

안정순 안양문인협회 회원



1. 덕천마을 토박이 송해빈

저는 1974년 7월, 안양7동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 1녀 중 막내로 첫째 형님과 13살 차이가 납니다. 큰형님은 2~3년 전에 화성으로 이사를 하였고, 둘째 형님과 저는 쪽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도로명 주소로 이야기하자면 전파로 21입니다. 현재 유천팩토피아가 있는 사거리에 자리한 집이었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는 1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어머니께서 그곳에서 슈퍼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유천팩토피아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안양7동 지역에는 쌍용제지 공장(창고)이 있었고, 자동차 공업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업사가 모여 있는 거리를 지나면 거기부터 명학역까지는 모두 포도밭이었습니다. 안양에 포도밭이 많았고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기에 지금 안양시의 마스코트도 포도를 캐릭터로 만든 '포동이'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FC안양의 유니폼 색깔이 보라색인 이유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주로 집 앞 골목에서 다방구, 팽이치기, 구슬치기 등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또 덕천초등학교 정문에서 안양감리교회 앞 전파교까지 이어달리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희는 전파교를 '새마을다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덕분인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육상부에 들어가서 선수 활동을 했습니다.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안양시 체육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안양초등학교로 입학하고, 1987년 2월에 덕천초등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당시 안양초등학교는 한 학년이 20학급이었고, 한 반의 학생 수가 60명이 넘



덕천마을에서 어린 시절 누나와 찍은 사진(1970년대, 송해빈 제공) 현재 덕천초등학교 옆 유료주차장 자리이다.

있습니다. 한 학년에 20학급씩 여섯 개 학년이면 상당한 수가 됩니다. 오전반과 오후반을 나누어서 운영할 정도로 과밀 학급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덕천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집과 학교의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지정된 학생들이 2학기 시작과 함께 일괄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덕천초등학교는 이제 막 개교한 신설 학교였기에, 체육 시간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돌 줍기를 하면서 운동장 바닥을 고르던 기억이 납니다.

제 고향 안양에 대한 기억을 계절별로 떠올려보면, 우리나라의 사계절만큼이나 색깔이 분명한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봄이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봄 소풍이 생깁니다.

초등학교 때는 주로 안양유원지로 봄 소풍을 갔습니다. 지금은 정식 명칭이 안양예술공원으로 변경되었고, 계곡과 주변이 멋지게 정비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작은 계곡을 중심으로 유원지에 있는 각종 놀이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풍선 터트리기, 인형 뽑기, 총 쏘기, 달고나 뽑기, 솜사탕 등의 가판대가 길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기억도 덕천초등학교 때의 기억입니다. 안양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소풍을 갔던 기억이 없습니다.

안양초등학교에는 전해지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를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땅을 팠는데 그곳에 머리는 하늘로 향하고 꼬리는 땅으로 내린 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마다 늘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학교에나 있을 법한 재미있는 전설입니다만, 그 때문인지 안양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갔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 기억나는 것은 안양초등학교도 그렇고 덕천초등학교도 그렇고 운동회가 거의 동네잔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물론 조부모님까지 모두 오시고, 가족이 둘러앉아 집에서 싸 온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다니는 부흥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날짜를 달리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나마도 학부모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바뀐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안양천에서 수영하고 논 기억이 납니다. 1980년대만 해도 안양천 주변으로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안양천의 물이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습니니다. 천변으로 동화약품, 태광에로이카, 쌍용제지 등의 공장이 자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부 영세한 공장들이 공장하수를 몰래 안양천으로 흘려보내기도 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천변이 새까맣고 더러웠습니다. 그래도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이면 물이 조금 깨끗해졌던 것 같습니다. 비산교 아래에 자리를 잡고, 다리 교각을 붙잡고 놀면서 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천초등학교 졸업식 때 담임선생님과 찍은 사진(1987년, 송해빈 제공)

지역 주민·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안양천 살리기에 힘쓴 결과, 지금은 안양천이 무척 깨끗해졌습니다.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 정비가 잘 되었고, 천변에 꽃밭과 생태로 등이 조성되어 안양 시민들에게 중요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철새들도 날아오고, 천적이 없는 잉어들이 어른 팔뚝만 하게 자라서 물 반, 고기 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너구리까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자연의 자정 능력과 사람들의 환경 보호 노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반면 안양천이 자주 범람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특히 안양7동은 안양천 변이라 여름 장마철이면 범람이 잦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비가 많이 내려 안양천 범람 위험이 있으면 조기 하교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범람으로 휴교도 자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집은 천에서 많이 떨어진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90년에 안양천 제방이 범람하여 강물이 우리 집 바로 앞 도로까지 흘러왔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안양시의 가장 큰 수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1977년 대홍수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일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홍수는 지난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안양천이 범람하여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앞 부흥고삼거리가 물에 잠기고, 그 일대의 아파트와 상가가 심각한 침수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건너편이라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다 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경수산업도로 건너편 아파트들이 모두 정전이었습니다. 부흥고삼거리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고, 서울 쪽에서 수원 방향으로 퇴근 중이던 차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들의 바퀴도 이미 물에 잠겼는데 그곳에 그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는지 U턴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로의 중앙선이 화단으로 막혀있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인데 모두 역주행을 한 것이죠. 그때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아파트에 갓 입주한 지인이 있었는데 한 달 가까이 전기가 복구되지 않아서 아파트 15층을 매일 계단으로 오르내렸다고 하더군요.

물이 빠지고 난 다음의 안양천 모습도 처참했습니다. 조성된 꽃밭은 말할 것도 없고, 큰 나무들 몇몇을 빼고는 거의 모든 나무가 뿌리가 뽑히거나 꺾여 있었습니다. 천변에 놓여있던 돌 벤치가 쓸려갈 정도이니 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천은 하천 바닥이 얇고 폭이 좁은 편이어서 구조적으로 범람이 잦은 것 같습니다. 가물 때는 하천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물이 없는 편인데,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늘 평균을 유지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비산대교와 전파교 사이에 덕천교와 서로교가 있지만, 예전에는 비산대교와 전파교 사이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산대교도 가로로 수평인 일자 모양의 다리였습니다. 그 시절에 안양천에 비가 많이 내려 수위가 상승하면 온갖 부유물들이 비산대교 교각에 걸려서 물길을 방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안양7동에 더 큰 홍수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도 홍수 때 비산대교 교각이 부러지고 붕괴의 위험이 커지자 지금의 아치형 다리로 모양을 바꾼 것으로 압니다.

안양의 가을은 산과 함께 기억됩니다. 안양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북쪽으로는 관악산과 삼성산, 서쪽으로는 수리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로는 의왕의 모락산도 눈에 들어옵니다. 관악산 국기봉은 지금도 아이들과 등산 다니는 곳입니다. 관악산 둘레길과 생태공원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주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추석이면 관악산으로 솔잎을 따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직접 채집을 삼가야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산에서 솔잎을 따다가 송편을 찌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의 천변 자전거 도로 자리에 롤러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롤러스케이팅장이 많았습니다. 주로 안양1번가의 실내 롤러스케이팅장이 학생들에게 인기 있었지만, 안양천 변의 야외 롤러스케이팅장도 인기 있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봄가을 날씨가 좋을 때 안양천 변에서 롤러스케이팅을 타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1990년 수해로 파손된 비산대교(안양시청 제공)



덕천마을 수해 현장 복구작업(1990년, 안양시청 제공)



인덕원 신성중·고등학교 개교 기념 행사(신성학원, 『신성학원 30년사』, 2000)

겨울에는 안양천 주변이 스케이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겨울이면 천변에 자리한 눈에 물을 대고 얼려서 만든 스케이트장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얼음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탔습니다. 유년기에는 이렇게 안양의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보낸 즐거운 기억이 많습니다.

신성중학교와 신성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게 안양이라는 도시는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신성중학교는 1970년에 안양동중학교로, 신성고등학교는 1974년에 안양동고등학교로 개교하여 1980년도에 신성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치도 처음에는 인덕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인 1996년에 안양6동 지금의 위치로 교사를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안양시의 버스 노선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인덕원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안양7동에서 비산대교사거리까지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양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력고사를 보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신성고등학교에는 1990년도에 입학하여 1993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그 시절에 신성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성적이 반에서 상위권 안에 들어야 했습니다. 재

학생과 졸업생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선생님들도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인덕원에서 안양1번가까지 나와서 순찰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때 오락실과 당구장 등에서 놀다가 걸리는 학생들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학교가 인덕원 평지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학교 운동장과 학교 밖 인도는 상당한 단차가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쪽에서 보면 담장이 낮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사람 키의 배가 넘는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장을 넘어서 땡땡이를 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대신에 학교 담장에 ‘개구멍’이라고 불리는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간식을 사 먹을 때

주로 이용하는 구멍이었습니다. 학교 담장 바로 밖에는 간식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그 구멍으로 떡꼬치를 사 먹곤 했습니다. 학교 앞에 짜장면이 1,000원이던 중국집도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는 지각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 돈을 모았다가 토요일 자율학습 때 반 전체 학생들이 짜장면으로 회식을 하곤 했습니다.

신성고등학교의 축제인 ‘신성제’는 유명했습니다. 안양문화회관을 대관해서 신성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제에 입장하려면 표가 필요했습니다. 신성제의 흥행을 위해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표를 열심히 나눠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훗날 그룹 터보의 메인보컬이 되는 김종국은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학교에서 ‘땡파이’라는 밴드 활동을 했던 유명인이었습니다. 신성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인기몰이한 걸로 기억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안양시에는 도서관이 만안도서관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형을 따라서 과천도서관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일 때 시험 기간이면 으레 과천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안양, 과천 할 것 없이 도서관 수가 부족하던 시절이라 오전 7시에 가도 도서관에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



신성고등학교 졸업식(1993년, 송해빈 제공) 인덕원 교사 시절이다.



1997년 안양1번가 축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다. 지금은 안양시에 총 11개의 시립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동안구의 많은 지역은 걸어서 도서관에 갈 수 있는 ‘도세권’을 자랑합니다. 지금 제가 사는 부흥동에서도 비산도서관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11월에 개관한 큰샘어린이 도서관도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등에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안양시의 자연 다음으로 도움이 된 것이 도서관입니다. 이 또한 안양시의 놀라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고등학생 때와 대학생 때는 주로 안양1번가에서 놀았습니다.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에 떡볶이 골목과 곱창 골목이 있는데 친구들과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었습니다. 안양의 청년들은 모두 안양1번가에서 놀았습니다. 대학생 때는 안양1번가에 가면 약속 없이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양에서 초중고를 나왔으니 안양1번가의 어느 가게를 가도 동창을 만날 수밖에요. 안양1번가에 나이트가 여섯 곳이나 있었고, 극장도 삼원극장과 화단극장 두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MZ세대의 말로 하자면 1990년대의 안양1번가는 그야말로 ‘핫플(hot place)’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양역 앞이 구도리가 되었고, 안양1



1990년대 안양중상시장 곱창 골목(이정범 제공)

변가는 상권이 죽어서 비어있는 점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안양에 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 점을 말하자면 대략 네 가지 정도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선 안양천의 변화입니다. 오염이 심각한 하천이었고, 천변은 여름 장마철이면 범람이 잦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온갖 동식물이 서식하는 깨끗한 하천이 되었고 천변으로는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 당시만 해도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압니다. 안양천과 주변 산책로는 안양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으뜸가는 안양시의 보물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양의 부동산 변천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안양1번가를 구도심으로 만든 원인이기도 하지요. 평촌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원도심인 안양1번가는 구도시가 되고, 평촌신도시로 인구·상권·부·편의 시설 등이 모두 옮겨가게 됩니다. 평촌신도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안양역 일대 안양1동 중심가와 안양2동 연립주택 지역, 안양4동 벽산아파트는 부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촌신도시가 생기면서 철길을 사이로 만안구와 동안구가 분리되고 부촌에 대한 인식도 평촌신도시 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귀인동은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다닐 정도로 외진 하우스촌이었습니다. 지금은 개발



안양천의 변화(2013년 안양천 사진 공모전 입상작품,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977년 수해 당시 안양천과 2013년의 깨끗한 안양천을 대비하였다.

전 시골 논밭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평촌신도시의 변화가 가장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많던 포도밭이 거의 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덕천마을의 변화입니다. 우선 철길 건널목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덕천마을 지상으로 철길 건널목이 있어서 기차가 지나갈 때면 양쪽으로 통행을 막는 차단기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철길 아래로 사람과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주점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아파트가 서 있는 덕천마을은 재개발 논의가 오래 지체되면서 꽤 오랜 기간 공동화(空洞化)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기간이 약 10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가림막이 설치되면서 일부 도로가 막혀 길을 멀리 돌아서 가야 했기에 일대의 교통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또 가림막 안쪽은 공기들이 오래

방치되다 보니 우범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곳이 단지 조경으로 대상까지 받은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였다는 것은 정말이지 상전벽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면서도 안양을 떠날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소재 회사에 다니는 일은 물리적인 거리에 비례하여 체력적으로, 시간상으로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향인 안양에서 삶을 더 확고하게 지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에 결혼하면서 신혼집도 당연히 안양에 마련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살고 있던 단층집을 허물고 5층 건물로 신축하느라 약 3년 정도 안양4동 벽산아파트에 살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결혼 전까지 쪽 안양7동의 제가 태어난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신혼집은 부흥동의 아파트였고, 그 뒤로 같은 부흥동 안에서 한 번 이사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FC안양이 우승하면서 K리그 2부에서 1부로 승격된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안양에 사는 동창들 모두 그 소식에 흥분하였습니다. FC안양은 축구를 사랑하는 안양 시민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자 안양의 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안양 공고의 축구부가 유명했고, 이영표와 김동진 등 훌륭한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안양이 축구로 잘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FC안양의 전신은 안양 LG치타스입니다. 2000년도에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LG 카드를 만들었는데, 카드 혜택 중에 안양 LG치타스 홈경기 입장권 공짜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경기를 보러 가곤 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전반전은 끝나있었지만, 후반전만 관전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LG에서 배신을 하고 -안양 시민에게는 배신입니다- 2003년에 서울로 연고지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 10년 후인 2013년도에 FC안양이 창단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안양 팬의 꿈은 1부 리그로 승격해서 FC서울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K리그 2부 결승전에서 FC수원에 패했을 때는 FC안양 팬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기 축구회원으로 활동은 해도 연고지 축구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축구장에 자주 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은



승해빈



FC안양의 1부 리그 승격에 환호하는 FC안양 팬들(202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아파트 단지로 변한 덕천마을(좌)과 자연 하천으로 복원된 안양천



FC안양의 응원 구호 “수카바티 안양!”을 외치고 응원가를 따라 부릅니다. 2024년 올해 드디어 FC안양이 K리그 2부 우승팀이 되어 1부 리그로 승격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일요일에는 우승 기념 퍼레이드도 하였습니다. 저와 안양 토박이 친구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안양은 공업 도시였습니다. 제지 공장과 자동차 공업사가 즐비했죠. 그런데 지금의 안양은 환골탈태한 모습입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안양예술공원에는 박물관이 자리 잡고, 각종 예술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어 문화 예술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곳곳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안양의 스카이라인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생각하는 안양입니다. 제게 안양은 가족과 친구들이 사는 익숙하고 편안한 도시입니다. 예측가능한 삶의 반경이 주는 마음의 여유와 안정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고향’입니다. 제게 안양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랑하는 고향입니다.

2. 남부동 토박이 김해진

저는 1976년생입니다. 안양1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남부시장과 안양제일교회 사이에 집이 있었습니다. 1남 4녀 중 넷째딸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와 형제자매 이렇게 3대가 모두 안양 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 막내 남동생은 안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몇 해 전에 화성시로 귀농하셨습니다. 셋째 언니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안양1번가에서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일번가지하차도 입구에 위치한 ‘문화철물점’입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철물점을 아버지가 이어받았고, 지금은 둘째 형부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업이 된 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이 무척 크고 활발한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안양1번가는 안양에서 제일 변화한 곳이었습니다. 본백화점과 벽산쇼핑 등 큰 쇼핑몰이 있고, 극장도 두 곳이나 있었으며 대동문고 같은 대형 서점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안양1동에 있는 사론유치원을 다녔고, 안양초등학교·안양서중학교·양명여자고



안양1동 문화철물점(최병렬 제공)

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에는 주로 집 앞 골목에서 놀았습니다. 지금은 안양1번가에 다양한 노선의 버스들이 다니면서 교통 혼잡이 심해졌지만 1980년대 초반 하더라도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2005년 일번가지하차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장내로는 이면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철길을 건널 수 있는 육교만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있던 골목에도 차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집 앞 골목은 아이들이 맘 편히 놀 수 있는 열린 놀이터였습니다.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다방구 등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겨울에는 골목에서 썰매도 탔습니다. 아버지의 철물점에서 아버지 몰래 굵은 철사를 가져와서 나무 썰매를 만들었어요. 썰매 양쪽 다리에 철사를 달면 그렇게 잘 미끄러질 수가 없습니다.

집 앞 골목에는 쌀집·세탁소·슈퍼 등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슈퍼 앞에는 큰 평상도 있었습니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골목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어머니들은 평상에 모여서 저녁거리를 다듬으며 수다를 나누고, 그 앞에서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으면 골목의 가게들로 찾으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쌀집 사장님이 “너희 아버지 저기 세탁소에서 술 드시고 계신다.” 하고 아

버지의 소재를 알려주었습니다. 또 야간에 전등을 모두 꺼야 하는 등화관계 훈련이 있는 날이면 친구들과 슈퍼 앞 평상에 모여서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유년의 추억과 가족의 삶이 고스란히 ‘골목’ 안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안양초등학교는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서 오전·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를 할 때도 오전반과 오후반을 나눠서 이틀에 걸쳐 운동회를 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 안양초등학교의 복도와 교실 바닥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청소 시간이면 줄 맞춰 앉아서 걸레를 들고 마루에 왁스 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봄 소풍은 효성 안양공장의 진달래 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보물찾기도 했는데 제가 보물을 참 잘 찾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포항제철소 견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안양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문방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큰 도로에서 안양초등학교 정문까지 골목길이 모두 문방구였다고 기억될 정도니까요. 그중에서도 교문 바로 옆 문방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깜박하고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면 학교 담장 사이로 준비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악대로 학교 입구 쪽에 육교가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육교가 없었습니다. 안양1동 집에서 안양초등학교에 가려면 우체국사거리까지 걸어간 후에 거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안양초등학교에는 정문과 후문 두 곳의 출입구가 있었는데, 안양1동 진흥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후문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진흥아파트에는 가수 노사연이 살았는데 그래서인지 그 아파트에 살면 부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후문으로 하교하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부자 동네에 산다고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안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안양서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안양서중학교는 안양 최초의 남녀 공학으로 제가 입학한 해에 개교한 신생 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이 1층밖에 안 지어져 있었습니다. 재학 중에도 학교 건물은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안양서중학교는 창박골 예비군훈련장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버스 종점이었습니다. 안양1번가에서 창박골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1~2개 밖에 없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이면 버스가 미어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교할 때는 병목안 계곡을 따라서 친구들과 걸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걸어 내려오다가 프라자아파트 앞에서 달고나도 사 먹고 ‘방방’도 타곤 했습니다. 여름에는 수암천에서 놀다가 해가 떨어져 좀 시원해지면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양서중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 은행나무가 많았습니다.

1988년 안양1동 일대와 안양초등학교(안양시청 제공)





안양서중학교(200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가을이면 노란 단풍이 참 예뻐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암나무 아래를 지날 때면 행인들에게 밟혀서 깨진 은행 냄새가 괴롭긴 했지만요. 안양에 은행나무가 많아서 안양시 시목이 은행나무가 된 것인지, 시목이 은행나무라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은 것인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지금 안양시의 가로수들을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가 나무를 전지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만안구는 안양1번가에 줄 지어선 은행나무를 꼭 막대사탕처럼 동글동글하게 다듬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평촌대로의 플라타너스를 막대 아이스크림처럼 직사각형 네모로 자릅니다. 재미있는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병목안시민공원이 너른 잔디밭과 인공폭포까지 갖추고 멋지게 조성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곳이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목안시민공원 한쪽에 보면 철길이 있습니다. 그 철길 위에 개폐 화물열차 한 량이 놓여있고, 그 안에 돌이 실려 있습니다. 채석장이었던 곳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예전의 흔적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두 살 터울의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병목안시민공원에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기에 참 좋은 공원입니다.

현재 안양서중학교는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모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안양1번가도 그렇고 안양서중학교도 그렇고 한때 번창했던 곳이 사그라



1992년에 개관한 만안도서관(199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쓸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안양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었습니다. 고입 학력고사 성적에 맞춰 학교에 진학했기에 고등학교별 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양고등학교와 안양여자고등학교의 입학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들은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저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양명여자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양명고등학교와 양명여자고등학교는 같은 재단이어서, 매점도 같이 이용하고 축제도 함께 했습니다. 매점에서 남자 동창을 만나기도 했는데, 친하게 인사라도 나누면 여학생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주로 만안도서관으로 공부하러 다녔습니다. 자리를 맡아 놓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 더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높은 언덕에 있는 만안도서관에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친구들과는 주로 안양1번가에서 놀았습니다. 중앙시장 순대 골목에도 자주 가고, 역전지하상가 푸드코트에도 단골집이 있어서 쫄면과 김밥을 먹으러 자주 갔습니다. 지금의 안양역 엔터시스 지하 출입구와 역전지하상가가 연결되는 곳에 엄청 큰 푸드코트가

있었습니다. 손님도 많았고,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던 곳이기도 해서 커다란 쟁반을 이고 들고 배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롯데시네마 자리에 삼원극장이 있었습니다. 안양역 앞 구도로 쪽에는 화단극장도 있었습니다. 삼원극장에서 처음으로 본 영화는 언니들과 함께 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혼자서 영화를 자주 봤었는데, 화단극장은 동시상영을 하는 극장이라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때 한창 홍콩 영화가 유행이었는데 화단극장에서 동시상영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고등학생이 종일 앉아서 영화를 봐도 내쫓는 사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철물점은 8시까지 영업했는데, 영업시간 이후에는 철물점에서 밤 10시까지 담배를 팔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담배는 전매권이 있어야만 팔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안양1번가에 있었기에 담배는 꽤 잘 팔렸습니다. 철물점이 문을 닫으면 가게 앞에서 포장마차들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철물점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대신에 자릿세를 냅니다. 그때는 줌도둑이 있던 시절이라 가게 물건을 지키기 위해 철물점 한편에 쪽방을 두고 사람이 상주했습니다. 주로 할머니가 그곳에서 주무셨습니다. 저희 남매들도 돌아가면서 할머니와 함께 가게에 나가 있곤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철물점 앞 포장마차에서 잔치국수를 야식으로 사주셨습니다. 내린 셔터를 살짝 올리고 국수 그릇을 받았었지요. 밤에 먹는 그 국수는 참 맛있었습니다.

일번가지하차도가 생기기 전에 안양1동 진흥아파트와 주공뜨란채아파트 사잇길에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길 옆 상가에 만화방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친구네가 하는 만화방이었는데 언니를 따라서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 속의 안양역은 대합실에 불편하고 딱딱한 나무 의자가 놓여있는 시골 간이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하철 차표도 마그네틱 선이 붙어있는 종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도 2층으로 바뀌면서 규모도 커지고 한쪽으로 쇼핑몰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볼 때면 안양이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어쩌다 버스를 타고 지나게 되는 평촌신도시는 꼭 유명 도시 같았습니다. 그쪽으로 운행하던 버스도 몇 대 없었습니다. 당시 학원가의 건물들은 모두 불이 꺼진 채로 캄캄했습니다. 지금 학원가는 그야말로 불야성이지요. 이것도 많이 바뀐 안양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항공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일하는 중에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거래처에서 갑자기 출장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긴급하게 항공권 구매를 문의



2000년대 안양1번가 야간 풍경(이정범 제공)



1980년대 안양역(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역과 삼성래미안아파트(2024년)



병목안시민공원에 나들이 온 사람들(2007년, 안양시청 제공)

했고, 힘들게 좌석을 확보하여 거래처 직원이 무사히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성이 희귀한 성씨여서 혹시 누구인지 물어보니 초등학교 동창이 맞았습니다. 그 일이 인연이 되어 남편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안양 토박이입니다. 안양초등학교 후문으로 등교하던 진흥아파트 학생이었습니다.

남편과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저희는 안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은 여의도였고, 제 직장은 종로라서 두 곳으로 출퇴근하기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신혼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는 집을 찾다 보니 신도림에서 구로로, 구로에서 다시 안양으로 점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양역 바로 옆의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안양역 초역세권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는 마음이 안양에 정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양은 안양천이 흐르고 주변에 산이 많아서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수시로 안양천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관악산과 병목안시민공원, 안양예술공원, 삼막사 등으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곤충을 채집하고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의 삼성천에는 도롱뇽알도 있고, 1급수에만 산다는 민물 가재도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키운 덕분인지 중학교 3학년인 첫째 아들은 새를 관찰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안양천에 황조롱이가 살



학교와 학원 그리고 공원이 인접한 평촌신도시 향촌마을

고 있다고 알려준 것도 첫째 아들입니다. 아들들 덕분에 안양의 자연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평촌 학원가 근처의 향촌마을 현대5차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낸 언니들의 조언이었습니다. 학원가 쪽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걱정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조용하고 좋은 동네였습니다. 학교 아이들도 순둥순둥하고 성격이 좋습니다. 단지 가까이에 중앙공원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과 걷기 운동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중품아(중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서 아이들의 등하굣길도 안전합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학원가라서 먼 곳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학원에 오는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힘들게 학원에 다니고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결혼하면서는 가진 돈에 맞추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나고 자란 곳이라 익숙해서 안양에 자리를 잡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보니 안양만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안양은 교육·자연·주거 환경, 교통 등이 서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남편과 저도 더 이상 다른 도시를 꿈꾸지 않습니다.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안양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 부부의 삶도 함께 익어 가면 좋겠습니다.

제2장

안양, 삶의 터전이 되다

김영숙 시인,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회원



1. 세종약국 약사님 김종욱

1) 안양에 정착하다

김종욱의 고조부는 궁중에서 임금의 어의(御醫)를 하다 조선 말 혼란기를 피해서 친구 백씨의 가족과 함께 식솔들을 이끌고 무주로 낙향하였다. 김종욱은 1946년에 전북 무주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전주로 이사해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서울 소재 제약회사에 근무하다가 1971년 현재 김중업박물관 자리에 있던 한국업존사(현 유유제약)의 창립 멤버 약사로 입사하였다. 한국업존사는 (주)유유산업이 미국 제약회사인 업존사와 합작하여 설립한 글로벌 제약회사로, 우리나라에 선진 의약품을 보급한 회사이다. 김종욱은 버스를 타고 서울의 집과 안양의 회사를 오고 갔다.

1970년대 안양은 대농·한국제지·금성통신·동양나이론·삼아알미늄·동아제약 등 대기업이 위치한 공업 도시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안양으로 이주해 왔다. 당시 대농의 총무과에는 매일 약 200명이 면접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고 한다. 안양상공회의소에서 탁구대회를 개최하면 마치 전국체육대회를 하는 것처럼 성대하였다고 한다.

안양유원지 부근에서 하숙하던 김종욱은 1977년 안양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인 '안양 대홍수'를 경험하였다. 집중호우로 하룻밤 사이에 안양천과 그 지류들이 범람해서 저지대와 큰 공장들이 물에 잠겼다. 폭우가 쏟아진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 유원지 삼성천 계곡에 집채만 한 바위가 굴러와 있고 수영장 등 시설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형이 바뀌어 있을 정도였다. 대홍수로 생업과 집을 잃게 된 이재민이 발생했고,



한국업존주식회사 근무 시절 김종욱(김종욱 제공)



한국업존주식회사 직원들(김종욱 제공)

침수된 공장 중 일부는 복구를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물난리를 겪었던 그해에 김종욱은 선배의 소개로 얼굴이 썩얇고 지적인 아가씨를 만났다. 아가씨의 성품은 온유했고 대화를 나누면 잘 통해서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때 외출해서 각자 선물포장지를 사 왔는데 부부가 같은 것을 사 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가구를 살 때도 부부가 항상 같은 것을 선택할 정도로 취향이 비슷해서 김종욱은 부인이 사 오는 옷은 두말없이 입었다.

김종욱은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달 정도 미국과 캐나다 공장에 출장 갔다 오기도 하며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다. 입사한 지 7, 8년 지났을 무렵 회사가 궤도에 안착하자 약사로서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다. 회사를 계속 다닐까 아니면 약국을 개업할까 하는 것이었다. 지인들과 상의하니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김종욱은 정든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약국 개업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결정하였다.

2) 세종약국 약사로 40년을 살다

1979년 비산동 주공아파트 2단지의 상가를 분양받아 세종약국을 개업하였다. 17평 미만의 평수로 이뤄진 주공아파트 정문 옆에서 김종욱은 2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였다. 처음에는 부부가 함께 일했으나 큰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부인은 아이들 양육에 전념하였다. 비산동에 등지를 틀고 살면서 김종욱은 두 딸의 친구 부모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동네 약국을 하면서 그는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였다.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해서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당시는 정보가 잘 공유되지 않던 시대였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한의원으로 가야 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랐다. 그럴 때면 약국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명의를 찾아서 병원을 알려주고, 병에 대한 설명을 출력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화가 없는 집이 많던 시절, 그는 주민들이 약국 전화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김종욱이 약국을 개업했을 때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그래서 처방 약사로서 역할이 컸다. 20년 동안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틈나는 대로 의약(醫藥) 서적을 읽었고, 한방(韓方) 공부도 열심히 하였다. 양약으로 잘 낫지 않는 병이 한약을 처방하면 효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약국을 찾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위장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종욱이 조제해 준 약을 먹은 후 나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는 감기나 위장병 약을 잘 짓는 약국으로 소문이 났다.

비산동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김종욱은 약국 운영시간을 줄였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약국 문을 열었는데, 사회적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저녁 8시에 문을 닫았다. 일요일과 국경일 같은 공휴일은 약국도 쉬었다. 2001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병원 처방전대로 조제하니 업무 부담도 많이 줄었다.

비산동 주공아파트는 전체 2000세대 중 50세대가 휠체어를 타는 상이군인이었다. 김종욱은 어느 날 우연히 상이군인 대여섯 명이 밖에서 전도사님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현재 비산동에 있는 중부교회이다. 김종욱은 30년 정도 중부교회를 다녔다. 현재는 비산동의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 김종욱의 처가는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으로 전라남도 해남에 최초로 교회를 세운 분이고 6대째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다.

김종욱 부부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다. 사람 만나는 것 좋아하고, 만나면 대접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았다. 부부는 이것을 하나님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바뀐 한국업존사 건물

이 주신 사명으로 여겼다. 김종욱의 부인은 몸이 아픈 이웃을 각별하게 챙기는 사람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사람이나, 가난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외면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맺은 여러 인연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 홀로 손주들을 키우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새벽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손주들만 남게 되었다. 갑자기 유족이 된 손주들은 장례를 치를 형편이 못 되었다. 김종욱 부부는 손주들의 어려운 형편을 배려해서 적은 비용으로 장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고인을 시립공동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그리고 부조금으로 관양동에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해 주었다.

비산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김종욱은 20년 동안 운영했던 비산동 약국을 접고 안양6동으로 이사하였다. 새로 문을 연 약국은 '세종온누리약국'이다. 비산동 약국 주변에는 중국집 외에는 식당이 없었다. 김종욱의 부인은 점심·저녁 식사 때가 되면 그와 직원들 도시락을 싸서 약국으로 가지고 나왔다. 2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는데, 안양6동 약국 주변은 식당이 많으니 도시락에서 해방되었다며 좋아하였다.

세종온누리약국에서는 전산원과 보조 약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들은 김종욱이



김종욱이 운영하던 안양
6동의 세종온누리약국



세종온누리약국 직원과
김종욱 가족의 기념사진
(김종욱 제공)

약국을 그만둘 때까지 전산원 아가씨는 20년, 약사는 14년 정도 함께 근무하였다. 주2, 3회 정도 방문하던 가사도우미도 2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하였다. 약국을 그만둔 후에도 이들과는 여전히 가족 같은 만남을 이어 오고 있다.

약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70~8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사연 없는 사람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남편이나 아들이 알코올중독이거나, 자녀가 이혼했거나 해서 집안에 우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종욱은 이들에게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하고 공감하였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



은퇴하는 김종욱에게 가족이 준 감사장(좌), 손녀와 함께 군포 반월호수를 찾은 김종욱 부부(김종욱 제공)

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손수 만든 음식을 만들어와 함께 먹으며 가족처럼 정겹게 지냈다. 농사지은 것을 배낭에 짊어지고 와,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환자 관리가 엄격할 당시는 격리된 채 혼자 사는 환자들이 약국에 전화하면 김종욱 부부가 직접 방문하여 현관 문고리에 약을 걸어놓고 왔다.

약국을 한 자리에서 20년 하기도 쉽지 않은데 비산동에서 20년, 안양 6동에서 20년을 해서 그는 4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였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약국 운영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때 약국에 오는 분들과 정 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분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다. 그러던 중 4년 만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원인불명 만성신부전 진단이 나왔다. 당장 치료받아야 하므로 작별의 슬픔에 빠질 겨를도 없이 약국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종욱은 매도한 약국에 한 달 동안 가서 정들었던 단골들과 일일이 인사하였다. 그리고 세종약국을 인수한 약사에게 20~30명의 단골 명단을 넘겨주었다. 한동안은 가끔 약국에 들러보기도 하였다.

김종욱 부부는 약국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부부는 '사랑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거나 집 마련할 때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등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았다. 김종욱은 국제라이온스 협회 회원으로 10년 동안 봉사하였다. 매년 휴전선 지역에 무료 투약을 하러 가고, 수해

가 나면 수재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에 참여하였다. 김종욱 부부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기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실천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회의 축복 속에 사고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4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3) 은퇴 후의 일상

김종욱은 은퇴 후에 한의원 가서 침 치료하고, 부인과 함께 산책하고 드라이브하며 지내고 있다. 김종욱 부부는 약국도 함께 했지만, 어디든 늘 함께 다닌다. 결혼 생활 동안 상대의 단점을 끄집어내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살아서인지 별로 부딪히지 않았고 같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김종욱 부부는 얼마 전 은행에 갔다가 가끔 약국에 왔던 손님과 우연히 마주쳤다. 15년 전쯤, 약국에 와서 청산가리를 달라고 했던 20대 부인이었다. 당시 김종욱은 너무 놀라서 속으로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김종욱의 부인이 그녀한테 앉으라고 권하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그 후 그녀는 가끔 약국에 들어서 횡설수설하다 가곤 하였다. 알고 보니 애가 둘이 있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환자였다. 그녀는 김종욱 부부한테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사모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딸들도 잘 커서 지금 직장에 잘 다니고 있어요.”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김종욱은 딸이 둘인데 큰딸은 첼로를, 작은딸은 해금을 전공하였다. 큰딸이 예원학교로 진학하면서부터 작은딸이 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안양에서 서울로 통학시키느라 바쁘게 살았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큰딸은 연주자로 활동하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매년 예술의전당에서 첼로 독주회를 열기도 한다. 해금을 전공한 작은딸은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석사 졸업 후 문화재단에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 바쁜 부모 아래에서 잘 자라 공부도 열심히 해 부모에게 기쁨이었던 딸이 지금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사는 효녀이다.

어느 날 두 딸이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운 부모님께 생활비를 다 대줘야 하는데 용돈밖에 못 줘서 죄송해요.”라고 하더니, 몇 달 후에 고급 승용차를 가져왔다. 김종욱 부부는 사위들한테 미안해서 2년 동안 타지 못하고 세워놓았다가 지금이야 타고 다닌다. 부모가



약사 김종욱(김종욱 제공)

한 것 이상으로 자녀들이 효도해서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김종욱은 40년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약국에서 일하다 보니 멀리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거나 하는 취미 생활은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취미로 하게 되었는데, 책 읽기와 풍란 키우는 일이었다. 은퇴 후에도 김종욱은 여전히 책을 즐겨 읽고 풍란을 키우며, 부인과 함께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거나 구경하고 온다.

안양에 사는 서울대 약대 동문이 20명 정도 있는데, 김종욱은 약사회 활동을 하며 학교 동문과 친분을 쌓았다. 가끔은 동문 카카오톡 대화방에 자신이

쓴 글을 올린다. 그가 쓴 글을 통해 김종욱의 삶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다.

집꾼의 독백

20여 년 공부라는 집을 지고,
50여 년 일터에서 집 지고 살다 보니

모처럼의 휴식도 게으름 같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의미 있고 멍때리는 시간도 귀한데

오랫동안 집 지워 부리던 늙은 말을 풀어줘도
스스로 마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오랜 세월 기억이 쉬 놓아주질 않네

‘무거운 짐 진 자’를 부르는 분을 믿고
유년의 몸으로 돌아가네

나이 들어 돌아보니

좀 더 나은 자리를 탐해서 다른 이들을 밀치며 살지 않았고,
더 많이 가지려 남의 것 넘보지 않고 산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룬 것은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아비로서 소임을 감당하며 살려다 보니 어느덧 저녁노을!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산 것도,

주위 사람의 도움과 이 사회에 커다란 은혜라 생각합니다.

노년에는 자원봉사 하며 베풀며 살고자 했으나 이마
저도 쉽지 않고,

자녀들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 이게 좀 안타깝
습니다.

지금 이대로 주위에 짐 지우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해 보는데 이
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2. 석수동에 정착한 항해사 문태옥

1) 꿈과 사랑을 바꾸다

문태옥은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 부근이 고향이다. 그는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항해사가 되었다. 1980년 김포공항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을 거쳐 어업 전진기지였던 라스팔마스(Las Palmas)에 도착하였다. 항해사 문태옥은 페르시아만, 바레인,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의 라스팔마스, 대서양, 인도네시아 암본(Ambon)섬 등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7년 반 동안 항해사로 활동하면서 위험한 순간이 몇 차례 있었다. 페르시아만에서 조업을 하는데,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정유 공장이 폭파되면서 그 영향으로 페르시아만의 물고기가 기형이 되었다. 기형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27일 동안 배를 몰고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항해사 시절 문태옥(문태옥 제공) 왼쪽이 문태옥이다.

카타르 도하(Doha)에서는 문태옥이 타던 배가 도하 사람의 저인망 어선을 건드렸다고 누군가 신고해서 나포되었다. 그와 동료들은 억울하게 중죄인 수용하는 감방에 20일 동안 갇혀 지냈다. 찌는 듯 더운 날씨에 13개국 재소자와 함께 수용되어 하루에 빵 두 조각 먹으며 힘든 생활을 하였다. 다행히 20일 후에 부산항에 귀국하였다.

몇 개월 있다가 문태옥은 이등 항해사로서 스페인으로 출항하였다. 대서양의 서아프리카 기니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에 코나크리(Conakry)주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이틀 동안 경비정에 나포되었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결국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는데 대서양 어장의 황폐화로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에서 인도네시아 어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태옥은 일등 항해사가 되었다. 인도네시아령 암본섬에 기지를 두고 조업하는 동안, 배의 기계실에 큰 고장이 생겼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태옥은 귀국하기로 마음먹었다. 배를 싱가포르에 정박하고서 1988년 12월 30일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얼마 안 되어 문태옥의 형이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식 전날, 대구에서 올라온 예쁘고 참한 형수 친구를 보고 첫눈에 반하였다. 그는 결혼식이 끝나고 대구로 내려가는 형수 친구를 쫓아갔다.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게 되어 몇 개월 만에 결혼하였다.

항해사는 한 번 나갈 때마다 평균 2년 반 동안 해외에서 지내야 한다. 총각 때는 그런 일정이 문제 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오래 헤어져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문태옥은 선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일등 항해사로 만족하고 그만두었다. 그는 7년 반 동안 매일의 경험을 꼼꼼하게 기록했던 소중한 노트를 친한 친구한테 물려 주었다. 그만두고 나서도 항해사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있는지 5년 동안 항해하는 꿈을 꾸었다. 처음에는 그만둔 것을 후회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 그만두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2) 유통업으로 경험한 인생의 맛

문태옥의 형은 1989년도에 석수2동(현재 충훈동)에서 삼성전자 대리점을 하였다. 당시에는 대리점이 잘 되어서 문태옥도 삼성전자 대리점 판매장을 하려고 형 밑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대리점 판매장을 하려면 전자 제품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했으므로 항해사로 살아온 그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대리점 손님 중에는 대립수산 제품을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문태옥은 어묵·햄·고추장 등을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일을 6~7년 동안 하였다. 그러다가 동일 업종 종사자 몇이 출자해서 '진유통'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문태옥은 상무 직책을 맡았고 3~4년을 공동 운영하다가 그만두었다. 1998년부터 충훈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했으나 2년 반 정도 하다가 정리하였다. 슈퍼마켓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태옥은 슈퍼마켓을 정리하고서 이것저것 일을 찾던 중에 특정 다단계 사업을 하는 후배를 만났다. 다단계 사업이 무엇인지 몰랐던 문태옥은 후배 말만 믿고서 좋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중간 유통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상품이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 가능하다고 하니까 부담 느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다. 지인들이 화장품 세트 154만 원어치를 사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최고 실적을 거두었다. 그런데 후배가 다른 회사로 옮겨 갔다. 문태옥은 후배가 돈이 안 되니까 옮겨졌을 거라 판단하고 3개월 만에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지인들이 샀던 물건을 모두 반품시켜 피해가 없도록 하였다.

뜻하지 않게 아파트 창호 시공업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업체의 상무로 있는 후배한테 몇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 목돈을 빌려줬는데도 받지 못하고 푼돈을 월급처럼 받으려고 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같이 일하게 되었다. 아파트 창호 시공은 인맥과 힘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다. 1년 반 정도 후배를 따라 전국을 다녔지만 돈 한 푼 벌 수 없었고 빌려준 돈도 못 받았다. 그 일은 '넥타이 매고서 품 잡고 다니는 일'이었다. 부인한테 생활비도 못 주니 면목이 없어서 아침에 집을 나오면 밤늦게 들어갔다.

고등학교 친구가 유망한 사업이 있으니 함께 해보자며 접근했을 때 의심 없이 수락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였다. 바닷물로 얼음을 만드는 특허 기술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친구를 믿고 투자하였다. 투자자로서 일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장에 가보았으나 친구는 매번 핑계를 대며 접근을 막았다.



문태옥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알고 보니, 믿었던 친구는 사기 전과범이었고, 감방 동기의 제안으로 사기를 친 것이었다.

빌려준 돈 받으려고 후배 쫓아다니고, 친구한테 사기까지 당한 문태옥은 유통업으로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잃었다. 대출받은 집 한 채만 달랑 남았을 뿐이었다. 상황판단을 잘못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가족을 볼 면목도 없었다. 사기당한 일을 떨치고 다시 일하기란 쉽지 않았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밤중에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하지만 문태옥은 ‘죽기로 마음먹으면

무엇을 못하겠나, 자존심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고 다시 일어섰다.

2004년에 문태옥이 다시 유통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후배가 거래처 두 군데를 연결해 주었다. CJ와 연결되어 어묵·햄·맛살·단무지 등을 납품하며 열심히 뛰었다. 아침 6~7시부터 안양·수원·오산 등을 다니며 식품을 배송하였다.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 비용이 아까워서 사우나나 차에서 자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였다. 당시에는 탑차에 전등이 없어서 밤늦게까지 가로등 아래서 일하며 슈퍼마켓에 납품하였다. 2년 정도 지나니 자리가 잡혀서 대리점을 차릴 만큼 안정되었다.

문태옥이 대리점을 시작할 때 도움을 준 진정한 친구가 있다. 석수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성공적으로 기반을 닦은 그 친구는, 다시 돌아온 문태옥에게 “값지 않아도 되니 편하게 잘 쓰고, 꼭 값고 싶거든 나중에 돈 생기면 줘라.” 하고 마음을 써주었다. 문태옥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여러 물품을 거래하고 결제일도 꼭 지켰다. 친구가 빌려준 돈은 1년 동안 성실하게 나누어 갚았다. 다시 2년 정도 지나니 거래처도 늘어나고 예전에 했던 일이라 인지도가 있어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였다. 형편이 나아지자 2, 3명의 직원도 채용하였다. 문태옥의 부인도 경리 경력을 살려 대리점 일을 도왔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잃기도 하였다. 거래하는 슈퍼마켓에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외상으로 납품하고 월말에 결제하는데, 몇 달 동안 결제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계수표나 당좌수표를 써서 고의로 부도내고 파산 신청을 해서 사업자를 바꿔버리면 돈 받을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못 받은 돈이 2억 원이 넘는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세월은 흘러갔고 금전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만큼 되었다. 문태옥은 2006년



안양시 시민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한 석수2동 선수단(문태옥 제공)

에 시작한 대리점을 2023년 5월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인수한 사람의 부탁으로 문태옥의 부인은 지금도 대리점을 도와주고 있다. 문태옥은 자신이 사회에서 부침을 경험하는 동안,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고 가르친 부인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대학 졸업 후 각각 취업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자녀들이 흐뭇하고 자랑스럽다. 몇 년 전 아들 결혼식 때 그와 관계있는 다수의 유명 인사가 하객으로 참석해서, 가족한테 사회생활 잘하며 살았다고 인정받았다. 그걸 계기로 가족한테 그동안 빚졌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 같아 뿌듯하였다.

3) 지역을 위한 봉사

문태옥은 2006년에 석수동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007~2008년 단위 축구회장을 하였고, 10년 전부터 석수2동 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 회장직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명예직인데도 그는 봉사하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 석수2동 체육회 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2017년부터 안양시 동(洞)체육회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시민한마음체육대회 종목을 늘리는 등 여러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안양시민대상 체육 부문 대상을 받았다.

안양시는 매년 10월에 시민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경기 종목은 육상·여자 승부차기·축구·바구니 공·농구·한궁·술런(나무판 위에서 퍽을 홀에 넣어 점수를 내는 스포츠) 등 6~7개로 구성되어 있다. 석수2동에서는 이전 참가자들과 50~70대 연령층에서 주로 선수로 참가한다. 종목별 특기자 모집을 거쳐 선수단이 구성되면,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대식을 하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한다. 문태옥이 체육회장을 맡는 동안, 석수2동은 안양시 31개 동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매년 종합 1, 2위를 해서 트로피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한다.

문태옥은 석수2동 체육회장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경험이 많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동 신임 체육회장에게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준다. 예를 들면, 이어달리기할 때 바통 받는 방법이라든지, 저렴하게 유니폼을 구매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체육대회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비슷한 조건의 연습장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달리기 연습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종목별 경기 요령이나 물품 구매 요령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육대회에 참가할 선수가 부족한 경우 대처법이다. 이 경우, 통장협의회나 부녀회를 통해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을 문태옥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알려주었다.

문태옥은 2025년부터 석수2동 체육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석수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자기 계발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헬스·서예·댄스·기타·스마트폰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강좌는 분기 단위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위원 15명이 분기마다 개설되는 강좌의 수강 신청을 받는다.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한다. 문태옥은 매주 3, 4회 정도 그곳에 가서 봉사업무를 하고 있다.

석수2동 부녀회는 매년 300박스 정도의 김장 김치를 기초 수급자에게 나누어 주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후원금을 각출하여 과일·떡 등의 간식을 준비해서 김치와 함께 석



2024년 안양시 시민한마음체육대회에서 석수2동 선수단이 받은 트로피(문태옥 제공)

수2동의 13개 경로당에 제공한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고생하는 기초 수급자의 집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폭우나 폭설이 내리면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자원봉사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에 대비하거나 피해를 복구한다. 이때 봉사자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등 총괄 업무를 맡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는 하는 일이다.

매년 1월 1일에는 석수2동 사회단체가 모두 모여 떡국을 나눠 먹으면서 올해도 잘해보자고 ‘해돋이 행사’를 한다. 곧이어 정월 대보름에는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웃놀이 한마당’을 개최하는데, 대략 300명의 주민이 참여한다. ‘웃놀이 한마당’ 행사는 웃놀이·제기차기 등 세시풍속 놀이와 경품행사를 진행해야 하고, 대보름 음식도 만들어야 하므로 일이 많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부녀회·통장협의회 등 각 사회단체에서 5~7명을 지원받는다. 이들은 합심해서 음식 만들기, 경품 구성, 행사 참여 접수 등을 맡는다. 여러 단체의 지원금으로 경품과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행사를 총괄하여 진행하려면 신경 쓸 일이 많다. 문태옥은 주민자치위원장과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늘 바쁘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석수동에 대한 애향심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일한다.



석수2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2024년, 문태옥 제공)

4) 인생을 돌아보며

문태옥은 대리점을 매도한 후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 친한 친구가 하는 공익적인 일에도 드러나지 않게 지원하고 있다. 그의 유통업 경력을 알고서 신규 사업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준다. 유통업을 하려면 장소가 아주 중요하므로 성공할 만한 장소를 꼼꼼하게 빈틈이 없이 알아보고 확신이 서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도움을 준다. 감사의 표시로 받은 사례비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원하는 봉사를 하며 살고 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때에 따라서 살아온 삶이 후회되고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중 가장 후회되는 것은 미흡한 판단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돈을 잃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가족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줘서 아쉽고 미안하였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어서 힘든 일을 겪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문태옥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으며 그런 일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최선을 다해 일하면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경험에서 우려나온 진실한 삶의 교훈이다. 과거를 돌아켜보면 그에게 어려운 일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었고 실수를 방지하는 약이 되었다. 비록 우여곡절(迂餘曲折)을 많이 겪었어도 그런대로 괜찮은 삶이었다고 생각한다.

문태옥은 젊은 시절, 부모님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철없이 행동했던 자신을 나이가 들면서 절실히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지금 그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다닐 때 형이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고 그는 형에게도 기본 도리를 지키며 살고 있다.

인생 경험과 자신을 향한 성찰로 그는 점점 더 높이 날아가고 있다. 자칫 짐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의무를 그는 기쁘게 짊어지고 행복한 걸음을 가뿐하게 걷고 있다.

제3장

이주민의 안양 정착기

김선화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회원



1. 월남민 박영호

1) 월남 청년의 홀로서기

안양2동 서울 방면으로 시외버스정류장 뒤쪽 주택에 거주하는 박영호는, 함경도가 고향인 월남민이며 6·25전쟁 참전용사이다. 1932년 함경남도 안변군 안변면 학성리에서 태어난 박영호는 학성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 6·25전쟁이 일어났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복진하는 국군이 안변면에 들어왔을 때 박영호는 나이가 어린데도 치안요원이 되었다.

1950년 가을 타작할 때, 국군을 따라 동해안의 ‘알섬’으로 나왔다. 갈매기알이 많아 그렇게 불렀다는데. 국군은 알섬을 기지로 삼았던 것 같다. 박영호는 유격대가 되면 고향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유격대에 자원했고 알섬에서 고된 유격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새벽에 침투해 관공서 파괴, 교량 폭파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임무 수행 중 집에 들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박영호는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고향에 갈 것이라 믿었다. 부모님 뵈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것을 재볼 새도 없이 지시에 따랐다. 그러나 그것이 고향과의 마지막 이별길이 되고 말았다.

박영호는 이때까지는 비정규군이였다. 1950년 10월, 정규군으로 입대하여 하사관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가족이 모두 이북에 있다 보니 이남에서 의탁할 곳이 없어 군인의 길을 택한 것이다. 휴가를 나와도 갈 곳이 없던 박영호는 본인 몫의 화랑 담배를 모아 휴가 나가는 장병들에게 주며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했다. 그리움과 우수가 담긴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이다. 담배는 애초 피우지 않았단다. 고향을 찾아가는 병사들이 그



박영호·최귀순 부부

의 눈엔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 얼마나 부러웠을까. 단걸음에 부모님 계신 곳에 달려가 고픈 마음을 삭이며 담배를 건네는 그의 손길이 애잔하다.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전했을 화랑 담배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

하사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박영호는 학업을 이어갔다. 2년제였던 경기대학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 편입하여 법정대학 상학과를 졸업했다. 야간을 이용한 다소 버거운 학업이었지만 보람차고 재미있었다고 술회하는데 만면에 미소가 고였다.

2) 안양과의 인연

박영호는 1960년대 안양에 특무대장으로 파견되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안양과 인연을 맺었다. 안양유원지, 지금의 안양예술공원 근처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1934년생인 박영호의 부인은 당시 금성방직 의무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금성방직은 ‘대농단지’라고 하는, 현재 땡리단길 일대에 있던 커다란 방직회사이다. 지금의 국민은행은 금성방직 정문 자리에 들어선 것이다. 박영호의 부인은 금성방직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독학으로 준비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간호사가 되었다. 금성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간호사 국가고시 공고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여 ‘너스캡(nurse’s cap)’을 쓰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였다. 세월이 지났어도 그 무렵의 사진 한

장은 뜻을 이룬 사람의 아름다운 미소가 배어 흐르고 있었다.

지금은 안양예술공원으로 거듭났지만, 이전엔 청아한 물길이 흐르는 그곳을 안양유원지라 불렀다. 예부터 시인 묵객들이 경치 좋은 물가를 찾아 암반에 둘러앉아 술상을 펴고 시를 읊으며 낭만을 즐긴 풍광을 상상해 보아도 유원지라는 말이 멋스럽다. 현재 벽천광장 자리에 박영호의 집이 있었다. 그곳에 살면서 박영호는 여전히 군인으로 근무하였고, 그의 부인은 약방을 운영하였다. 집에 딸린 점포에서 하는 간이 약방 같은 것이었다. 유원지 동네에 살면서 안양2동의 현재 집을 장만하였다. 당시는 초가집이었는데 세를 놓았다가 건물을 새로 짓고 이사를 하였다.



금성방직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박영호의 부인 최귀순(박영호 제공)

안양에 정착해 오래 살아온 박영호를 통해 안양 일대의 변천사를 듣는 맛이 쏠쏠했다. 이는 산 증인의 육성이기에 더욱 값지게 와 닿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안양유원지의 50여 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인근의 학생들은 소풍을 그리로 갔고, 동네마다 소규모의 나들이 길도 그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물이 좋고 풍경이 좋아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던 유원지. 그 이름만으로도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말이다. 요즘엔 각종 예술품이 진열되고 이름도 새롭게 안양예술공원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원지라 일컬어지던 그 시절의 운치가 나름대로 멋이 있었다. 한껏 멋을 부린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적 휴양을 찾아 모여드는 곳 아니었던가.

3) 퇴직 후의 생활

박영호는 33년 동안 입었던 군복을 벗고 현역에서 은퇴하였다. 퇴역 후로는 안양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안양문화원이 안양2동에 있던 시절, 문화원과 가깝게 지냈다. 김정대 시인이 안양문화원장을 할 당시 배준석 시인 등과 함께 이사직을 맡아 주민을 위한 일에 열정적이었던 때가 참 보람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때만 해도 안양에서 점이 많지 않아 안양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박영호는 이 새마을문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이사가 16명이었고 이들이 뜻을 보태 십시일반 주머니를 털어 작은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 회장 시절 『안양저널』 제54호 표지에 실린 박영호 (안양시청 제공)

버스 1대를 사기에 이르렀다. 버스에 책을 그득 싣고 동네를 돌며 책을 빌려주는 일을 했다. 그러다가 시에 민원을 넣어 버스 1대가 늘어나 2대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였다. 책을 읽고 싶어도 맘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매년 청소년에게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사업도 벌였다. 그렇게 선정된 책은 또 학생 독후감 대회를 열어 우수작품은 시상하기도 했다. 참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었다. 책을 맘껏 읽고 좋은 독후감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히 기뻐한다.

하지만 박영호의 그러한 봉사활동을 부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라 했다. 평소 수입의 50%를 봉사에 쓴다는 신조로 살아가는데, 이를 군말 없이 협조해 준 아내가 고맙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마음은 있어도 실천이 어려운 일인데 몸소 실천해온 그 길이 기록해보였다. 그렇게 새마을문고 회장직을 20년 동안 하고 나니 1996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양시민대상을 수상했고,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등 감사패와 공로패가 쌓였다.

요즘엔 3남매가 주말마다 번갈아 와서 부모님을 챙긴다. 매사 주어진 여건에서 해결하며 살아와, 특별히 큰 고난 없이 살아온 것에 감사한다는 박영호의 철학이 귀감으로 들린다. 앞으로도 부부가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자녀들 모두 건강하고 무난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한다.

4) 이산가족 상봉

박영호의 슬하에는 3남매가 있다. 1962년생 장남 박신환, 1964년생 차남 박철환, 1969년생 딸 박진원. 그리고 손주도 여럿 두어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장남은 일찍이 행정고시에 합격해 고위공직자로 퇴직했는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행정고시 패스한 날이 무척 기뻐한다. 합격하기까지 명산 명사찰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다는데, 자식을 위한 정성이 묻어난다. 차남은 사업가로 외국을 오가며 무역상을 하고, 막내인 딸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중고생을 가르치고 있다. 환한 가족사진이 한 가정의 행복을 말해준다.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단신으로

월남한 박영호는 늘 고향의 가족을 그리워하였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아가는 사람들 가슴속엔 꿈결까지 그리움으로 일렁이리라. 박영호는 2007년 10월 10일~22일, 제17차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에 당첨되어 금강산에서 이복동생과 조카들을 만나는 행운을



제16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만난 북쪽의 가족



박영호의 가족사진(박영호 제공)

맛보았다. 무수한 세월이 흘렀으니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이복동생이 나와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그 자리에서 노모를 만났더라면 어떠했을까. 감정이 북받쳐 올라 주체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까까머리 고등학생 때 품을 떠난 자식과 어머니. 그들에게 시간은 멈추어 있지 않았다. 이복동생이 있는 사실도 몰랐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앞길에 해가 될까 자라는 동안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다.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이루어진 조사에서 이복동생이 있었음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 상봉장에서 조카를 만나 이미 돌아가신 어른들의 그간 생활도 듣고 소식을 나눌 수 있었다. 말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그 말 이면엔 쓸쓸함이 에둘고 있는 단어이다.

베푸는 성정으로 살아온 인품에서 은은히 배어나는 포근함이 다감하고 정겨웠다. 안양시에 거주하며 바람직한 봉사 활동으로 앞서 뿌리내려온 따뜻한 숨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지금처럼 맑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앞길을 유추해 본다. 많은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 봉사 정신을 기릴 것 같다.

2. 필리핀 이주여성 줄리타 마그폭

1) 사랑으로 선택한 한국 생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버스정류장으로 마중을 나갔다. 일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각으로 거리는 분주했다. 그들 중에서 한 여성이 먼저 알아보고 꾸벅 인사를 한다. 이어 한국말이 술술 튀어나왔다. 순간 필자는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안양3동에 거주하는 줄리타 마그폭(MAG poc JunTA, 이하 줄리타)은, 1974년 필리핀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농사를 짓고 8남매 중 다섯째로 오빠 셋에 언니 한 명을 두고 있다. 형제가 여럿이어서 모두가 공부하기는 어려웠는데, 줄리타만이 2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언니, 오빠, 형, 누이들이 집안의 경제를 짊어졌던 생활상이 우리나라의 1970~1980년대를 연상케 했다. 형제가 여럿일 경우 웬만한 경제력으로는 자식 교육을 감당키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지난날과 겹쳐진 것이다. 위의 형제들이 거친 가난을 막아주어야 아래 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는가.

줄리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남편을 만났다. 그녀의 남편은 1965년생 최성규이다. 일본 도쿄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남편이 필리핀에 놀러왔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나 교제가 시작되었다. 통일교 모임이 계기가 되어 연인으로 발전해 1년간 연애했는데, 필리핀·한국·일본을 오가며 사랑을 키웠단다. 남편의 자상함에 반해 결혼에 이르렀다.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조건을 보고 한국 남성과 결혼하



줄리타 마그폭

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 여성들이 적지 않은데, 그녀는 오로지 사랑을 택해 낯설고 물설은 한국에 발을 들였다.

고국을 떠나 남편의 나라로 올 때 갈등이 없었는지 묻자, 결심하기까지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줄리타가 사랑을 택해 한국으로 올 때는 부모님 반대가 심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큰 결심을 할 수 있게 힘을 준 사람이 큰오빠였다고. “네가 선택했으니 내가 가는 길을 믿는다.”는 이 말에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힘을 얻은 줄리타는 “내 인생이니가 왔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 눈빛이 영민하고 사랑스런 여성이었다. 어디에 내놔도 잘 살아갈 사람으로 비쳤다.

2) 안양3동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줄리타는 남편의 고향 전라남도 무안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남편의 직장이 서울 종로에 있어서 신혼부부는 주말부부로 살았다. 일본에서 8년, 중국에서 3년 동안 요리를 배우고 익힌 그녀의 남편은 실력을 인정받는 요리사이다. 워낙 성실하여 가족에게 정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그게 다 느껴졌다. 3개월을 주말부부로 살다가, 안양 3동 삼덕공원 근처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안양에 살면서 줄리타의 가족이 한 명씩 늘었다. 2005년 6월에 첫째 준현이가 태어났고, 2006년 9월에 둘째 지현이가 태어났고, 2007년 9월에 막내 소현이가 태어났다. 준현이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줄리타가 가장 기뻐던 때는 아이를 낳았을 때였다고 한다. 원래 5명의 자녀를 두고 싶었으나, 제왕절개로 산고를 치르며 힘이 들어서 3명으로 출산을 끝냈다. 줄리타는 자신의 3남매가 예쁘게 자라는 모습이 좋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들이 기특하다. 요즘처럼 아기 울음소리가 들지 않는 시대에 자녀 욕심이 많다는 점에서부터 “와우!” 탄성이 터졌다. 초혼 연령대가 높아지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골목에서조차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어보기 어려운 때에 다섯이라니. 말 설은 타국에 사랑하는 남편 하나 믿고 와서 자녀를 셋이나 낳아 교육시키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에 손을 잡아주고 싶었다. 자녀 셋을 길러낸 여인의 얼굴은 평온했다. 아름다웠다. ‘나 장해요.’하는 말을 품고 있는 듯 어엿했다.

안양에서 20년 정도 사는 동안 줄리타는 여느 한국 여성처럼 ‘아줌마’가 되었다. 돈은 자기가 벌어들 테니 아이들 잘 키우라는 남편 말을 따라서 살아온 삶에 만족하며 지



줄리타 마그폭 자녀들의 어린 시절(줄리타 마그폭 제공)

내고 있단다. 일과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일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기도 하다. 남편은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정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 덕분에 줄리타는 아이들 양육에 충실할 수 있었다. 맞벌이로 아이들을 키우려면 더 힘들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줄리타가 둘째 지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고향에 있는 큰오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큰오빠는 그녀가 사랑을 택해 떠나올 때 가장 지지해준 사람이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하는 바람에 회복 기간이 길었던 터라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장례식에 가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오빠에게 미안했다. 살았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볼 걸 하는 아쉬움만이 몰려왔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며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혈육 간에 이승에서의 마지막 줄 알면서도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서러움이 북받쳐 오른 것일까. 젖은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그 후로는 수시로 하늘에 있는 오빠에게 ‘나 잘 있다.’고 보고한다. 부모님은 살아계시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뵈러 필리핀에 간다. 하지만 국내처럼 왕래가 자유롭지 않은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3)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다

줄리타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대화가 단절되는 것이었다. 특히 시골인 무안에서 살 때는 말을 나눌 친구가 없었다. 음식도 안 맞고 문화도 너무 달라 친구가 없어 외로웠다. 그러다가 안양에 오자, 전입 신고를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해 한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처음엔 서툴고 낮가림도 있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덕에 순조로운 한국어 구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국적 사람들을 만나 친구도 생기고 즐거워졌다. 세 자녀와 함께 배우러 다니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이다.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정이 낯설지 않은 이즈음이다. 하여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혈혈단신 고국을 떠나와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는 점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안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살이에 도움을 받은 줄리타는, 자신이 받았던 것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며 살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물론이고 안양시청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그녀의 마음이 보배롭다. 특히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이웃의 독거노인을 도울 때도 보람이 있더라.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줄리타는 그간 도움을 준 안양시 다문



안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주민 대상 한국 문화 체험(201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201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줄리타 마그폭의 가족 (줄리타 마그폭 제공)

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앞으로는 함께 하는 이주 여성들과 호흡하며 앞서 자리 잡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도울 방법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필자가 바라본 마그폭은 봉사 정신과 감사가 몸에 밴 주부였다. 안양 시민으로 살면서 세 자녀를 키워낸 장한 어머니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앞으로의 인생을 꽃피워갈 그녀의 안양을 그려보는 것으로도 미소가 고인다.



이성우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

3. 안양반점 대표 이성우

1) 화교가 하는 짬뽕집

중국 음식점 ‘안양반점’을 찾아가던 날은 가로수 곱게 물드는 가을이었다. 안양문화원 앞 작은 도로 건너편의 조용한 동네는 중앙시장 방향으로 나지막한 주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필자는 멀거니 시간을 보내느니 뒤쪽 언덕바지를 내려가 중앙시장까지 걸어보았다. 현충탑이 있는 산언저리를 대폭 개발하여 거대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조경하는 손길들로 분주했다. 그곳과 대조적인 주택가 도로변에 안양반점이 있다.

드디어 ‘짬뽕’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힌 간판 아래 작은 가게 문이 열렸다. 나이

지긋한 여인과 의복을 정갈히 갖춘 젊은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70대 중반을 넘어서 어머니 허계숙과 50대 초반의 아들 이성우이다. 허계숙이 안양반점을 시작해서 운영하다가 아들이 이어받았다. 현재 안양반점 대표 이성우는 1973년생으로 중국에서 태어났고, 1977년생 여동생이 한 명 있다. 이성우는 연변대학교를 졸업한 후 어머니의 요청으로 한국에 건너오게 되었다.

허계숙은 1998년, 중국에서 딸과 함께 한국에 와 가리봉동에서 냉면집 주방장으로 요식업계에 발을 들였다. 허계숙의 부모는 함경북도 출신으로 허계숙은 중국에서 출생하였다. 허계숙의 남편은 경상북도 경주가 고향이라고 한다. 아마도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건너가 자리 잡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후손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사는 것이다. 그들의 언어는 우리말이어서 크게 낯설지 않았다. 허계숙은 말씨만 들으면 우리 이웃의 할머니같았다.

본국을 떠나 해외 각처로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해 살아가는 중국인을 '화교'라 한다. 애초엔 중국인 또는 대만인과 그 자손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근래에는 이보다 한정적인 뜻으로 쓰여, '외국에 사는 중국 국적의 소유자'를 지칭한다. 6·25전쟁 발발 직전에는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의 수가 남한보다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 통에 일부는 월남하고 또 일부는 중국이나 대만으로 돌아갔다. 하여 6·25전쟁 직후엔 우리나라의 화교 수가 줄었다가, 중국에 살던 친족이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늘어났다. 이성우의 가족은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로 들어온 화교인 셈이다.

2) 안양 정착 과정

이성우의 가족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와서 말을 익히고 한국 문화에 적응해 나갔다. 산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이성우는 등산길에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국의 문화를 익혔다고 한다. 도봉산·소요산·양양 낙산사 등 잘 알려진 곳을 돌아보며 낮은 땅에서의 외로움을 달랬다. 낙산사가 불로 소진되었을 때는 기와 불사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성우 : 이렇게 산을 좋아하다 보니 서울서 경기도 시흥까지 와서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정삼부에 올라 건너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도심을 지나는 전철을 보고, 이렇게 교통 좋은 곳이면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성우가 안양살이를 시작한 냉천동 전경(2017년, 안양시청 제공)

이성우의 안양살이는 10여 년 전 그렇게 시작되었다. 안양역을 지나는 전철에 마음 빼앗겨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한 것이다. 누구나 어느 지역 어느 자리에 기거하는가는 일시적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생각만으로 그칠 수도 있고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고뇌가 따를 수 있다. 그는 등산길에 바라다본 안양 땅을 가슴에 품어 이곳에 주저앉을 결심을 했으니, 어찌 보면 감성 장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금은 이성우가 주방을 담당하며 안양반점을 꾸려가는데, 처음에는 어머니 허계숙이 음식을 만들고 여동생이 어머니를 도우면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이성우가 서울에서 내려오게 되어 안양반점의 대표가 교체되었다. 이후 온 가족이 식당 운영에 동원되었다. 아내 리샤오칭(lixiaoqing)도 팔을 걷어 올리고 도왔는데, 막내가 아직 어려서 육아에 전념하느라 참여가 어렵다. 이성우는 나이 오십 넘어서 얻은 늦둥이 막내가 있다. 그는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한없이 순수해 보였다.



이성우



이성우의 막내딸(이성우 제공)

이성우 가족이 안양으로 내려와 살던 곳은 냉천동이다. 재개발로 지금처럼 아파트 숲이 되기 전의 냉천동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저층 아파트 등이 밀집한 서민 동네였다. 이 동네에 월세를 얻어 안양살이를 시작하였다. 명동의 '홍콩반점' 실장으로 5년간 근무하며 1호점과 2호점을 맡아 관리할 때는 서울 홍대 쪽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등산길에 마음이 움직여 안양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니, 공기가 맑고 삶의 정신적 여유도 찾을 수 있었다. 참 우연한 기회에 사업장을 옮기게 된 셈이다. 냉천동에서 4년 정도 살았는데 재개발 탓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초기엔 안양우체국 앞 큰길 건너의 남부시장을 이용했는데, 요즘엔 중앙시장이 편리해 이용한다. 물건도 풍부하고 거리상 가까운 덕도 보는 일석이조다.

한창 일이 힘들다 느낄 때면 주로 언덕바지 현충탑까지 오르내리면서 머리 식힐 겸 산책을 했다. 그가 말하는 시흥 방면에서 올랐다는 산은 수리산이고, 이쪽에서 틈날 때마다 오른다는 산도 수리산이다. 안양과 시흥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 수리산 능선인 까닭이다. 중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건너온 청년이 서울의 유명 요식업에서 자리를 잡고 실력을 발휘하다가, 산에 미처 돌아다니면서 안양을 점찍었다는 점이 매력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3) 가족과 더불어 미래를 꿈꾸다

이성우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먼저 와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중국에서 교육을 마친 청년으로서 한국에 와 적응해 가는 기간을 고독의 시간이더라고 고백했다. 외로움이 몰려올 때는 속을 툭 터놓을 친구가 없어 힘들었다고 한다.

이성우 : 타국에 와서 자리잡아 가는 동안 적적함이 가장 큰 외로움이고 힘든 부분이라고요. 이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타국에 와서 뿌리 내릴 때의 외로움이 얼마나 혹독했을까 짐작만 될 뿐이다. 그래서 그는 더 걸었고, 음식에 매진했으며, 맛있는 요리를 해내기에 몰입해갔다. 작은 음식점이지만 맛을 찾고 손님이 모여들 때 행복하다. 음식 만드는 사람은 차려낸 음식을 손님이 맛있게 먹을 때 그 이상의 보람이 없다. 이 기분은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이기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또 요리를 하고 계속 연구하여 맛을 찾아내게 한다.

이성우가 외로움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한 것은 역시 가족의 힘이였다. 첫아이를 키울 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자식 귀한 것을 잘 몰랐지만, 느지감치 둘째와 셋째가 태어나자 그 맛이 새롭다. 늦둥이 막내 들여다보는 맛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기쁨이 충만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무척 행복하고…. 특별하지 않은, 누구나 가정에서 누리는 평범함이며 행복일 테지만, 일상의 평범함이 곧 행복이라는 말로 들렸다.

이성우 부부는 딸 셋을 두고 있다. 첫째 딸 이정민은 17세로 현재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10년 이상 터울 지게 낳은 둘째 딸 이정은은 4세, 막내딸 이정아는 2023년생이다. 첫째 딸은 중국에 잘 적응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기에 한국에 오지 않는다고. 세 딸은 이성우가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맑은 모습의 딸들 사진을 보여주는 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성우의 아버지는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이를 낳아 기르며 아버지 자리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이성우는 얼마 전 경주에 다녀왔단다. 경주는 이성우의 아버지가 고향이다. 외조부모님의 고향은 북한에 있어서 한국 국적의 이성우는 갈 수가 없다. 뿌리와 은연중 닿아 있는 것일까. 할머니가 살았다는 경주에 다녀오음으로써 그는 이 땅에 새겨진 조상의 족적을 흡수하고 있음을 느꼈다. 중국에서 대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조부모님의 흔적이 그와 대화를 나누는 내내 살



이성우의 가족사진(이성우 제공) 부인과 둘째 딸, 막내딸이다.



주방에서 일하는 이성우의 모습(이성우 제공)



중국에서 공부하는 이성우의 큰딸(이성우 제공)

짜살짜 얼비쳤다.

이성우 : 가게 하나 큰 것 장만하는 것이 꿈입니다. 어머니, 동생, 아내 가족이 다 모여 일할 수 있는 명 업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랄까 바람이기도 한데, 장소가 좀 더 넓어져서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더 많은 손님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앞으로 할 일이지요.

정성껏 만든 좋은 음식을 더 많은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을 우선적 꿈으로 꼽는 한 요식업자의 소박하고도 보편적인 소망을 함께 응원해본다. 현재 안양반점의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 보니 나온 말이기도 하다. 한 사람으로서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런 희망이 없다면 어디서 힘을 얻으랴. 이성우가 안양에서 반드시 꿈을 이루어 안양반점이 큰 식당으로 거듭나길 바라게 된다.

제4장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다

김은진 시인, 안양문인협회 회원



1. 안양문화원 서포터즈 박민선

충청남도 청양이 고향인 박민선은 초등학교 때부터 안양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연이어 안양에서 취직하면서 농사일을 그만두고 올라오셨다. 그녀의 가족은 안양3동에 자리 잡았다.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녀는 든든한 오빠들 밑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랐다.

1) 안양5동 방 딸린 가게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박민선은 부모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1987년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생활은 시흥군 군포읍 금정리(현 군포시 금정동)에서 전셋집으로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첫째 딸을 낳았고, 안양6동으로 이사한 후 둘째 딸을 낳았다. 두 딸이 태어나자 박민선 부부는 행복하였다. 아이들은 순했고 스스로 밥도 먹고 잠자리도 정리하였다. 전업주부로 두 딸을 키우면서 가게에 도움 되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박민선은 남편에게는 공장에서 물건을 싸게 가져와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도매업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1991년 안양5동에 방 딸린 가게를 얻었다. 1990년대는 안쪽으로 부엌 딸린 방이 있는 형태의 가게가 많았다. 장사와 살림을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구조였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물건을 가져오려면 담보가 필요했는데, 건물주의 도움으로 물건을 가져와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가족이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분이라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한다. 가진 것 없는 젊은 부부를 뭘 믿고 덱석 담보를 서주었는지 이제



박민선 부부가 '대상전기조명'을 차렸던 건물. 현재 커피전문점이 들어와 있다.

는 만날 수 없지만 가끔 궁금해지기도 한다.

‘대상전기조명’이란 상호는 그녀의 남편이 지었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어서 그녀도 마음에 들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는 수줍기도 하고 경험도 없어서 인맥으로 찾아오는 이를 상대로 도매업을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도매업은 어려움이 많았다. 물건을 다량으로 확보해야 하니 목돈이 들어가지도 했고, 도매로 장사를 하다 보니 거래처에 싸게 물건을 팔아야 하고 세무조사도 받는 등 난관이 많았다.

전기와 조명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게 된 건 그 무렵이었다. 박민선은 두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안양5동 어린이놀이터 앞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13평 되는 가게에 선반을 짜서 아래에는 전선들을 배치하고 위쪽에는 등을 진열해 놓고 불을 켜놓으니 동네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골목이 밝아져서 좋다고 하셨다. 예쁜 탁상용 스탠드의 불을 켜 놓으면 딸들이 좋아했고 겨울철에는 달궈진 갖등에 언 손을 올려 녹이곤 하였다.

오전 7시에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나가면, 가게 앞에 트럭을 세워 놓고 인부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빌라나 건물에 전기공사를 하러 가는 작업자들이었다. 당시 한



박민선의 두 딸이 놀았던 안양5동 어린이놀이터(2007년 촬영)

건물에 적게는 8가구 많게는 20가구가 있어서 전등·전선·콘센트 등 전기제품이 한꺼번에 많이 나갔다. 물건을 챙겨주고 나서 아침상을 차려 놓으면 두 딸이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곱게 빗은 머리를 찰랑이며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 속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그렇게 안양5동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셋째 딸을 출산하게 되었다. 박민선이 가게 일을 하며 아기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두 딸 덕분이었다. 첫째와 둘째는 학교에 다녀오면 인사도 잊은 채 아기 보러 방으로 달려가곤 했다. 학교와 학원도 잘 다니고 동생도 돌보며 가게 일을 하는 엄마만큼 바쁘게 살았다고 한다.

막내는 어릴 때는 가게에서 놀다가 걷기 시작하면서 바로 앞 안양5동 놀이터에서 놀았다. 놀이터에서는 가게가 보였다. 처음에는 가게 문을 슬쩍 닫아 놓고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나갔다. 그러다가 아이가 좀 커서 혼자 놀 수 있게 되면서부터 가게 문을 흔들고 기웃거리는 손님이 오면 아이에게 잠깐 혼자 있으라 말하고 가게에 다녀오곤 하였다.

아이가 3세쯤이었을 때 박민선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다. 어느 날 한참을 손님에게 물건을 보여주면서 팔고 왔더니 놀이터에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 놀란 박민

선은 가게 문도 열어 놓고 이리저리 아이를 찾아다녔다. 그때 이웃들이 함께 아이를 찾아다녔는데 몇 시간 후 인근 벽산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왔다. 놀이터에서 벽산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어울려 놀다가 집으로 가는 그 아이들을 따라간 것이었다. 그렇게 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닌 적이 여러 번이었고 다행히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찾아 주었다.

가게가 놀이터 앞이다 보니 그녀의 아이들이 좋아하였다. 놀이터에 나가기도 가깝고,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바로 앞에 엄마가 하는 가게가 있으니 든든했던 모양이다.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놀이터가 가까운 가게 위치가 한몫하였다.

2) 안양5동 상가 건물을 사다

1996년, 박민선은 군포시의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 딸이 크면서 가겟방은 다섯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아파트로 이사해서 넓은 집에 살게 되니 좋았다. 그러나 방을 나서면 바로 일터였는데, 군포에서 안양5동의 가게로 출퇴근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가게 임대료도 계속 내야 해서 차라리 상가 건물을 사서 가게와 살림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면 목돈이 필요했기에 자금 마련을 고민하던 차에, 박민선과 공동명의로 평촌에 땅을 매입한 친구가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평촌에 사둔 땅은 공동명의로 크기도 작아서 팔기도 관리하기도 어려우니, 친구가 그녀의 군포 아파트를 갖고, 평촌의 땅은 박민선 단독명의로 하자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평촌의 땅을 팔고 상가를 사려고 알아봤다. 마침 가게에서 가까운 곳에 매물로 나온 건물이 있었다. 하지만 건물은 5층이나 되었고 코너 자리라 가격이 높았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마음을 접었는데, 자주 거래하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가게를 하면서 매일 현금을 입금하느라 오고 가던 은행이었다. 인사하며 낯을 익혀둔 게 큰 도움이 됐고 이런 게 인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박민선은 근명여자중학교 근처의 5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대출을 많이 받아 인수한 건물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다시 열심히 장사를 해야 했다. 조명기구는 빌라 건축 붐이 일면서 장사가 더 잘 되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IMF 외환위기 때도 조명기구 판매는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부도 위험 때문에 어음이 사라지면서 현금으로 거래하게 되어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그전



박민선 부부가 매입한 안양6동 상가 건물

까지는 물건 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것이 관행이라, 나중에 부도나서 못 받거나 파산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이 고되긴 했지만, 소매도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갔고 전기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입소문도 나면서 박민선의 가게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3) 새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인생 2막

박민선의 상가 건물이 있는 안양5동은 변화가였다. 유동 인구가 많아 장사하기에는 좋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아이들도 크고 매장을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2008년에 안양5동의 건물을 팔고 안양6동의 5층 건물을 사서 자리를 옮겼다. 안양6동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곳이고 첫째와 둘째 아이를 키운 곳이라서 추억이 많았다. 아이들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지 좋아하였다. 가게도 넓어서 조명을 더 많이 진열해 놓고 밝힐 수 있었다.

다시 돌아온 안양6동은 안양5동에 비해 조금 외진 곳이다. 가게를 옮긴 덕에 재건축을 앞둔 안양1동 진흥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수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2024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박민선 부부와 막내딸의 새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박민선은 얼마 전에 가게를 정리하고 세를 주었다.

박민선 : 이전 이곳에서 오래 살 생각이예요. 가게도 이제 다른 분에게 넘겼어요. 자식들이 이어서 하려고도 했지만 내가 말렸어요. 여자가 하기에는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아서요. 전선도 무겁고 등도 무거워요.

요즘엔 고된 일은 돈이 되더라도 자식에게 물려주려 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인가 보다.

박민선은 사업하랴, 아이들 키우랴 바쁘게 젊은 시절을 보냈고,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상가 건물을 인수하였다. 현업에서 은퇴한 후 편안히 지낼 보금자리로 새 아파트도 준비됐다. 박민선의 관심은 이제 자기 계발로 옮겨진 듯하다. 우연한 계기로 안양문화원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안양문화원에서 매년 진행하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정조대왕 능행차, 안양만안문화제 등의 행사 진행을 돕고 있다.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니 보람 있고 전생애 안양에서 살았던 것처럼 친숙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2022년 정조대왕 능행차 안양 구간에서 혜경궁 홍씨 역할을 맡은 것이다. 혜경궁 홍씨 역할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분장을 하고 가마를 타고 따라갔는데 세 딸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축하해줘 더 기뻐다.





정조대왕 능행차 안양 구간에서 혜경궁 홍씨로 참여한 박민선(2022년, 박민선 제공)

안양 적십자 봉사회에서 반찬 만들기 봉사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박민선은 만안 평생학습센터를 찾는다. 오전에는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는 그 반찬을 취약 계층에게 직접 전달한다.

박민선 : 처음에 방 한 칸 셋집에서 시작해서 아이들 잘 키우고 이곳에 러를 잡게 되었으니 늘 주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쉽 없이 살아온 청춘은 다시 나눔을 위해서 바쁘게 뛰다.

2. 자영업으로 내 집 마련한 정연태

정연태는 안양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 1단지 상가에서 소문난 맛집 두 곳을 운영하며 내 집 마련에도 성공하였다. 남들이 힘들다는 자영업도, 내 집 마련도 모두 성공한 그의 스토리를 따라가 보자.

2016년 10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에 위치한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에 4천2백여 세대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였다. 안양천을 따라 길게 배열된 이 단지는 안양역과 명학역 중간에 위치한다.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이사 진급을 앞두고 있던 정연태는 이곳에 치킨집을 개업했다. 그리고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위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아내와 함께 이사하였다.

1) 마케팅부서 부장이 치킨집을 열다

정연태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대기업 온라인마케팅 부서에서 20년 가까이 일했고 하는 일도 적성에 맞았다. 그의 주요 업무는 사업주가 광고를 의뢰하면 인터넷에 올리고 제품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었다. 그의 마케팅 전략은 광고 노출 수와 조회 수, 구매 건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전공인 프로그래밍을 접목하여 구매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정연태의 강점이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던 터라 고객 응대는 재미있는 일이었고 회사 생활은 보람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조직 특성상 진급에 한계가 있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뭘 할까 고민하게 되는데 정연태도 가끔 자영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한다. 마음은 있지만, 가장이 된 이상 선부른 도전보다는 안정된 수입을 우선 고려해야 했다. 그런 이유로 사업 구상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서랍 속에서 잠들기 마련이었다.

사업의 꿈만 가지고 있던 그는 고객으로 만난 H사장과 인연으로 꿈을 실현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가 마케팅 총괄 업무를 책임지고 있을 때의 일이다. 보통 고객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그를 고급 술집이나 호화로운 음식점에서 접대했는데 H사장은 꼭 치킨집을 데리고 갔다. 그것도 큰 곳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장통의 허름한 곳도 가고 신생 브랜드가 입점한 곳도 다니며 자신은 세상에서 치킨이 제일 좋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로 스타일이 잘 맞아서 몇 번의 만남이 어느덧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이어졌다.



정연태가 운영하는 치킨집

그러던 어느 날 H사장이 말했다.

H사장 : 나 치킨 프랜차이즈를 낼 생각이예요.

늘 치킨만 먹고 다니던 사람이라 치킨집을 낼 거라 짐작했지만 프랜차이즈를 직접 만든다니 깜짝 놀랐다.

정연태 : 지금 치킨은 레드오션이예요. 이렇게 업체가 많은데 어떻게 성공하려구요? 1년을 못 버티고 파산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가 얘기하니 H사장은 말했다.

H사장 :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많은 거죠. 그리고 결국 계속 찾으니까 괜찮은 사업이 되는 거죠. 새로운 트렌드를 정착시킬 거예요. 대중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정량만 정성껏 만들어서 재고 없이 장사를 하는 전략이예요.

자영업 경험은 없지만, 마케팅 업무를 통해 익혀온 시장에 대한 감각은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고 손실 없이 오래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다. 결국 직장을 다니면서 일단 시작하자는 쪽으로 바뀌었다.

브랜드의 특성상 정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틈틈이 아내가 일을 도왔다. 신혼집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살필 수 있었고 매장 업무는 시간제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였다. 매장 운영을 시작할 때 홍보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본사에서 지원 촬영을 와서 홍보해 주었다. 또 마케팅 회사 동료들이 인터넷 광고에 도움을 주었다.

2) 열심히 장사에 전념하다

치킨집을 개업하고 얼마간은 정연태의 아내가 주로 매장을 관리했고 정연태는 직장에 다녔다. 그러나 매출이 점점 늘어서 아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정연태는 드디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매장 업무에 매달리면서 메뉴도 다양화시키고 서비스의 질도 더 높였다.

정연태는 장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한다. 그 시작은 어쩌면 아내와 만남에서부터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군대 제대 후 안양1번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복학을 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몇 달 동안 호프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매장 일이 재미있었다고 한다. 저녁이 다가오면 음식점에 불이 켜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테이블을 채웠다. 주방에서 준비한 음식이 차례로 나오고 그는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다가갔다. 그런 모습이 세상이 순환되는 것처럼 편안하고 정감있게 느껴졌다고 한다.

안양1번가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그는 아내를 만났다. 같은 건물 카페에서 일하던 그녀와 오며 가며 계단에서 마주치다가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부부가 되었다.

처음 매장을 시작했을 때, 열심히 하되 욕심은 부리지 말자 생각했다.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활기가 그를 더 밝게 만들면 되는 거라 여겼다. 그러나 사표를 던지며 정연태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장사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정연태

그의 경영 철학이다. 그는 우선 현재 매장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매장이 협소해서 배달 위주로 장사를 했지만, 매장 안에서 드시고 싶어 하는 손님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했다. 안양시에 여러 번 문의하고 같은 건물 임대인들의 동의를 구하였다. 허가는 쉽지 않았지만 그는 범계역 인근 상인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허가를 유도했다고 한다. 다행히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매장에 직원들에게 메뉴 조리법을 익히게 해서 늘 한결같은 맛이 나도록 교육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였다. 이런 일들은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일 체크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그는 알았다.

아내도 있고 아이도 태어나고 목숨 걸고 일해도 그는 즐거웠다. 노력에 대한 보상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치킨집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본사에서도 인정하는 매출 높은 영업점이 되었다.



정연태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

3) 재미있고 맛있는 떡볶이는 어때?

정연태는 첫 번째 매장이 성공하자 소규모의 매장을 하나 더 준비하였다. 상가 주변에 학원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분식집을 창업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성공했지만 두 번째도 성공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 염려했지만, 정연태에게는 열심히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분식집은 치킨집에 비해 판매단가가 크진 않아도, 손님으로 찾아오는 이웃이나 아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장사는 매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연태는 특별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해 보고 싶었다. 고민을 하던 중 치킨집 바로 앞에서 영업하던 핸드폰 가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대로변이고 건물의 코너 자리였다. 접근성이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권리금이 없는 점포여서 그곳을 계약했다.

2021년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 1단지 상가에 떡볶이 맛집이 생겼다. 가게는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예쁜 간판은 분식집이 아니라 소녀들이 좋아하

는 선물 가게를 연상시켰다. 코로나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떡볶이집이 인기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 매장에는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옹기종기 몰려들었다. 요식업은 메뉴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장조사를 하고 어떻게 특화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정연태의 생각이다.

요즘 월급으로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대다. 전에는 취업이 어려워서 자영업을 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창업을 하는 이들도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편하지만 진정한 만족감은 없고 자영업은 평생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어서 성취감이 크다고 한다.

4) 안양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다

정연태의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이다. 6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안양으로 전학 오게 되어 관양중학교에 진학하였다. 그 후 계속 안양에서 살았다. 그는 안양에 살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교통이 편해서 대학도 직장도 본가에서 다녔고 문화시설도 부족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아내를 안양1번가에서 만났고 데이트도 주로 안양에서 했다. 신혼집을 마련할 때 정연태는 회사 근처에 알아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추억이 많은 안양에서 살면 어떠냐고 제안하였고 결국 평촌 셋별아파트에 전셋집을 얻었다. 좀 더 넓은 아파트 전세로 갈아타서 살다가 안양7동 덕천마을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때 전세를 구해서 이사하였다.

가게 운영이 순조로워지면서 정연태의 아내는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에 정착하고 싶어 했다. 아이가 유치원도 이곳에서 다니고 학교도 들어가게 되니 아파트를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 역시 그동안 두 곳의 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좋은 결실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정연태는 집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생각이 없었다. 사업 성공이 우선이지 내 집 마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서 가족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도 기분이 좋았다. 좋은 결실을 얻게 되어 감사하지만, 그는 집을 산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 요행히 아파트값이 올라 돈을 벌기보다는 노력과 도전을 통해 인생의 길을 찾자는 것이 정연태의 신념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힘든 코로나 시기를 뚫고 두 곳의 매장을 성공시킨 저력이다.



래미안메가트리아아파트

안양 냉천지구 아파트 건설(202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3. 중앙시장 떡집 사장님 박일영

박일영은 중앙시장 상인 중에 젊은 층에 속한다. 그는 떡집을 운영하며 얼마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선호하는 지역에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한 비법이 궁금하다.

젊은 층에서 내 집 마련은 큰 의미를 지닌다. 세상이 내미는 희망의 손길을 잡은 것 같고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느낌이다. 일단 집이 있으면 계속 세를 내거나 올려주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지를 계속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한다.

어려운 내 집 마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일일 것이다. 아파트 청약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은 상상 초월이다. 오죽하면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자금도 있어야 하고 자격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 위치도 현재 나의 생활과 맞아야 한다.

안양중앙시장 '다을떡집' 사장 박일영은 202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2025년 2월 안양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다. 떡집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다. 박일영은 생활권 안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더 기쁘다고 한다.

1) 새벽 5시, 시장 안에 피어오르는 삶의 활기 그리고 떡집

아직 캄캄한 새벽, 방문한 시장에는 제법 문 연 가게들이 있었다. 바로 음식을 파는 곳이다. 상인들이 주로 식사하는 국밥집과 해장국집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가게 밖에 놓인 커다란 솥에서 퍼져 나오는 구수한 음식 냄새가 시장 안에 퍼졌다. 반찬 가게나 김밥집에서 들려오는 그릇들이 달그닥 부딪치는 소리가 종소리처럼 퍼져 아직 잠든 몸을 깨웠다. 떡집은 2001아울렛 맞은편 중앙시장 남문 옆에 위치한다. 시장 골목을 지나 떡집에 들어서니 쌀가루 빵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박일영이 가게로 출근하는 시간은 새벽 5시이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에 담가 놓은 쌀을 채에 건지고 물기를 빼는 일이다. 물기가 빠지면 기계에 넣고 빵아 가루로 만든다. 쌀가루가 다 빵아지면 제일 먼저 절편을 만들고 가래떡을 뽑기 시작한다. 빵아 놓은 쌀가루로 만들 떡은 대략 50가지이다. 직원들은 새벽부터 3교대로 출근한다. 새벽에 나오는 직원과 박일영이 같이 떡을 만들기 시작한다.

겨울철 가장 많이 팔리는 가래떡과 시루떡이다. 시루떡과 송편은 행사에 많이 쓰이



박일영이 운영하는 떡집

고, 설날에는 가래떡이, 추석에는 송편이 특수를 누린다.

이곳에 떡집이 생긴 건 대략 25년 전이다. 처음 떡집을 연 사람은 박일영의 장인이 다. 장인은 원래 금은세공업을 했는데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셨고 우연한 계기에 떡집을 하게 되었다. 손맛이 좋아 곧 중앙시장에서 맛있다는 소문이 났고 20년간 장사하다가 사위인 그에게 2019년 떡집을 인계하였다.

2) 두 살 아래 아내와 만남... 안양에서 결혼

박일영의 고향은 전라남도 해남이다. 학창 시절엔 인천에서 살았고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31살이 되던 해, 두 살 아래인 아내를 온라인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났다. 온라인에서 주로 소통했지만, 가끔 오프라인 모임도 하였다. 아내와 그는 나이가 비슷해서 금세 친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모임에서 활발하게 대화를 이끌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아내가 재미있고 편했다고 한다.



박일영

서로에게 호감을 보인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주 만나고 싶었지만, 박일영은 야근과 철야가 많은 토목 엔지니어였기에 시간만 되면 무조건 아내에게 연락하고 안양으로 내려왔다. 데이트 장소는 주로 안양1번가였다. 당시 안양1번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가성비 좋은 음식점이 많았다. 안양1번가를 돌아다니다가 조금 벗어나고 싶으면 안양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거나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구경하기도 하였다.

아내에 주말에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토목 엔지니어의 사정을 알지 못해서 약속 시간에 늦거나 데이트를 취소하는 상황이 오면 많이 서운해했다. 그래서 박일영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 프리포즈를 하였다. 아직 결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워낙 컸다고 한다.

박일영은 서안양우체국사거리에 있었던 포시즌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생활은 중앙시장 인근 벽산아파트에서 시작했다. 아내는 중앙시장에서 일하시는 친정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었다. 일손이 바쁠 땐 돕기도 하고 말벗도 되어 드렸다.

2012년에 큰아이가 태어나고 연이어 둘째도 태어났다. 아이들은 예쁘고 순했다. 신혼집을 처가댁 가까이 얻길 잘했다고 생각한 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였다. 힘든 육아를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야근하느라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어도 아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3) 토목 엔지니어지만 이어지는 야근에... 떡집 운영

박일영은 토목 엔지니어였다. 주로 배나 요트가 정박하는 마리나항 실시설계를 했다. 항만설계는 대학 선배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설계는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고 자기계발 시간이 없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전공을 살리고 싶었기에 선배가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다. 근무 여건이나 대우가 점점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하였다.

항만설계는 설계 규모가 크고 대형 건설사에서 경쟁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려 했기 때문에 각계의 분야가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는 합동사무실이 차려진다. 박일영이 속한 팀이 주축이 되어 항만설계를 맡고 도시건설, 건축, 수자원, 해양, 구조, 교통, 조경, 전기, 기계 등 분야에서 설계한 것을 모두 취합하였다. 그는 항만설계팀 과장으로 항상 늦게까지 일을 했다. 업무는 힘들고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지만, 전공을 살리는 일이었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았기에 열심히 하였다. 설계도서가 완성되면 보람도 있었다.

그렇게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마감일을 한 달여 남겨두고 설계가 되었다. 설계변경은 주로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낮추거나 경쟁입찰에서 성공하기 위해 변경하는데 몇 달 동안 일한 걸 한 달 만에 바꾸려고 하니 일이 무척 많았다. 거의 한 달 동안 잠깐 집에 들러 옷만 갈아입고 오는 정도로 지냈다. 한 달 후 일이 끝나고 집으로 복귀했을 때 아내가 말했다.

자기야, 나 혼자 아이 키우는 것 같아. 가족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아이들도 아빠 찾는데...

아내는 말하다 말고 눈물을 흘렸다. 박일영에게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했다. 자신을 꼭 닮은 첫째와 아내를 속 빼다 박은 둘째를 보면 인생이 신비 그 자체였다. 그동안 너무 자신의 꿈만 좇으며 산 건 아닐까 후회도 됐다.

그는 퇴사를 결심하고 회사에 통보하였지만, 회사에서는 당장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니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였다. 그렇게 다시 일 년을 더 일하다가 가족과 함께 보내

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결국 사표를 냈다. 며칠 뒤 장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셨다. 그는 그렇게 다올떡집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4) 중앙시장으로 모인 젊은 사람들

안양중앙시장은 안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이다. 1961년 개설된 시장에는 1,000여 개가 넘는 점포가 들어서 있다. 시장에는 오랫동안 장사하신 분도 계시지만, 젊은 층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

박일영은 중앙시장에서 젊은 사장으로 통한다. 노령의 상인이 많기 때문에 40대인 그는 아직 청년으로 여겨진다. 정기적



중앙시장 출입구 근처의 다올떡집 앞은 항상 분주하다.

으로 열리는 상인회 회의를 통해 시장의 상황과 일정을 알 수 있다.

전통시장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상인회에서 행사나 이벤트를 기획하는데 그는 주로 주차권 관리 등의 업무를 돕는다. 최근 삼덕공원에 주차장이 생겨 주차권 가격이 내렸다고 한다. 예전에는 손님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해야 주던 주차권을 원하면 제공할 수 있어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중앙시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같은 업종의 떡집 사장들이다. 나이도 비슷하고 얘기도 잘 통하여 자주 만나고 식자재 구매 등을 의논하기도 한다.

떡 만드는 일은 몸을 쓰는 일이라 고되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별로 없다고 한다. 떡이 완성되면 사방으로 번지는 달콤하고 푸짐한 냄새가 좋다고 한다. 떡은 쌀로 빚기 때문에 쌀도 무겁고 떡도 무거워서 떡집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원래 학생 때 농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일은 적성에 맞았다.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 계산이 빨라야 하는데 박일영은 설계 일을 해왔던 터라 계산이 빨랐다. 장인도 그런 면을 좋



비산동 평촌자이퍼스니트아파트 건본주택(2024년)

게 보셨다. 본격적으로 떡집을 인계받기 전부터 명절 때나 주문이 많이 들어올 때 일을 도와왔다. 그래서 장인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에게 떡집 운영을 전부 맡기셨다.

5) 분양으로 내 집 마련

아내는 결혼 후 기회 될 때마다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다. 하지만 매번 탈락했다. 아내가 속상한 마음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면 좋겠다고 했지만, 박일영은 새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면서 청약을 더 신청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2020년에 덕천마을의 래미안메가트리아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다. 아파트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아이들도 이사하는 걸 좋아했다. 벽산아파트가 떡집에서 가깝긴 하지만 초등학교는 통학하기 먼 거리여서 내린 결정이었다. 막상 이사를 결정하고 보니 새 아파트라 좋았지만 떡집과 멀어서 출퇴근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계속해서 분양 공고를 살펴보고 도전하던 중 만안구 냉천지구 분양 공고가 났다. 박일영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그리고 가족 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분양을 받는 것이 유리하였다.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했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공공분양을 시도해 보아도 좋다고 한다.

냉천지구는 위치가 좋았지만 그동안 번번이 청약에서 떨어진 터라 이번에도 안 되겠지 생각하고 기대 없이 도전했는데, 드디어 행운이 날아들었다. 좋은 예감도 없었는데 덜컥 당첨된 것이다. 그래서 당첨 발표를 보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였다. 주위에선 다들 돼지꿈이라도 꾸 거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다. 아내는 꿈만 같다고 무척 좋아했고,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박일영은 든든한 울타리가 생겨 좋았고 오랜 기다림에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청약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 박일영은 아파트 분양에 대해 잘 안다. 게다가 토목설계 업무를 오랫동안 해서 각 지역의 기반시설과 교통 여건 등에 해박하다. 아파트 분양에 관한 그의 조언을 들어보자.

분양은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으로 나뉜다. 공공 분양은 나라에서 계획하는 사업,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그 외의 공공기관에서 주관한다.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정보를 많이 공개하는 것이 장점이다. 공공 분양은 주요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방 자치 단체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공급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위치나 정책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에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특별 공급 대상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민간 분양은 상업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대형 건설사에서 참여하는 사업이고 분양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위치가 좋고 내장재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 당첨될 확률이 낮다.

박일영은 민간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꼭 분양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공급이 적은 타입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적중하였다. 본가와 처가의 어른들도 매우 좋아하시고, 박일영도 이제 가정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선 듯 기쁘다고 한다.

떡집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매일 일을 마치고 밤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거기에 아내의 손맛까지 더해져 가게는 장인이 할 때보다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있다. 힘든 시간에 늘 응원해 준 가족을 위해 박일영은 따끈따끈한 떡을 오늘도 열심히 만들고 있다. 떡집의 주요 고객은 안양시 거주자들이지만, 먹어보고서 맛있다고 지방에서도 주문한다. 그는 앞으로 더 다양한 종류의 떡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전통시장에서 일하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부지런하기도 해야 하지만 인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모두 다 '다올떡집'으로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박일영이 중앙시장의 큰 일꾼이다. 듄직함과 성실함으로 앞으로도 안양 전통시장을 지키며 가족들과 행복하길 응원한다.

04

안양 사람들의 생애주기별 생활세계

- 제1장 아동기의 생활세계
- 제2장 청소년기의 생활세계
- 제3장 청년기의 생활세계
- 제4장 노년기의 생활세계



제1장

아동기의 생활세계

김재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인간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생애 주기에서 아동기의 경험은 앞으로 펼쳐질 삶의 경로에서 출발점이 된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사회의 주역으로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저출생이 심각해진 국면에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었다.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아동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다양한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 소개 및 안양 지역 아동의 일상을 통해 아동의 현재 생활을 엿보고자 한다.¹

1. 안양시 아동 정책 :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현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기반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도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의견을 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차별 없이 안전하게 자라고, 놀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이다.²

우리나라는 2013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서울 성북구가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이다. 안양시는 2016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안양시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은 2023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³ 일부를 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24년 준비 과정을 거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아동친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안양시와 유관기관의 업무협약식(202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도시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아동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10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아동 권리 전담 기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 체계, 아동 권리 독립 기구,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 권리 현황 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아동 영향평가,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다.⁴

안양시는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연구용역, 아동 권리 교육, 실무추진단 구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은 1단계 아동친화도 조사 → 2단계 시민 의견 수렴 → 3단계 조성 전략 수립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아동 권리 인식 제고를 위한 아동 권리 교육은 시의원, 공무원, 아동 관련 종사자, 학부모,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 정책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은 아동 권리 6대 영역, 즉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 환경, 가정생활별 아동 관련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운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준비하였다.

안양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안양 구현’을 비전으

로 제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방향을 수립하였다. 추진 방향은 아동의 4대 권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아동의 의견 표현 및 존중받을 권리, 아동의 지역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아동 친화적 공간 마련 및 놀 권리, 아동의 안전한 환경 누릴 권리’로 구성하고 있다.⁵

2. 안양시 아동 돌봄 시설

2000년대 이후 ‘저출생’이라는 사회 현상은 아동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출생률 감소 해결 방안으로 돌봄이 주요한 정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돌봄의 1차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니 전적으로 도맡아야 하는 사적영역이라는 인식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보는 공적 책무의 영역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졌다. 아동 정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국가 기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책 방향은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강화⁶하는 돌봄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며 온 사회가 아동 돌봄을 함께 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안양시의 아동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 복지 시설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 및 건강한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보호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초등 돌봄 시설이다.

교육청이 운영하던 초등 돌봄교실은 2024년부터 늘봄학교로 전환되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의 장점을 결합하여 포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돌봄교실과 달리 늘봄학교는 모든 초등학생이 대상이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행복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회 안양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당(201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제1회 안양 지역아동센터 연합 한마당(201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초 생활 수급 대상과 차상위 계층 아동,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아동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 3월 현재 안양시에서는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은 <표 1>과 같다.⁷

<표 1>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2025.3.31. 현재
기관명	소재지	정원(명)
안민희망동지역아동센터	만안구 양화로105번길, 33(박달동, 안민교회)	44
꿈터지역아동센터	만안구 예술공원로 76(안양2동, 새안양교회)	49
참사랑지역아동센터	만안구 삼덕로 93, 6층(안양4동, 신일교회)	29
달팽이지역아동센터	만안구 수리산로 45, 2층, 4층(안양6동)	49
우리지역아동센터	만안구 덕천로 126, 3층(안양7동)	19
영림지역아동센터	만안구 문예로 16-1, 3층(안양8동)	38
한숲지역아동센터	만안구 양화로25번길 58(안양9동)	49
해오름지역아동센터	만안구 안양로468번길 25-6(석수2동)	49
안양석수지역아동센터	만안구 석수로26번길 11, 1층(석수2동)	29
충훈부지역아동센터	만안구 와룡로3번길 55(충훈동)	26
해밀지역아동센터	동안구 관평로319번길 42(관양동)	49
NH동편행복한홈쿨	동안구 동편로 120, 102호(관양동)	37
이루리지역아동센터	동안구 평촌대로 392, 201호(비산3동)	36
순종지역아동센터	동안구 관평로305번길 65, 3층(관양동)	45
관양힐들지역아동센터	동안구 관악대로404번길 19-11, 2층(인덕원동)	40
꿈세지역아동센터	동안구 경수대로556번길 25, 2층(호계1동)	35
안양행복지역아동센터	동안구 경수대로721번길 44, 3층(호계2동)	36
한무리지역아동센터	동안구 경수대로 523, 3층(호계3동)	49
희망나무지역아동센터	동안구 경수대로 454, 209호(호계3동)	40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동안구 엘레스로 45, 210호(호계3동)	35
사랑지역아동센터	동안구 경수대로610번길 31, 303호(신촌동)	34
21개소		817

출처 : 안양시청 (<http://www.anyang.go.kr/>)

2)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⁸ 만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을 돌보는 시설이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하지만, 월 10만 원 이내의 이용료를 아동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안양시는 2020년 5월에 1호점인 일심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8호점 관양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및 숙제·학습 지도를 통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주요 내용이며 센터마다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현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2025.3.31. 현재
기관명	소재지	정원(명)
일심다함께돌봄센터	동안구 갈산로 67-23, 2층(갈산동)	20
나래다함께돌봄센터	만안구 경수대로 1236, 2층(석수동)	24
부림다함께돌봄센터	동안구 학의로 146, 1층(부림동)	46
좋은이웃다함께돌봄센터	동안구 경수대로 938, 4층(비산1동)	20
명학다함께돌봄센터	만안구 명학로 56, 4층(안양8동)	25
서로사랑다함께돌봄센터	동안구 흥안대로 418, 2층(평촌동)	20
동안다함께돌봄센터	동안구 관악대로 317-4, 2층(관양동)	25
관양다함께돌봄센터	동안구 관양동 1703번지(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3층)	30
8개소		210

출처 : 안양시청(<http://www.anyang.go.kr/>)

나래다함께돌봄센터 조선미 센터장에 따르면, 공간 마련을 위해 우선 종교 시설과 접촉을 한다고 하였다. 공간 제공이 합의되면, 안양시에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교회 건물을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으로 우선 접촉하는 이유는, 교회의 특성상 평일에 공간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아닌 시가 센터의 운영 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초기에는 아동 모집에 어려움이 따른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모집 정원은 어린이집처럼 공간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부림다함



명학다함께돌봄센터



나라다함께돌봄센터



좋은이웃다함께돌봄센터(2023년, 안양시청 제공)



부림다함께돌봄센터 토론논술 수업(부림다함께돌봄센터 제공)



명학다함께돌봄센터에서 책 읽는 아이들(명학다함께돌봄센터 제공)



나래다함께돌봄센터



관양다함께돌봄센터 놀이기 놀이(관양다함께돌봄센터 제공)



안양시인재육성재단과 다함께돌봄센터 업무협약식(2025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제공)

깨돌봄센터는 공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정원이 다른 센터의 2배 정도이다. 공간을 확장하지 않는 한 모집 인원에 변동이 없으므로 센터마다 대기자가 20~30명씩 된다고 한다. 기존 이용자의 결원이 생겨야 대기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상은 12세까지이지만, 실제로는 센터마다 운영 규정에 따라 다르다. 나래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초기에 최소 주 15시간 이상 이용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용 시간 규정은 인원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더 필요한 아동에게 제공하는 방향이 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2024년 늘봄학교를 시행하면서 월 15일 이상 이용으로 운영 규정을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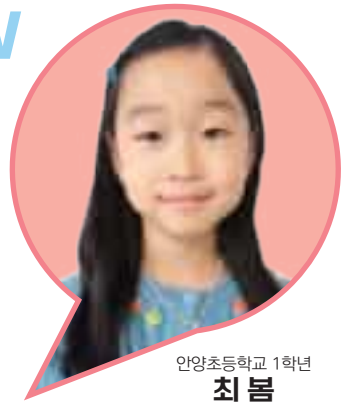
안양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간 부족과 함께 홍보가 부족하여 이제 8호점까지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각 센터의 상황에 따라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공통적으로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나래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아동의 사회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아동자치회를 운영하고 농촌 캠프 등 자연 친화성을 함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돌봄 정책의 현장 실무자로서 조선미 센터장은 현행 돌봄 정책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시흥의 사례를 예로 들며, 앞으로 돌봄 정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안양시 아동의 일상생활

2024년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은 하루를 어떤 생활을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 안양시 거주 초등학생 5명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안양시 아동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자〉 Interview



아동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 씻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등교하여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생활하고, 방과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가정 형편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돌봄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사교육을 받는 아동들은 다양한 사설 학원을 이용한다. 보호자의 돌봄을 받는 아동 가운데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게임을 하는 놀이시간으로 보낸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숙제를 한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반적인 아동의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개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생활과 방과 후 생활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행태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 아동의 전반적인 하루는 수면과 식사 등 '필수 시간', 학교 수업과 학교 외 수업 등 '학업 시간', 친구나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 놀이 등을 하며 보내는 '여가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평균 수면시간 8시간 59분을 포함하여 11시간 1분을 필수 시간으로 사용하고, 학업 시간은 8시간 16분, 여가 시간은 4시간 42분을 사용하였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3시간 10분이었고, 여가 시간은 온라인 게임이나 영상 등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1) 수면시간과 등교

구술에 참여한 아동은 대체로 오전 7시~8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한 후 등교 준비를 한다. 등교 준비까지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고 있었다.

호계초등학교 6학년 이시우는 오후 10시 30분경 잠자리에 들어서 오전 8시 무렵에 일어나 아침을 먹고 등교한다. 엄마가 깨우는 날도 있지만 보통 그 시간이 되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다른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기상 시간이 늦은 편이라 좀 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 중이다. 등교 준비는 전날 하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준비를 한 후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간다.

안양초등학교 5학년 김무경은 늦게 자는 편이다. 자정까지 게임을 하고 취침 전 스마트폰을 보다 새벽 1시에 잠을 자거나, 오전 6시에 일어나서 게임을 한 시간 정도 하는 날도 있다고 한다. 4학년 한승현은 오전 5시가 기상 시간이라고 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오후 9시쯤 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일어나면 엄마를 깨우고 학



안양서초등학교 등교 시간(이정범 제공)



안양6동 씨엘포레자이아파트에 거주하는 안양초등학교 학생 일부는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통학 차량을 이용하여 등교한다.(최복 제공)

교 가기 전까지 식사와 등교 준비 외에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다. 4학년 김주원은 오전 6시~8시에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는 날이나 그렇지 않은 날이나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갈 준비만 한다.

안양초등학교 1학년 최 봄은 보통 오후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오전 7시 40분에 일어난다. 일어나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혼자 등교한다. 등교는 8시 25분에 아파트 앞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한다. 엄마랑 같이 버스를 기다릴 때도 있지만 혼자서 하는 편이다.

최 봄과 김주원은 안양6동 씨엘포레자이아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이 아파트의 안양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매월 비용을 부담하여 통학버스를 임대 운행하고 있다. 2021년 아파트 입주 당시 1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시작한 것인데, 처음에는 25인승 버스 1대이던 것이 지금은 3~4대로 늘었다.¹⁰ 고학년 아동은 도보로 등교하기도 하고, 부모가 차로 데려다주는 아동도 있지만, 이 아파트 거주 아동의 많은 수가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안양초등학교까지 먼 거리는 아니지만 통학로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안양중앙초등학교 1학년 최일우는 오후 10시에 잠을 자고 오전 7시 30분에 일어난다. 엄마가 깨우지 않고 스스로 일어난다. 엄마가 차려준 아침을 둘째 누나와 함께 먹는다. 등교는 혼자 하며,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갈 때도 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지 않아 도보 통학이 가능하지만, 안양중앙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로 볼 때, 1학년 학생들은 취침 시간이 대략 9~10시간이고 스스로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였다. 등교 전에 게임을 한다고 하는 아동이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까지 식사와 등교 준비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아침 식사는 대부분 엄마가 차려줘서 먹는데, 늦잠을 잔 경우는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기도 한다. 안양초등학교 4, 5학년 3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등교하는 날이 가끔 있는데, 이들의 구술에 의하면, 같은 반 학생의 절반 정도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2) 학교생활 : 방과후수업과 늘봄학교

초등학교는 보통 오전 9시 이후에 수업을 시작한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학년과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오후 2~3시경이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는 방

과후수업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최 봄은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3명 정도 있고, 수업이 끝나면 혼자 집으로 돌아온다. 방과후수업에서는 주산과 요리를 배운다.

최일우는 학교 친구들과 사이좋은 관계이고 수업 이외에 블록 놀이 같은 것을 하면 보낸다. 밖에서 놀 때는 학교 운동장보다 학교 놀이터나 병설 유치원 놀이터를 주로 이용한다. 방과후수업은 영어와 바둑에 참여하고 있는데, 80분씩 진행한다. 방과후수업은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최일우는 방과후수업이 없는 요일에는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최일우의 어머니에 따르면, 안양중앙초등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20명 정도만 참여하는 것 같다.

이시우는 방과후수업으로 학교 체육관에서 진행하는 배드민턴과 티볼(T-ball)을 선택하였다. 호계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수업은 컴퓨터와 코딩 수업, 목공 수업 등 20가지 정도의 과목이라 하였다. 방과후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은 교육보다는 놀이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방과후수업이 있더라도 학원 등 개인 일정이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김무경은 학교 체육관에서 티볼반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오전 7시에 집을 나선다. 티볼반 20명 내외이고 신청한 아이들과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 안양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은 수업 시작 전에 티볼과 배드민턴, 수업 종료 후에 요리·수학·미술·국어·과학·바둑·바이올린 등을 운영하고 있다. 5학년의 경우 한 반에 3~5명 정도가 방과후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3) 학교 후 생활과 놀이

학교를 마친 후에 대부분 아동은 '학원'으로 통칭하는 사교육 시설로 향한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 초등학생을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이 학원에 다니고 있다. 학원은 수업 외에 돌봄 기능을 수반하기도 한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태권도 같은 신체 활동 중심의 학원에 다니는데,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파트단지 이외에는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태권도 학원은 대체 공간이 될 수 있다. 태권도 학원의 프로그램도 이러한 현실에 대응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영어·수학 학습 중심의 학원에 다니게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배드민턴(안양시 체육회 제공)



범계초등학교 난타 수업 (201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되는데, 이로 인해 학업량의 부담이 증가하고 여가 시간이 감소하면서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¹¹

이시우는 6학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해야 할 게 많고 바빠져서 친구들과 놀 시간도 적어지고 자유 시간도 줄어서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건 아니고, 자유 시간은 30분도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영어·수학 학원에 다니고 집에서도 국어·사회·과학 학습지를

하고 있어 학습량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가장 바쁜 날은 오후 2시 30분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수학 학원으로 갔다가 이어서 영어 학원으로 이동한다. 수학은 1시간 40분 영어는 2시간 수업을 하는데 끝나면 오후 7시가 조금 넘는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학원 자습실에서 숙제를 한 후 귀가하면 오후 9시쯤 된다.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 학원을 많이 다니는 현실에서 전반적으로 친구들과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²

귀인동의 평촌 학원가가 사교육계에서 워낙 인지도가 높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안양시 전역에서 평촌 학원가로 다니는 경향이 있다. 동네 학원보다 강사의 실력이 좋아서 수강생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이다. 평촌 학원가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다.

한승현은 지금은 학원에 다니지 않고 있지만, 학원에 다녔던 2학년 때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맞은 경험이 있다. 김무경은 수학·국어·영어를 함께 가르치는 학원에 다니고 있다. 학원이 끝난 이후 오후 7시까지 친구들과 함께 여러 놀이를 하며 보낸다. 김주원은 주중에 영어, 독서 토론·논술, 수학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 탁구·성우 교실, 역사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학원에 대해 김주원과 김무경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고 예습을 할 수 있고, 학교 수업에서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최 봄은 피아노와 미술을 배우고 있다. 미술 학원에서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일우는 방과후수업을 하는 날에는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고, 늘봄학교에 가는 날은 끝나면 바로 귀가한다. 학원은 태권도와 주산 학원에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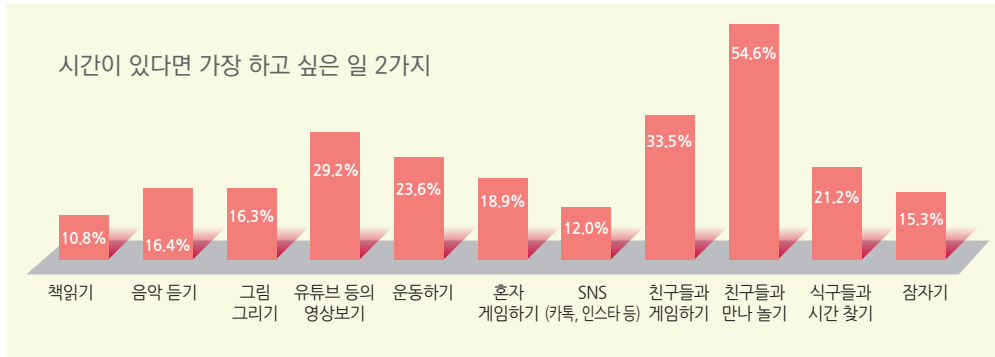
인양초등학교 교문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기다리는 태권도학원 강사(최 봄 제공)



수학 학원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초등학생



2013년 안양시 초등학교 하교 시간(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시간이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2가지

- 조사기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조사기간 : 2025년 4월 9일~22일
- 조사대상 :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2,8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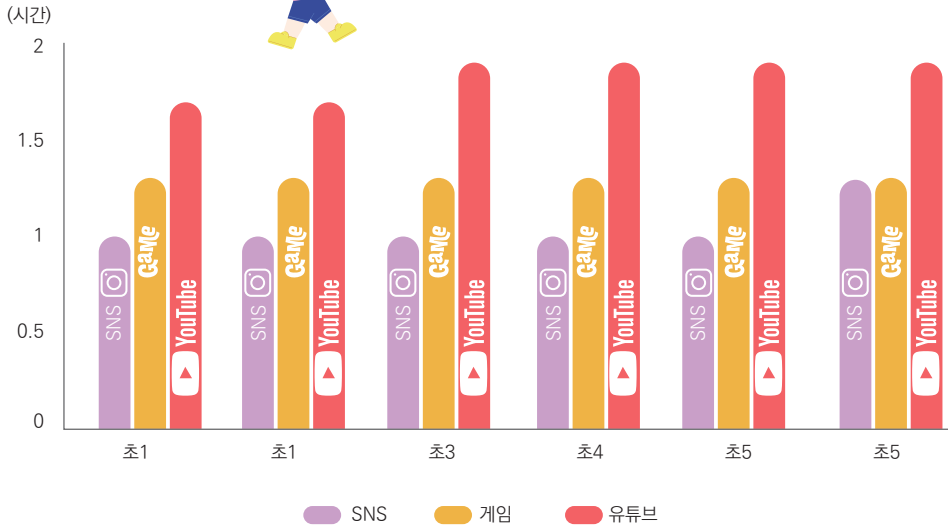
초등학교 고학년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1학년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적지 않은 편이나, 최봄과 최일우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이 없다. 김주원 은 4학년이 되어서야 스마트폰을 가졌다. 한승현은 5살 무렵부터 사용했으며, 김무경은 7살 무렵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이용 내용을 보면, 남학생은 게임을 많이 하고 여학생은 게임보다 SNS를 더 많이 한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게임과 유튜브를 접 한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활동도 많이 하는데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사진 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활동을 많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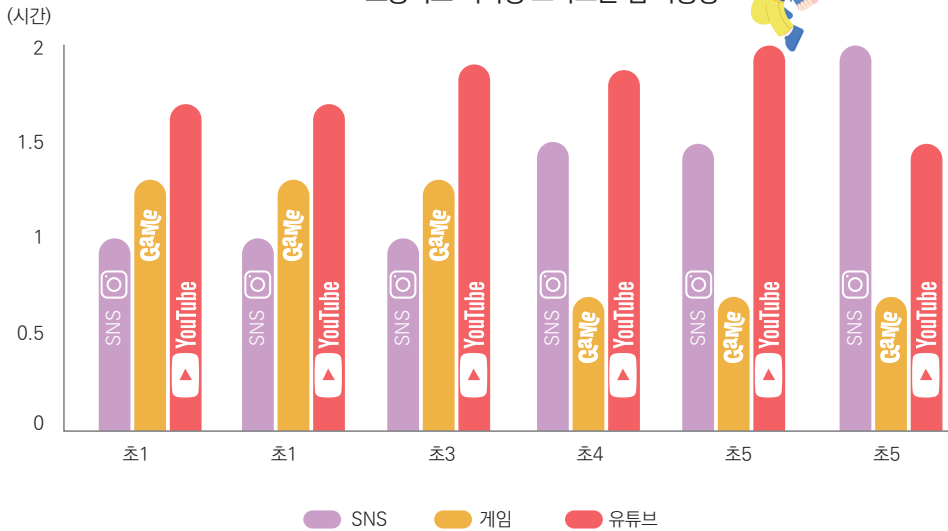
최봄의 어머니는 아직 1학년이라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하였다.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고 학교에서 늘봄이라고 2 시 반 정도까지 참여했었는데 그냥 좀 더 일찍 끝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게 하려고 안 하고 있다고 하였다.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밌지만 최봄은 엄마랑 함께 있는 것이 아직은 더 좋다. 최일우는 게임을 하지 않고 주로 TV를 보면서 논다. 최일우 의 어머니에 따르면, TV에서 유튜브 채널을 골라서 본다고 한다. 친구들과 배드민턴·축 구·야구 같이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며 노는 것을 좋아한다. 동네 친구가 많은 편인데 태



초등학교 남학생 스마트폰 앱 사용량



초등학교 여학생 스마트폰 앱 사용량



- 조사기관 : 디오랩스(자녀 토탈 데이터 기업)
- 조사기간 : 2024년 1월~6월
- 조사대상 : 디오랩스의 자녀스마트폰 관리 서비스 '아이빌리브' 앱 이용자 자녀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

권도를 다니면서 친구를 더 많이 사귀게 되어서 놀 수 있는 친구가 많았다. 여름철에 해가 길 때는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거의 2시간 동안 친구들과 운동을 하면서 논다. 축구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아직 1학년이라서 심하게 하지 않지만, 아빠가 한두 명씩 나와서 같이 논다고 하였다. 그러나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집 앞에 운동장 같은 곳이 있으면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가운데 사춘기가 시작되고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성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이성 교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학년에 올라가면서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게 우선순위는 친구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가정생활

방과 후부터 저녁 식사까지 아동의 시간 활용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귀가 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학년보다 저학년 아동이 가정



피아노 연습(최 봄 제공)



숙제하기(최 봄 제공)

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

최 봄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한다. 함께 종이접기를 할 때 가장 즐겁다고 하였다. 집에 돌아와서는 숙제도 하고,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자전거 타기·줄넘기·그네 타기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최 봄의 어머니는 친구들이 모두 학원에 가고 일정이 있어서 많이 놀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면서 시간을 보낸다. 최 봄은 집에서 책 읽는 시간이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곤 했는데 요즘에는 학교 도서관에서도 혼자 읽고 온다. 놀이터에서 1시간 정도 놀고 저녁 먹고 숙제하면 잘 시간이 된다.

최일우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기 전까지 노는 시간이 많은 편이다. 방과후수업 숙제가 있어서 숙제와 함께 공부도 한다. 그럼에도 1학년인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은 노는 것이다. 특히 야구를 좋아한다. 위로 두 명의 누나가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라서 함께 노는 것이 쉽지 않다. 휴일에는 부모와 놀러 가거나 아빠와 대중목욕탕에 가기도 하고, 부모와 함께 TV를 시청하며 보낸다.

김무경은 대체로 오후 7시~7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식

사 대신 간식거리를 먹고 잠자리에 들기도 한다. TV 시청은 스포츠를 즐겨 보는데, 전에는 축구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프로 야구나 UFC 경기를 많이 본다.

한승현은 축구 경기를 즐겨 본다.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K-리그는 물론이고 프리미어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 같은 해외 축구 경기도 자주 시청한다.

김주원은 저학년 때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보았는데, 지금은 재미가 없어서 유튜브를 주로 시청한다. 요즘 아동들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개인 크리에이터 채널들도 많이 시청한다고 하였다. 학생 중에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운영하는 친구도 있다. 김주원은 저녁을 먹은 이후 잠들기 전까지 숙제나 공부를 하고, 유튜브 시청을 한다.

이시우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한 이후 다음 날 등교 준비를 하면 잠을 잘 시간이 된다. 학습량의 부담으로 시간이 부족하지만 어쩌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30분 정도 자유롭게 보내다가 잠을 잔다. 아빠·동생과 함께 축구를 하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중학생이 되면 그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아쉽다고 하였다. 집에서 TV를 볼 때는 방송 프로그램보다 유튜브를 많이 시청한다.

5) 방학 생활

최 봄은 방학 때 체험하는 곳을 많이 찾아다니고, 놀이동산·과학관·도서관 등을 찾아서 시간을 보낸다. 최일우는 방학에도 방과후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간다고 하였다.

김무경은 방학 동안 학원에 다니지 않고 놀이 시간을 많이 갖는데, 주로 컴퓨터 게임을 한다. 맛별이 가정이고 누나는 중학생이라서 방학 동안 점심 식사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편이다. 2024년 겨울방학에는 가족여행 계획이 있다.





평촌신도시의 평안어린이공원

한승현은 방학에는 하루 종일 축구 연습을 하며 보낸다. 축구선수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축구선수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한승현의 축구선수 꿈을 응원하신다고 한다.

이시우는 방학 때는 학원을 오전에 가는 편이라 놀 수 있는 시간이 많다. 엄마랑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외식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 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절반가량이 방학 때 가족여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6) 동네 환경

집 주변에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이나 놀이터를 떠올린다. 그러나 이런 장소는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 아동이 놀기에 적합하지 않다. 인터뷰한 아동들은 현재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네에 아동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

이시우는 동네에 초등학생이 놀 만한 공간이 많이 없다고 하였다. 아파트 놀이터 빼

고는 놀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없다. 넓은 농구장이 있지만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 마음 놓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은 호계초등학교 운동장뿐이다.

최 봄의 어머니는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외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공간이 없다고 하였다. 더구나 현재 냉천지구 아파트 건설 공사로 인해 아파트단지 주변이 어수선하고 위험한 상황이다.

최일우의 어머니는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수대로·관악대로와 접해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아파트단지 안은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혼자 놀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김주원·한승헌·김무경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밖에서 뛰어논다는 의견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의견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이구동성으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7) 사교육 : 태권도 학원의 경우

아동이 다니는 학원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피아노·미술·태권도 학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태권도 학원은 체력 단련과 인성 교육의 장으로 인식하는 학부모가 많다. 현재 태권도 학원은 일종의 돌봄 시설 기능도 하고 있다.

최일우의 어머니는 아동에게 태권도의 의미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한다. 저학년 아동 대부분이 태권도 학원을 필수과정처럼 다니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태권도 학원이 돌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심지어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도 있다고 한다. 물론 태권도 학원 차원에서 홍보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호계동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박상진 원장은 태권도 학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태권도 학원은 교과 학원과 달리 교우 관계나 사회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아동이 관계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태권도 학원은 하교 후 학교에서 학원생을 직접 픽업하여 데려오고,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주거나 다른 학원으로 연계도 해주고 있다. 일종의 돌봄 서비스이다. 아동이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태권도 학원에 오는 아동들이 있다. 학부모들은 태권도 학원이 안전한 실내 공간에서 뛰어놀며 운동하는 환경이므로 아동,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내는 경향이 있다.



태권도 학원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



태권도 학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평촌 중앙공원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안양시청 제공)

박상진 원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운동하는 것을 지향한다. 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이 태권도를 배우는 적기라고 봤는데, 요즘은 유치부 인원이 가장 많다고 한다. 태권도 수업은 체육과 줄넘기 위주로 구성하여 아동이 지루하지 않게 놀이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규 수업 외에 1박 2일 캠프, 현장학습 등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박상진 원장은 안양시의 태권도 학원은 대부분 태권도가 재미있고 즐겁다는 걸 알려주는 교육 철학에 기반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태권도 학원은 아동이 태권도 수업과 사회활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참고자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2019.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유니세프 한국위원회(<https://www.unicef.or.kr/>)

註

1. 통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의 만 18세 미만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아동·청소년을 포괄하여 아동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아동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유아·아동·청소년의 구분 방식 역시 명확하게 통일하여 정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인식에 따라 청소년은 중학생 이상, 아동은 초등학생, 영유아는 취학 전 아동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청소년은 만 13세~만 18세, 아동은 만 6세~만 12세, 영유아는 0세~만 5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기의 생활세계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2.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3. 안양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2016년 제정되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일부 개정을 통해 아동 친화 도시 조성 계획과 조성 정책 및 사업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계획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설치와 참여위원회, 실무추진단 구성을 규정하였다.
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5. 안양시청 홈페이지.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2019.
7. 안양시청 홈페이지.
8. 다함께돌봄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다함께돌봄센터)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9년 1월 일부 개정에 의해 4월 16일 시행한 이 법은 양육 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함께돌봄사업(<https://dadol.or.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참고.
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동행복지수 생활시간조사 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3.
10. 김주원 어머니 구술
1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앞의 보고서.
12. 그림에도 틈새 시간에 남학생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논다. 축구를 하지 않는 남학생은 교실에서 여학생과 함께 보드게임을 한다. 반면 학교에서 책 읽는 아이들은 거의 없는 현실이었다. 여학생은 피자파티 같은 놀이를 한다.

제2장

청소년기의 생활세계

박영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1. 청소년기의 범위와 정책

청소년의 사전적 정의는 미성년의 젊은이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흔히 10대의 젊은이를 일컫는다. 법에서는 이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명시한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으로 규정한다. 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2024년 4월 현재 청소년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부처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안전과 보호, 청소년의 교육, 청소년과 노동,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청소년정책 추진체제 등이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은 대체로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현재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를 통해 실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상 나이 현황

법령	대상	나이	소관부처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9~24세 이하*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보건복지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	18세 미만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보건복지부
공연법	청소년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9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경찰청
	운전면허	18세 이상 (원동기 16세 이상)	
근로기준법	연소자	18세 미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연소자	18세 미만	고용노동부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법무부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소년보호사건 14세 미만)	법무부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법무부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법	투표권	19세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청소년 기본법 규정 준용

**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2. 안양시의 청소년정책과 시설

안양시는 199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였다. 안양시장인 신중대가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청소년수련관 김영호 관장이 초대 상임이사를 겸직하였다. 초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지원팀이 재단 운영을 함께 맡았다. 2009년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면서 재단 사무국을 신설하였고, 2011년에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두어 본격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시에서 건립한 청소년 수련시설 8곳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일시청소년쉼터 등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전문 청소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개관(1999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1) 청소년시설 현황

안양시는 평촌신도시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1999년 2월 1일에 개관하였다. 같은 해 7월 12일 만안여성회관(현 만안평생학습센터)에 부설 형태로 만안구 청소년프로그램센터를 개관하여 2001년 12월까지 운영하였다.

이후 안양시는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첫 번째로 2000년 11월 28일 안양2동 동사무소 내에 청소년문화의집(현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였다. 이어 2003년 석수청소년문화의집, 2015년 호계청소년문화의집, 2018년 평촌청소년문화의집이 차례로 문을 열었고, 2024년 11월에는 박달청소년문화의집과 관양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롭게 개관하였다.

이로써 현재 안양시에는 청소년수련관 2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8년 5월 3일 안양시는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안양시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위치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표 2〉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2025.3.31. 현재

시 설 명	소 재 지	개관 시기	주요 시설
만안 청소년수련관	만안구 냉천로31번길 33	2009. 2.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영상미디어센터, 다문화교류센터, 공연연습실, 실내 체육관, 헬스장, 소극장, 다목적실, 북카페, 상담실, 야외 물놀이터, 각종 강의실 등
동안 청소년수련관	동안구 동안로 155	1999. 2.	문예극장, 밴드실, 웰빙스포츠룸, 다목적체육관, 동아리실, 라켓볼장, 청소년자유공간 '포텐', 각종 강의실 등
만안 청소년문화의집	만안구 안양로384번길 50 (안양2동행정복지센터 4층)	2000.11.	나누리방(다목적 공간), 꿈누리방(강의실), 징검다리방(회의실), 끼누리방(동아리실), 악어카페, 간식공방, 각종 강의실 등
석수 청소년문화의집	만안구 경수대로 1252 (석수1동행정복지센터 4층)	2003.12.	나눔터(휴게실), 토마터(운영위원회), 제로웨이스트존, 도깨비 하우스(자율공예공간), 다모어터(소강당), 놀이터, 꿈터/자람터(강의실), 쉼터(양호실) 등
호계 청소년문화의집	동안구 경수대로 504 (호계3동행정복지센터 2층)	2015. 2.	알쏭방/달쏭방(강의실), 하랑방(운영위원회), 발디땀방(댄스 및 동아리방), 두드림방(음악실), 요리조리실(창작 공예실), 요모조모실(체육 및 실내 활동실), 멀티룸, 북카페 등
평촌 청소년문화의집	동안구 흥안대로 394	2018. 3.	특★한카페, 둠칫둥칫(댄스연습실), 운영위원회실, 도란도란(강의실), 행복놀이터(다목적 공간), 레츠기릿(노래방), 옥상달빛(카페), 헬스장 등
박달 청소년문화의집	만안구 박달로 440	2024. 11.	박달마루(청소년디자인카페), 상상마루(디자인메이커실), 똑똑마루(1인 학습공간), 기록마루(스튜디오), 댄스연습실, 게임존, 각종 강의실 등
관양 청소년문화의집	동안구 동편로 49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2층)	2024.11.	상상하길/성장하길(강의실), 소통하길(커뮤니티홀), 다양하길(다목적실), 노래하길(음악실), 춤추하길(댄스실) 등

3. 2024년을 살아가는 안양시 청소년

청소년기는 인생 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나가며, 미래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초가 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경험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사회적 역량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청소년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활동을 경험하느냐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적응력에 깊은 관련이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학업·가족·친구·미디어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창의적인 활동 공간인 청소년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상담센터 등은 청소년이 스스로를



1	2	5
3	4	6

1. 만안청소년수련관(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2. 동안청소년수련관(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3. 호계청소년문화의집(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4. 관양청소년문화의집(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5. 평촌청소년문화의집 북-인터넷 카페(비그라운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제공)
6. 박달청소년문화의집 2층 홀





만안청소년수련관 축제(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1. 호계청소년문화의집 행사 '평 알 장터'
(2015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 석수청소년문화의집 환경 프로그램 '제로웨이스트숍'
(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3. 4차산업 프로그램(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표 3〉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종류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유스호텔	안양블루몬테 유스호텔	만안구 예술공원로 213	2024.1.1. 휴지

〈표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설 명	소 재 지	개관일	주요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1997. 2. 3	상담실, 교육실, 놀이치료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	만안구 석수로212번길 33	2024.11.15	다목적 교육장, 상담실

〈표 5〉 청소년쉼터

시설종류	시 설 명	소 재 지	보호정원	수탁운영자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민들레뜨락)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일시 (24시간~7일)	남6 여6	안양시청소년재단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동안구 관악대로 346 (관양동, 코오롱동산타워)	단기 (3개월 이내) ※ 최장 24개월	남15	(사)가치있는 누리
여자 중장기청소년쉼터	동안구 경수대로 606 (호계동, 봉성빌딩)	중장기 (3년 이내) ※ 최장 4년	여10	(사)일심비전 브리지

〈표 6〉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시 설 명	시설종류	소 재 지	수탁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동형 (45인승 버스 1대)	동안구 경수대로 604 (호계동)	(사)안양과천군포의왕 YWCA



안양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개소(201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시 꿈드림 교육장(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안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일시청소년쉼터(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탐색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건강한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안양시에는 다양한 청소년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들 공간은 단순한 여가 활동의 장소를 넘어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를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등의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안양시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더 나은 정책과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2024년 현재 안양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인터뷰 대상자

정송희

안양여자중학교 3학년

김영인

양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두하

양명고등학교 2학년

1) 학교생활

(1)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였나요?

정송희 : 안양여자중학교(안양여중)를 선택했는데 그때 셋이서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다 안양여중 쓴다고 해서 쓴 것도 있고 급식도 맛있다고 하고 제일 중요했던 게 교동이 편리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인 : 중학교 3학년 2학기 말에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집에서 가까운 학교, 내신 받기 좋은 학교, 급식이 맛있다는 학교, 교복이 예쁜 학교 등 다양한 기준을 두고 고민하던 중, 국제고등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부모님과 상의 후 붙으면 좋고 떨어져도 좋은 경험 하는 거니 일단 질러보자 하는 마음에 1지망으로 동탄국제고등학교를 적었어요. 한 학기가 채 안 되는 기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했는데, 1차는 어찌저찌 잘 넘어갔지만 2차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2지망에 적은 양명여자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두하 :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전, 원하는 학교를 1지망부터 차례대로 적어서 냈지만, 고등학교를 선택



양명고등학교(좌)와 양명여자고등학교(우)

하는 것과는 달리 배정받는 것은 랜덤이기에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2) 학교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송희 : 일단 여자중학교라 여자들끼리만 있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이고 급식도 맛있고 교동이 편리해서 늦게 일어나도 돼서 좋았습니다.

김영인 :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여자 고등학교이다 보니 여학생들끼리만 모여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학생이 없는 교실이 약간 어색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여학생들밖에 없으니 대화도 잘 되고 편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다들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서 웃긴 순간들도 정말 많았어요.



성문중학교 점심시간(2025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이두하 :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점은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곧 성인이 되며 1년이 지날수록 저를 되돌아보며 제가 정말 1년 사이에 어른스러워지고, 생각과 행동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 귀로만 들었던 선생님의 교훈과 말 하나하나가 와닿는 경험을 하는 날들이 생기며 이러한 교훈들을 저만의 방식과 저만의 경험으로 채워나가는 게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3) 학교 일정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송희 : 점심시간!! 점심시간 급식이 맛있기도 하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할 시간이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점심시간에는 복도로 나와서 다른 반 친구들과도 노는 게 제일 기억에 남고 재밌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인 : 가장 즐거운 시간은 역시 밥을 먹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친구들이 진심이 반 이상 섞인 우스갯소리로 “나는 급식 먹으려고 자퇴 안 함”이라고 할 정도로 급식이 정말 맛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때는 급식 먹으면서 맛있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며 처음으로 급식이 맛있다는 걸



평촌 학원가의 밤 풍경(200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느꼈어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석식을 시켜 먹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석식이 먹고 싶어서 야자(야간 자율학습)를 했을 정도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두하 : 제가 생각하는 가장 즐거운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남고이기에 공학과는 다른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학교 급식이 항상 맛있기에 항상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4) 학교생활 중에서 어려운 점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송희 : 학교 수업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 7시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지치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이해도 안 돼서 더더욱 좀 어려웠습니다.

김영인 : 아무래도 학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학원에 다녀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진짜 살면서 상상도 못 해본 등수가 나오더라고요. 어찌저찌 성적을 올리긴 했지만, 말도 안 되

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친구도 있고, 문제를 어렵게 낼수록 친구들은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해 오니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더 어렵게 내시니까 저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대학교 등급 컷을 바라보며 내 목표 대학을 한 칸 한 칸 낮춰 가는 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이두하 : 제가 생각하는 가장 힘든 점은 공부와 친구를 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 집중하게 되면 친구들과 멀어지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놀려고 하다 보면 공부에 더 소홀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의 동아리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송희 : 중학교에 가게 되면서 딱 동아리들을 보는데, 1학년 체육 선생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셔서 1학년 때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 동아리가 치어리딩 동아리인데 치어리딩 하는 언니들을 보고 너무 멋지다고 느껴졌고, 워낙 무대 같은 곳에 서는 걸 좋아해서 한 번 신청이라도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는데, 합격이 되었고, 공연하는 게 너무 좋아 열심히 연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더니, 단장이 되었습니다.

2016년 안양시 청소년축제에 참가한 안양여중 치어리딩 동아리 '라온제나'(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김영인 : 저는 현재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밴드를 하고 있어요. 워낙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끼리 처음 밴드를 만들고 활동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배정받자마자 학교에 밴드부가 있는지부터 알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실용음악 동아리와 밴드부가 둘 다 있지만 밴드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좋아서 밴드부에 지원했고, 2학년 때는 동아리 기장까지 맡아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두하 : 저는 고1 때 동아리를 하면서 제가 주도하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면 재밌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고2 때 주제, 활동부원들, 또는 무슨 활동을 할 지에 대해 몇 주간 고민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만큼 제가 잘하지 못해서 아쉬움과 동시에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시설 이용

(1) 안양시 청소년시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정송희 : 동아리 기장들이 모여 예산 및 활동 보고를 하고 '쿠주(CUJU)'라는 학생동아리 연합회에서 10월에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여흥방학에 2박 3일로 캠프도 다녀와서 각 조(공연·이벤트·전시)마다 서로 나눈 의견들을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인 : 2024년에 제가 소속된 동아리가 만안청소년수련관의 학생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어요. 그 곳에서 동아리들이 분과별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예술분과 2조의 조장을 맡아 일 년 동안 임원진으로 활동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분과별로 활동 보고 회의를 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 활동사업팀 선생님들, 대학생 컨설팅단 분들과 함께 안양시 청소년동아리 축제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두하 : 저는 안양시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학생동아리 임원진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안양시에서 열리는 행사와 축제에 대해 기획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 팀원들(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양한 동아리의 기장들)과 함께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며 활동 하였습니다. 특히 중앙공원에서 열린 쿠주 축제의 주제 또는 레마들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회의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2) 학교 활동과 청소년수련관 활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송희 : 학교에서 활동은 그냥 만들어주는 축제에서 공연만 하는 건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예산 관리도 제가 직접 하는 게 달랐습니다.

김영인 : 사실 학교에서는 공연 연습과 공연 외에 크게 참여할 만한 활동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연 동아리가 학교에서 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임원진으로 활동하며 ‘아, 이런 게 진짜 학생 참여구나!’ 같은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밴드부 기장이라서 예술분과였고, 예술분과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 기획 및 진행에서 공연무대 파트를 맡았어요. 축제 컨셉에 맞추어 공연 순서와 시간, 소개 멘트 등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해보니, 재미있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머리 아픈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두하 : 학교에서의 활동과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던 활동 중 제일 큰 차이점은 ‘자기주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자기주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초점이 맞춰지며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줄었으며, 코로나 이후 제 주장을 펼치고 이러한 제 주장이 영향이 되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자율적인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수련관 활동이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정송희 : 수련관에서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동아리 기장들과 만나 서로의 얘기를 하다 보니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팁도 좀 알게 되었고, 리더십 교육도 받아서 동아리 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수련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시다.

김영인 : 저는 무대 경험은 많이 있지만 무대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티끌만큼밖에 몰랐어요.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축제 한 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고 그들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이런 활동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안양시 학생동아리 연합 발대식(2024년, 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학생동아리 연합회(CUJU)가 주관하는 안양시 학생동아리 축제(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안양시 청소년 참여 활동 'Youth 아고라'(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이두하 : 앞서 말했듯, 청소년수련관에서의 활동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에 대해 자세 히 말하자면, 우선 제 생각에 대한 저만의 소견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나이를 가진 다양한 성별의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이 흔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협력을 하는 것 또한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성인이 돼서야 할 수 있을 것 같은 경험을 하며 성숙해 지는 과정을 거치고, 아직 제가 어른스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활동을 끝맺음 지은 후, 활동을 하 기 전과 여러 면에서 확연히 달라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4) 학교 수업 외의 청소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정송희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활동으로 다양한 생각, 의견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 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학교 수업은 너무 수업, 공부만 하니까 지루한데 청소년 활동하면 더 재밌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김영인 :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활동을 많이 해 봐야 학급 인원이나 학생 회인데, 그것마저도 학생들 공부하라고 참여할 기회를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은 그것마저도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경험을 하기 어려워요. 또 이런 활동을 하면 학교 공부 외에도 정말 다양한 길이 있고 새로운 환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수동적으로 공부하던 학생들이 주동적으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이두하 : 저는 앞서 학교생활과 청소년 활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며, 청소년 활동이 가지는 이점과 그에 대한 장점을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가 있고,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다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0대의 시간 동안 자신이 주도한 활동에서 직접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이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학생이 이런 활동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앞으로도 청소년시설 활동을 할 생각인가요?

정송희 : 하고 싶어요. 지금 하는 것처럼 쿠주, 학생동아리 연합회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대학생분들, 고등학생분들 각각 다른 곳에서 와서 만나 얘기하는데,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재밌고, 고등학교·대학교에 관한 얘기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김영인 :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교에서는 경험해 보기 어려운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보고 싶어요.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하 : 저는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청소년시설에서 활동하고 싶으며, 또 활동하게 된다면 경험하는 학생의 입장에서가 아닌 다양한 학생들에게 경험을 줄 수 있는 입장에서의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4) 하루 일과

(1) 학기 중

정송희 : 평상시에 7시 기상해서 7시~7시 30분까지 씻고, 7시 30분~8시 20분 옷 입고 화장하고,



2024년 안양시 청소년축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23년 안양시 청소년어울림마당(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8시 20분에 집을 나와서 학교로 출발하고 한 8시 30분 정도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얘기하고, 9시 5분에 아침조회 하고, 9시 15분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4시에 끝납니다. 4시에 끝나서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 학원에 가서, 4시 30분~5시 40분까지 학원 자습실에서 숙제나 자기 공부를 하고, 5시 45분~8시 30분까지 학원에 있다가, 학원 차를 타고 9시에 집에 도착해서, 10시까지 밥을 먹고, 10시부터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SNS로 소통하고, 1시에 잡니다.

김영인 : 평일에는 보통 7시 30분 기상 후, 8시 10분에 버스를 타고 8시 30분까지 등교해, 보통 4시 20분까지 7교시 수업을 듣고, 버스를 타고 하교해요. 방과 후에는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데, 저는 학원 대신 인강(인터넷 강의)으로 모든 과목을 배워서 주로 그냥 카페나 스터디카페에 가요. 유일하게 다니는 학원이 실용음악 학원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레슨 받으러 가고 가끔 연습실에 갑니다. 보통 자는 시간은 밤 12시~1시인 것 같아요. 토요일에는 9시 기상 후 공부하기가 계획이지만, 사실 보통 눈이 떠질 때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요일에는 7시쯤 일어나서 교회에 갔다가 2시쯤부터 스터디카페나 집에서 공부해요.

이두하 : 저는 앞서 말했듯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학교가 다른 아이들보다 멍니다. 그래서 보통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7시 반에 셔틀버스를 타서 8시까지 학교에 도착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합니다. 그 후, 9시에 수업이 시작하기에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부터는 아침 공부를 하고 수업에 나름대로 집중한 후, 학교가 5시에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간 후(날씨가 좋으면 제 자전거를 타지만 겨울이나 날씨가 애매할 때는 셔틀로 등교 후에 '에브리바이크(안양시 공유 자전거)'로 하교합니다. 물론 하교할 때 비가 오면 버스를 타고 하교합니다.), 저녁 식사 후 독서실 또는 학원에 가고 밤 1시에 취침합니다.

(2) 방학 중

정송희 : 11시에 일어나서 11시 30분까지 씻고, 12시 20분까지 화장하고, 12시 30분까지 밥을 먹고, 12시 37분에 학원 차를 타고 학원에 가서 1시 도착하는데,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자습하고, 1시 30분부터 2시 50분까지 수업하고, 2시 55분부터 4시 15분까지 또 수업하고, 4시 20분부터 5시 40분까지 밥을 먹고, 5시 45분부터 7시 5분까지 수업하고, 5분 쉬었다가 7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수업한 후, 5분 쉬었다가 9시 15분까지 오늘 했던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9시 30분에 집에 도착해서 10시까지 밥을 먹고, 10시부터 12시까지 논 다음에 취침합니다.



등교하는 학생들
(2025년, 이정범 제공)



하교 후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
(2025년, 이정범 제공)

김영민 : 월~토에는 9시쯤 일어나서 되게 자율적으로 생활하다가. 12시쯤 자는 것 같아요. 학원을 안 다니다 보니,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거나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많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에는 학기 중 일상과 비슷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두하 : 저는 고3이 되는 겨울방학이기에 '원투스쿨(겨울방학 학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8시에 기상 후, 독서실에 가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총 2시간을 제외하고 관리형 독서실에서 하루 14시간 정도 공부를 한 후, 새벽 2시 정도에 씻고 취침합니다.

4. 청소년시설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안양시의 청소년시설이 만들어진 지 25년이 지났다. 청소년시설 이용자들은 현재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안양시 청소년시설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시설의 중요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 대상자

리아킴(김해람)

안무가, 원밀리언 공동 대표

장예지

안양시 공무원

서민주

경동대학 간호학과 1학년

1) 안양시의 청소년시설에서 언제 활동하셨나요?

리아킴 : 저는 청소년 시절, 만안구 여성회관(현 만안평생학습센터)에 설치된 만안구 청소년 프로그램 센터를 이용하여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때는 동안구에만 수련관이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대략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었던 청소년수련관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제 꿈을 키울 수 있게 해 준 고마운 장소였습니다.

장예지 : 제가 중학교 1학년부러 3학년까지 활동했으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활동했어요. 벌써 거의 10년 전이라니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중학교 3학년 언니도 있었고, 고등학생 오빠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엄청 선배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들 얘기였네요.

서민주 :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리아킴 :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지만, 당시에는 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수련관에서 댄스 관련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춤을 배운다기보다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장예지 : 저는 사실 바이올린 선생님 권유로 오디션을 보고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권유해주신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재밌게 다녔던 거 같아요. 저는 8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 바이올린 한번 배워볼래?” 해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중략) 저를 가르쳐주셨던 세 번째 선생님이 저한테 청소년 교향악단을 권유해주신 거죠. 그 선생님 덕분에 당시에 실력도 많이 늘었고, 교향악단 단원이었으니까 무대에 설 기회도 많았죠.

서민주 :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맞벌이였고 제가 외동이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부모님이 바쁘셔서 절 케어하는 게 부족했을 때,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주변에 청소년시설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습니다.

3) 어떤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리아킴 :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댄스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서는 경험을 하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팀워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연습실이 부족해 청소년시설의 강당이나 마당에서 친구들과 연습하곤 했습니다. 그 공간들은 저에게 단순한 연습 장소를 넘어 꿈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는 배움터였습니다.

리아킴(원밀리언 제공)



장예지 : 저는 2012년에 오디션을 보고 청소년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합격했어요. (중략) 단원으로 들어와서는 많이 혼났습니다. 첫 정기연주회 리허설 때 활 잘못 써서 지휘자 쌤한테 혼나고, 원래 자리가 악장 언니 옆자리였는데 맨 뒤로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때 단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처음 서는 무대라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까지 왔었는데 엄청 창피하고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연주회 끝나고 다시 연습하러 갔을 때 완전 주눅 들어서 갔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원래 자리로 다시 앉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진짜 다시는 뒤로 안 쫓겨나려고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그냥 계속 연습했던 거 같아요. 그래도 단원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1년 동안은 악장으로 무대도 서고 많이 성장했던 거 같아요.

서민주 :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만안청소년문화의집(늘예술), 석수청소년문화의집(미라클)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교과목과 다양한 예체능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소속으로 댄스동아리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만안청소년수련관 쿠주 학생동아리에서 고등부 회장을 맡아 회의 진행, 축제 기획을 했습니다. 20살 대학생인 지금은 학생동아리 대학생 컨설팅단을 하며 학생동아리 중고등학생을 서포트하는 역할 등 많은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4) 청소년기의 활동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리아킴 : 청소년기에 경험한 활동들은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때 경험했던 무대 경험과 연습 과정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취미를 넘어서, 춤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시설에서 만난 친구들과 멘토들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배웠고, 그것이 지금의 '원밀리언'을 만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예지 :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바이올린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항상 생각했던 게 '나중에 내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 자유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꼭 다시 오케스트라 무대를 서고 싶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생 때도 오케스트라 연합동아리에 들어가서 연주했구요, 작년 11월에는 감사하게도 지휘자 선생님이 불러주셔서 청소년 교향악단 객원으로 참여했었어요. 청소년 때 했던 활동을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종종 하는 거 보면 저는 참 무대 서는 게 즐거웠나 봐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인



2018년 안양시 청소년교향악단 정기 연주회(동안청소년수련관 제공)



석수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안양시 청소년재단 제공)

이 되어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 같은 게 생기는 거니까요.

서민주 :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다녔던 초등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해주는 멘토링, 과학실험, 우쿨렐레 수업에 참여하여 친해진 고등학생 선생님이라든 현재 성인이 된 후에도 연락하고 지내서 저의 인생 멘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소장님이셨던 분과도 친해져서 저의 진로나 중학교 선택이나 평상시의 조언 등 많이 도와주셨는데, 현재도 연락하고 지내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배우고 저의 성격 개선도 되었습니다.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 협동심이 길러졌고, 학교에서 조별 활동이나 함께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이끌어나가고 서로 도와주며 잘 마무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가 차근차근 성장하여 대학생(성인)이 되었습니다.

5)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과 청소년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리아킴 : 청소년 시절은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입니다. 청소년시설은 단순히 활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재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청소년시설에서 춤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은 더욱 확대되고, 다양한 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지 : 청소년기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끈기, 성취감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단원들이랑 연습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연습하고 서로 봐주고 그랬었던데요. 그러면서 교우관계도 쌓고, '아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하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소리를 낼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도 느껴요. 그런 점에서 언니·오빠들이랑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사실 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만큼 연습하기 좋은 공간이 없거든요.

서민주 : 코로나 팬데믹 때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주 온라인 세상에서만 소통을 해서,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사소통과 협동심 등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청소년 활동 참여 유도, 교육을 통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변에 청소년시설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도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안양시 청소년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리아킴 :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껏 탐색하고 경험해 보세요. 춤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어떤 분야든 간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그 과정에서 배우고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을 적극 활용하며,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아보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지금의 경험들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도 한때는 춤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기회를 찾으며 도전해왔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과 춤으로 소통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길을 찾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안양시에서 자란 것처럼, 여러분도 이곳에서 멋진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장예지 : 청소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기에 여러 활동을 해보고 추억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는 시기잖아요. 사실 매주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든, 운동을 하든 시간을 낸다는 건 귀찮고 어려운 일이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10년 뒤에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뭐가 시간을 내서 여러 활동을 했다는 게 나의 큰 자산이 되기도 하거든요. 전공으로 살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처럼 성인이 돼도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구요. 무엇보다 '그때 내가 친구들이랑 이런 활동을 했었

지. 참 재밌었다.’ 하는 추억들도 생기니까요. 저는 제가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으로 섰던 마지막 무대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그때 제가 악장이었는데 그 마지막 연주회 때 유독 더 즐기면서 연주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휘자 선생님과 악수하고 관객분들한테 박수받았던 순간들까지도요. 곡 하나하나가 끝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 순간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성인이 돼서도 기억날 만큼 행복한 추억들을 꼭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서민주 : 제 주변을 초·중·고 학생들을 보면, 많은 학원 다니면서 공부만 신경 쓰고 다른 것들을 놓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가 생성되는 시기인 만큼 나의 성격을 만들어 나가고,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서 나를 정확히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부모님이 진로를 정해줘서 억지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가 아닌 본인이 이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나중에 후회 없을 것 같은 진로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선택한 진로는, 내가 돈 벌어서 살아가고 직업의 만족은 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어떻게 해야되는 지 등, 청소년시 설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활동을 해보면서 경험도 쌓고 많은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경험과 인맥은 나중에 도움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거예요!

5. 안양시 청소년은 행복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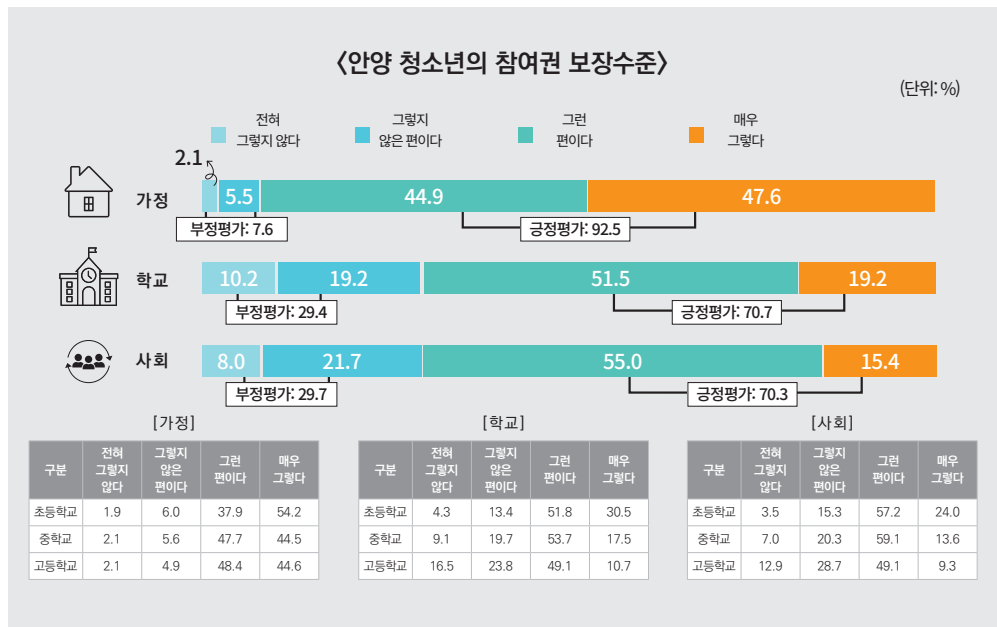
안양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인권과 행복 및 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미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고 아동 청년 정책과의 연계성을 마련하고자, 2022년 11월 1일~11월 20일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행복 실태 조사를 하였다.

초등학생 633명, 중학생 656명, 고등학생 71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안양시 거주 청소년의 생활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행복 실태

(1) 참여와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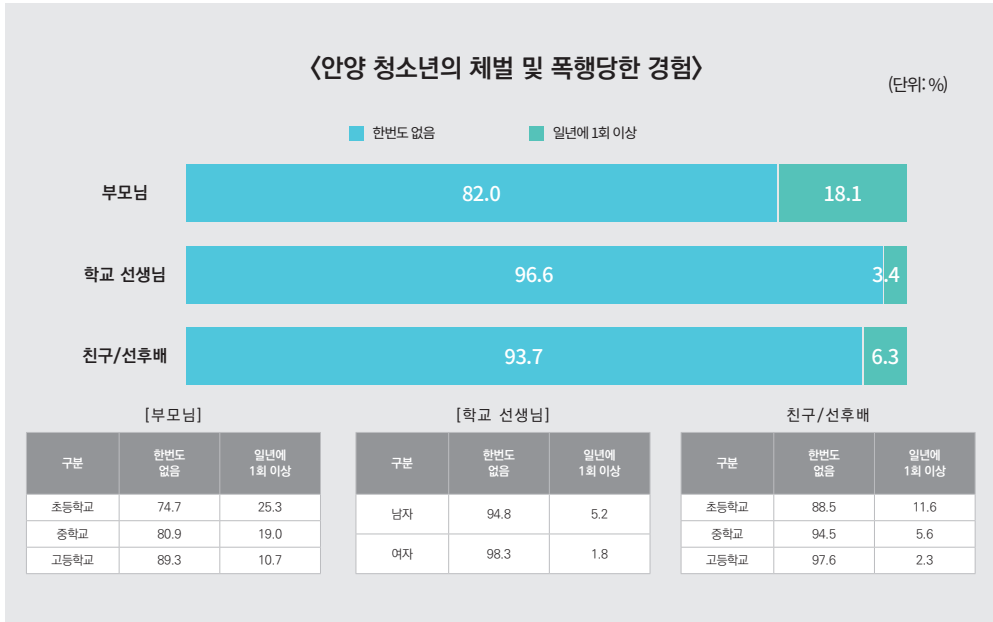
안양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인식은 가정에서 92.5%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전국 평균보다 약 1.6%p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권 보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70.7%, 사회에서는 70.3%가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응답했지만, 부정 평가도 약 30%에 달해 적지 않았고, 특히 학교에서는 전국 대비 부정 평가가 약 11.5%p 높게 나타났다.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와 사회에서의 부정 평가가 현격히 증가했으며,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시간 부족(39.3%), 사회의 편견(23.3%), 참여 기회 부족(16.5%) 등이 지적되었다.



(2) 가정 및 학교 환경

안양 청소년의 신체적 체벌 경험은 부모로부터가 18.1%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및 선·후배 6.3%, 교사 3.4% 순으로 나타났고, 전국 대비 가정 내 체벌은 낮지만 또래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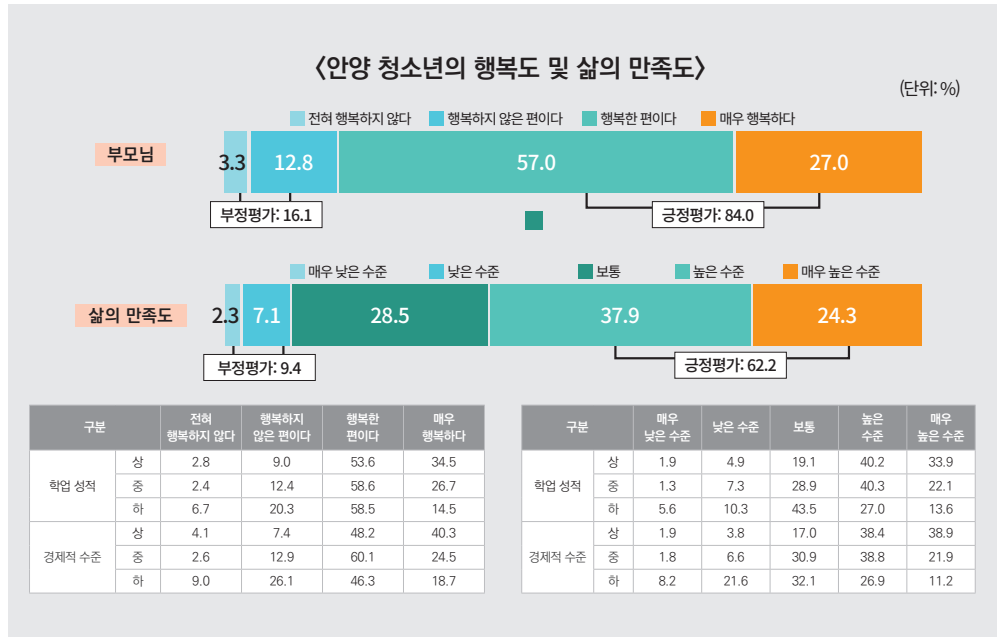
교사로부터의 체벌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방임 경험 중에서는 야간 방임이 47.1%로 가장 흔했으며, 결식·청결·질병 방임은 전국보다 높았다.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은 1.9%로 전국보다 낮았고, 주로 부모와의 갈등(51.4%)이 원인이었으며, 학업 문제(13.5%)와 친구와 함께하기 위한 가출이 뒤를 이었다. 특히 친구와의 관계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가출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편이었다.



(3) 복지 및 보호

안양 청소년의 최근 1년간 우울감은 평균 1.99점, 자아존중감은 2.97점으로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우울감 경험자도 적지 않았으며, 우울감은 여학생과 교급·학업성적·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 교급이 낮고 학업성적·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 우울감과 반대 경향을 보였다.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0%였으나, 16.1%는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주요 이유는 학업 문제와 미래 진로 불안이었고, 이는 고등학생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6.83점이며, 행복도와 마찬가지로 교급이 낮고 성적·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성적 피해 경험률은 4.3%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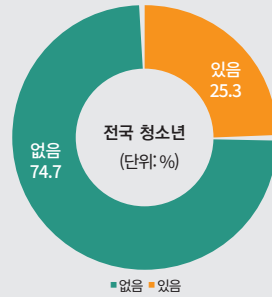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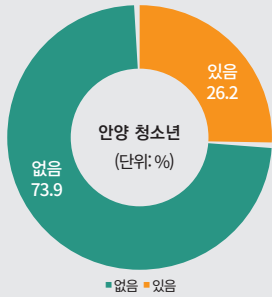
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 교육 및 여가문화

안양 청소년의 26.2%가 최근 1년간 학업 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고등학생과 학업성적·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주요 이유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32.5%)가 가장 많았고, ‘공부하기 싫어서’(18.4%), ‘성적이 좋지 않아서’(13.6%) 등이 뒤를 이었다. 여가문화 시설에 대해서는 약 70%가 충분하다고 평가했지만, 교급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졌다. 평일 여가 시간은 1~2시간 미만(25.7%)이 가장 많았으며, 교급이 높을수록 여가 시간이 줄고, 성적이 낮을수록 여가 시간이 긴 경향이 나타났다. 평일 학습 시간은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과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습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안양 청소년의 학업중단 고민경험〉



구분	있음	없음	
학교급	초등학교	21.5	78.5
	중학교	22.0	78.0
	고등학교	34.2	65.8

구분	있음	없음	
학업 성적	상	19.8	80.2
	중	25.0	75.0
	하	40.7	59.3

구분	있음	없음	
경제적 수준	상	22.5	77.5
	중	25.6	74.4
	하	42.5	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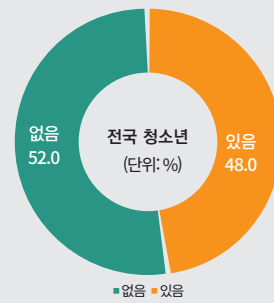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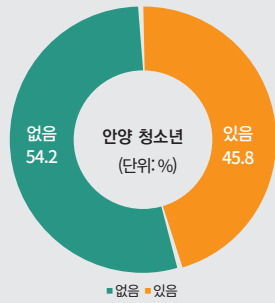
(5) 인권 일반

안양 청소년의 약 46%가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전국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급이 낮고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교육 경험률이 높았다. 인권교육은 주로 학교 교과 수업(79.5%)에서 이루어졌고, 창의적 체험활동(37.2%), 청소년시설(8.3%)이 뒤를 이었으며, 사회단체를 통한 교육 비중은 낮았다. 차별 경험으로는 외모나 신체조건(20.3%)이 가장 많았고, 성별(19.4%), 나이(18.3%), 학업성적(17.5%) 순이었으며, 차별 경험은 주로 교급이 낮거나 학업성적·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6) 사회적 가치

안양 청소년은 안전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평가하였고, 다음으로는 환경과 인권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전문가그룹은 인권, 안전, 의사결정 참여를 꼽아서 상위 2개 요소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안양 청소년의 인권교육 경험〉



구분	있음	없음
학교급	초등학교	43.9
	중학교	57.8
	고등학교	60.1

구분	있음	없음
학교 성적	상	43.7
	중	56.2
	하	67.1

구분	있음	없음
경제적 수준	상	47.1
	중	55.0
	하	64.9

2) 결론 및 시사점

안양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참여권과 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전국 대비 다소 높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교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안양이 전국 대비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에 관내 학교에서 학교의 규칙, 규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학부모와 교사, 주변 친구/선후배 등으로부터 여전히 신체적 체벌이나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육 주체에 따른 맞춤형 폭력 예방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 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적 건강인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고 있다. 즉, 성적과 가정의 경제력은 청소년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감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고, 우울감에는 부(-)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현재의 성적이나 물질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다양한 가치와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청소년 교육 및



안양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정책토론회(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활동 사업의 질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부족, 디지털 유해 환경,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가 되고 있어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실제 요구와 복지를 우선시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욕구에 맞춰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반영한 시설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청소년들이 여가를 청소년시설에서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거리, 놀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지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양시에도 청소년 전담 인력이 배치되면 정책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담당하는 안양시와 정책을 실행하는 안양시청 소년재단은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 「2024년 안양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2024, 여성가족부.
- 『안양시 청소년 행복실태 조사보고서』, 2022, 안양시 청소년재단.
- 『청소년백서』, 2023, 여성가족부.

제3장

청년기의 생활세계

권오현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1. 청년기와 청년 문제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르익어 독립된 성인이 되는 시기로서, 향후 중장년층으로 성장하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이다. 청년기는 개인적·사회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은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안양시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개발과 자립 기반 마련 및 지속 가능한 사회 참여를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시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배경에는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청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한국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되었다. 청년 인구의 장기적인 감소는 국가 규모의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2020년의 19세~34세 청년 인구 규모는, 2011년 11,423,297명에서 2020년 10,504,727명으로 918,570명이 감소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08,596명으로 6.92% 감소하였고, 여성은 509,974명으로 9.24% 감소하였다. 청년 남성 인구보다 여성 인구가 더 감소하였다.¹

이 같은 청년 인구의 감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결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처한 오늘날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이 같은 변화는 청년의 삶에서







안양시 일자리센터 꿈찾기 잡페스티벌(2016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낳았고, 과거와는 다른 생애주기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청년을 생애주기 전환의 위기에 놓이게 하였다.

한 사람의 생애 과정을 놓고 본다면, 청년은 현실에 대처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이행기라고 볼 수 있다. 청년기를 세분화하여 고찰할 때, 일반적으로 19세~24세는 학업을 통한 취업 준비의 시기이며, 25세~29세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30세~34세는 결혼과 독립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 같은 생애 과정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청년기의 학업과 직업의 연계가 파괴되면서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적 위기·주거 불안·정신건강 위험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기의 위험 증가는 청년기 이후의 생애주기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그에 따른 위험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²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이미 상당수가 노인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여기고 있으나, 청년의 문제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거에는 ‘학업, 취업, 결혼과 가정, 내 집 마련’ 등으로 비교적 예측 가능한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기가



청년기는 결혼과 독립을 수행하는 시기이다.(이정범 제공)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그와 같은 생애주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학교 학비 인상과 학자금 대출, 비정규직과 단기 계약직 일자리 증가 및 일상화, 안정된 청년 일자리의 감소, 주거 비용의 상승 등으로 청년기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생애주기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무너트리면서 청년의 우울·고립·자살 등 삶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이전의 청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계층으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의 청년은 고비용으로 인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불확실성 증가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내려놓는 세대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청년이 겪는 고통은 ‘노인의 4고(苦)’에 비견할 만한 ‘청년의 4고’로 요약된다. 이는 경제적 빈곤, 주거 안전의 취약성,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병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네 가지 고통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복합적인 위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청년의 위기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³

2. 안양시 청년 인구의 분포와 특성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청년 인구는 축소되고 있지만, 안양시는 청년 인구의 규모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전부터 서울 인근의 교통요지이자 산업도시로서 청년층이 밀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고, 안양에 정착하지 않아도 안양을 생활권으로 가지고 있거나 상당 기간을 안양에서 보내는 청년층이 많았다. 즉, 전통적으로 청년층의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에 속하였다. 여기에는 안양뿐만 아니라 안양 인근 도시에 대학교를 위시한 각급 교육 기관이 산재한 까닭도 한몫하였다. 일찍부터 도로·철도·지하철 이용이 편리했던 안양의 교통 환경은 청년층의 정착·집결·유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지하철역과 버스 터미널, 그리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문화와 여가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서울과 가깝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서 편하다. 교육적인 측면도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영화관과 같은 문화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좋다.

교통이 좋다. 수원이나 인천·서울을 30분 정도면 갈 수 있고, 지방을 내려갈 때도 광명역과 가까워서 좋다.

문화생활 측면에서 모임 하기에 교통이 용이하고 영화나 공원에 가기도 좋다. 서울에 나가서 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도 다 있어서 편하다.⁴

이러한 요인들은 안양시 청년 인구의 형성과 이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안양시 청년 인구는 152,228명으로 전체 인구의 27.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평균 청년 인구 비율인 27.08%를 상회하는 수치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8번째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 내 지자체 간 비교에서 상대적인 수치일 뿐이며,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전국적 추세를 고려하면 안양시 역시 청년 인구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안양시 청년 인구는 2019년 이후 연평균 2.78%의 감소율을 보인다. 다만 2020년부터 30세~34세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1년~2022년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한 인구 유입 결과로 해석된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만안구 안양동이다. 안양동은 안양시의 구도심에 속



안양시 교통의 중심 안양역(202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성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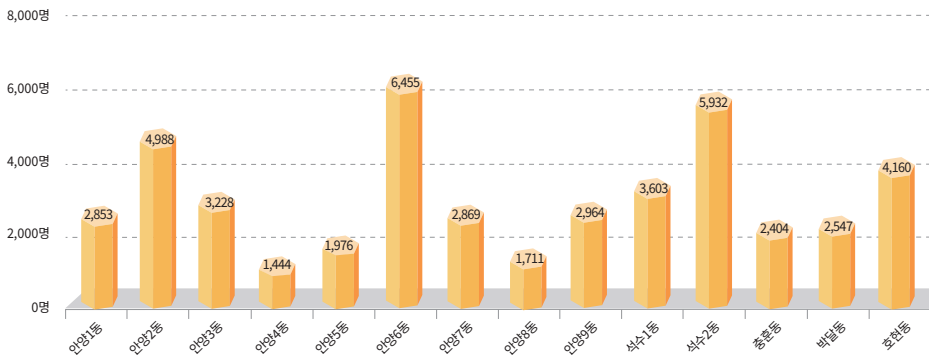


안양7동과 호계동 일대 공업지역(2024년)

하는 지역으로서 대학교와 전철역 등 교육과 교통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서, 일반 거주자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유동 인구 역시 많은 곳이다.⁵

안양시 전체 인구는 여성이 50.6%, 49.4%의 남성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청년 인구의 경우 남성이 51.8%, 여성이 48.2%로 청년 남성 비율이 더 높다. 구별로 보면, 만안구는 총인구 대비 27.8%, 동안구는 28.0%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안양시에서 청년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은 관양동으로 9,640명(동 총인구 대비 28.4%)이며, 청년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만안구 청년 인구 수(2024년 10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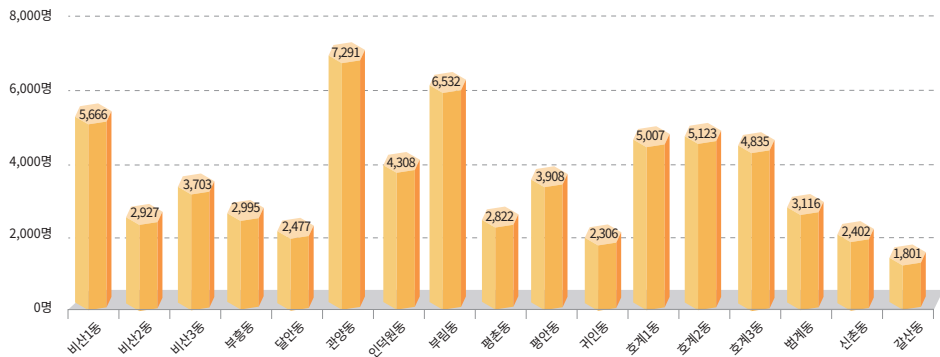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등은 34.6%(10,024명)의 달안동이다. 안양시 청년 인구를 5세 단위로 연령 구간을 분류하면, 모든 구간이 20%대로 골고루 분포하는 편이다. 만안구는 25세~34세 청년 인구가 많은 편이고, 동안구는 30세~39세 청년 인구가 많다. 아파트를 비롯한 다인 가구 중심의 공동주택이 많은 동안구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⁶

안양시 자체적으로는 청년층 감소 현상이 관찰되지만, 전국 단위로 본다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은 청년 인구를 보유한 도시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의 전·월세 비용 상승, 신도시 개발 등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를 유도했고, 그중 상당수가 서울과 인접한 안양과 같은 교통요지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국적인 인구통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2020년 기준 19세~34세 청년의 지역 간 순이동을 보면, 서울·경기·세종 지역만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61,942명의 청년 순유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서울(37,228명), 세종(3,86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경기 지역, 특히 안양과 같은 서울 출퇴근 권역의 도시로 청년 인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⁷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청년 인구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 2012년 안양시 전체 인구는 611,412명, 청년 인구는 156,081명으로 청년 비율이 25.5%였으나, 2022년에는 전체 인구 548,228명 중 청년 인구가 122,985명으로, 비율이 22.4%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의 청년 비율도 24.1%(2012년)에서 21.6%(2022년)로 감소하여,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동안구 청년 인구 수(2024년 10월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⁸

결국 이 같은 청년 인구의 변화는 단순한 인구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청년기 생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중에서도 안정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의 유무는 이후 결혼, 주거, 가정 구성 등 전체 생애주기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양시 청년들의 취업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곧 청년들의 생활세계를 들여다보는 출발점이 된다.

3. 안양시 청년 이슈 : 취업

2021년도 실시한 안양시 청년실태조사에서 따르면, 안양시 청년의 취업 활동, 즉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 이상 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활동 경험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 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제(26.1%), 전일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 경험이 높은 이유는 주로 30세 이상 연령대에서 사회 경험과 직업 경력이 많은 청년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세~24세(50.9%)와 대학생(54.7%), 취업준비생(34.5%)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시간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활동 또는 취업 및 창업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학교 재학 및 학업 준비가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35세~39세 그룹의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36.4%), '취업을 준비할 여건이 안됨'(31.8%)의 수치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⁹

안양시의 청년층은 취업을 위한 준비 활동으로,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40.7%)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교육(직업 훈련 등) 수강'(27.6%), '면접 기법,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교육'(8.8%)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 활동 또는 취업 준비 기간은 '6개월 이내'(40.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1년 미만'(29.0%), '1년~2년 미만'(2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 활동 또는 취업 준비 기간이 '4년 이상'인 비율은 35세~39세 그룹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 준비생과 자영업자의 경우 '1년~2년 미만'의 비율이 동일하게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적어서'(2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력/자격증 등 요구조건 미충족'(23.6%),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안양 지역 강소기업 청년채용박람회(201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의 채용인원 감소'(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안양 거주 청년이 안양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직면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일을 안양 내에서 하고 싶어도 어떤 분야든 마땅한 곳이 없다. '나는 안양이 좋은데 왜 서울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에서 일을 찾아야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아쉬운 점은 취업 준비 분야가 마케팅인데 안양에서 일을 찾아봤지만, 관련된 건 전혀 없었다. 안양에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안양시에 있는 회사 명함만 보면 생산 단지 위주로만 있고 내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는 적은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서울로 가서 알아보게 된다.

회계사 자격증을 따면 안양 밖에서 취업할 생각이다. 직업 특성상 법인에서 2년 일해야 하는데 안양에는 회계법인이 없는 것 같았다.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그 후를 생각해봐도 안양에서 거주하는 해도 안양에서 일을 구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안양에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¹⁰

이 같은 목소리는 안양시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원하는 일자리 부족'이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스펙 경쟁 어려움'(20.9%)과 '취업에 필요한 경험 쌓기의 어려움'(11.1%)이 뒤를 이었다.¹¹

이러한 문제는 안양시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서울 인접 도시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상 수도권 집중의 현상은 서울 집중에 따른 인구 유입이 서울을 넘어서 확대된 형태이지만, 인구를 제외한 사회 각 부문, 특히 경제 부문의 핵심인 기업은 여전히 서울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양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업 분야는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외국계 기업 등인데, 이들 대부분은 서울에 위치한다. 결국 많은 청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조에 놓이게 되며, 이는 안양이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양시 청년 일자리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정주 여건과 경제활동 기반 강화는 안양 청년뿐 아니라 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4. 안양시 청년 이슈 : 주거 문제

취업 문제와 함께 주거 문제는 현재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생애과정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주거는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청년의 독립과 자립, 나아가 미래 설계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은 서울 청년층을 안양과 같은 인근 도시로 이동시키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지방으로부터의 전통적인 인구 유입에 더해, 최근에는 서울발 청년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도심 재개발과 신도시 확대로 인해 경기도의 집값과 전·월세 비용도 함께 상승하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기업이 서울에 집중된 구조로 인해 안양을 포함한 경기도 청년들은 대부분 서울 또는 인근 도시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구직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주거 문제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고 가격에 맞추다 보면 거주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이 가



2016년 서울시 동작구청이 건립한 양녕 청년 공공임대주택(동작구청 제공) 동작구 산하 출자기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기부금으로 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월세 만 원' 주택으로 화제를 모았다.

장 큰 것 같다.

친구들도 다 안양에서 나고 자랐다. 그런데 안양에 더 살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고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한 명씩 생기는데 안양 집값이 비싸서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1인 가구 청년이 살 만한 곳이 많지 않다. 동안구는 너무 비싸고, 만안구는 오래되고 안전하지 않다.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기준에 맞는 집을 찾기 어렵다. 집주인은 그런 정책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가까운 친구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다.¹²

안양시의 청년 주거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양시 청년은 '부모



온라인 부동산에 소개된 안양6동의 원룸

와 동거'가 61.4%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와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를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24세의 경우 '동거'(90.7%)가 가장 많고, 35세~39세의 경우 '독립'(73.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 동거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독립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을 이루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와 독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거비 조달 방법으로 '본인 여유자금 + 대출'(37.0%), '본인 여유자금'(30.3%), '대출로 충당'(12.0%)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68.2%로 가장 많았고, 연립·다세대·다가구 18.0%, 오피스텔 7.5% 순이었다.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가 62.0%로 가장 많으며, 전세 26.2%, 보증금 있는 월세 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 분석 결과, 30세~34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14.5%) 비율이 가장 높았고, 35세~39세는 자가 비율(62.9%)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¹³

이는 역으로 막 사회에 진출했거나 혹은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주거비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사회 진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지속되어 경제력을 확보해야 비로소 주거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 같은 사정은 안양시의 청년 주거, 더 나아가 정주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이다.

주변의 과천, 의왕, 군포 등은 공공 주거 공급을 많이 한다. 그런데 안양은 정말 적다. 안양시도 공공 주거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결혼을 생각하면 안양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 최근 임대주택 알아봤을 때, 군포·과천은 공고가 계속 올라오지만, 안양시는 공고가 거의 뜨지 않는다. 그래서 1~2인 가구를 위한 집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독립을 해야 하는데 마땅히 살 곳이 없다. 청년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아파트는 많지만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은 거의 없다고 느낀다.¹⁴

주거와 관련된 청년들의 고충은 안양시의 일반 청년뿐 아니라 현장에서 각종 현안과 씨름하는 청년 활동가의 전문적인 시야에도 포착되어 있다. 이들에게 주거 문제 해결은 안양시 청년정책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 안양에서 오래 산 청년이나 전입한 청년 모두 첫 번째로 주거 문제에 직면한다. 우리 시에 청년 인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정책 목표가 있다면 월세 지원을 좀 더 촘촘히 해야 할 것 같다.

청년들을 유입하고 싶으면 주거 문제를 제1순위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¹⁵

안양시는 지리적 이점과 위상 덕분에 일정 수준의 청년 인구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향후 인구감소 시대에도 청년층 비율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취업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청년층 부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책이기도 하다. 청년층의 부채는 높은 학비로 인하여 청년기 진입과 함께 일반적인 현상이 되다시피 했으며,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청년층 부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주거, 결혼, 출산과 자녀교육 등이 겹치면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5. 생애 과정의 포기과 위기 청년

201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 세대를 가리켜 'N포 세대'라고들 한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 하여 '3포 세대'라고 불렸던 것이 어느새 포기한 항목들이 하나씩 추가되어 취업과 내 집 마련의 포기를 포함해서 '5포 세대', 여기에 건강과 외모 관리를 더 포기해 '7포 세대', 여기에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했다 하여 '9포 세대'까지 확대되었다. 포기하는 항목은 계속 추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안양 청년들이 앞으로 생애에서 포기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사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안양의 청년들이 포기한 것은 '내 집 마련'(29.0%)과 '출산'(11.9%), '결혼'(8.4%) 등이었다. '내 집 마련'은 남성 32.7%, 여성 23.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여성은 '출산'(19.1%)을 포기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많이 꼽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결혼'(12.5%)을 포기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기본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월급 수준은 350만 원 이상으로 생각한다.¹⁶ 결국 생애 과정에서의 포기는 미래에도 현재 상황이 극복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비관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202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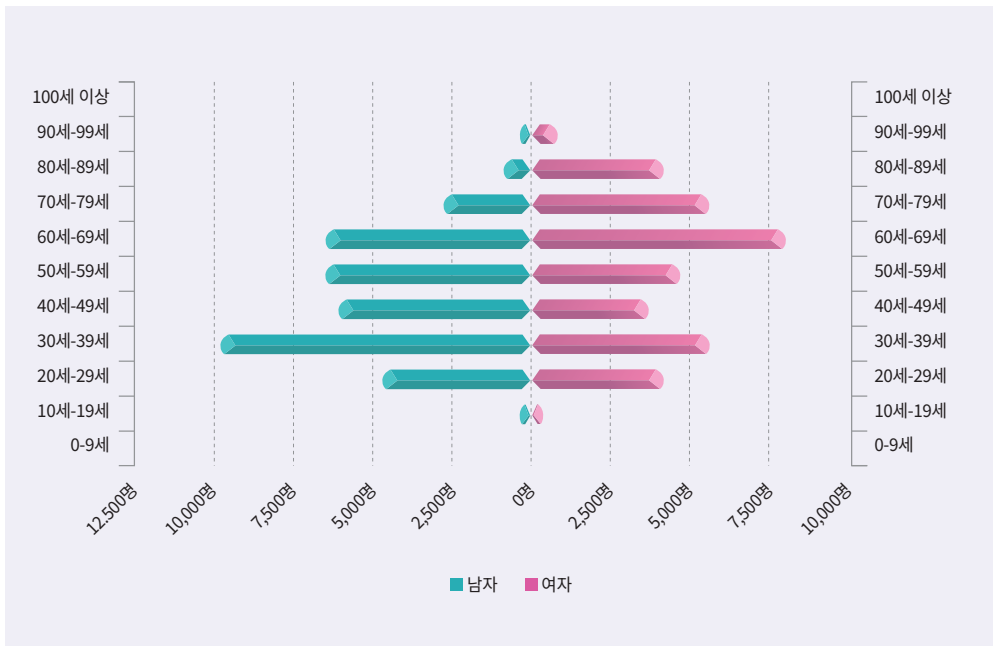
이는 청년 문제가 사안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결국 포기하는 N개의 항목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안정된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안양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29.1%)와 ‘주거, 임대 등의 주거비용 조달’(18.0%) 순으로 꼽았다.¹⁷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1인 가구의 증가는 청년층의 빈곤과 무관하지 않다. 흔히 1인 가구의 증가는 중년 이상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청년층이 한국 사회의 1인 가구 증가를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 가구의 증가율에 비하여 1인 가구의 증가율이 큰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와 관련하여 세부 연령대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 기간 남성과 여성 모두 25세~29세 연령층의 1인 가구 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다음의 표는 안양시 1인 가구의 현황을 보여주는데, 청년층의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다.

안양시도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20세~39세 청년 층 1인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19,325명으로,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25세~34세의 1인 가구 수 증가율이 13.45%를 기록하였고, 2021~2022년에는 30세~34세 1인 가구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¹⁹ 청년층의 1인 가구 확대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 임금 및 소득 격차의 심화, 자산 불평등 확대 등의 경제적 요인과 이로 인한 불평등한 전망이 주요 원인이다.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청년층 1인 가구는 비혼과 만혼이 직접적 원인으로 과거와 다르게 청년 세대가 가족 형성을 하지 못하거나 그 형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과 친인척 관계 그리고 직장과 같은 사회생활을 통해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때, 이 같은 1인 가구는 가족 관계라는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축소 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 역시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소득이 낮을 수록 사회적 관계가 축소될 가능성은 더욱 크다. 청년기에 사회적 경험이 짧고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주거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사회적 관계를 축적할 기회와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²⁰



안양시의 연령별 1인 가구 현황(희망제작소,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안양시, 2024, 31쪽.)

청년 1인 가구는 건강 관리에도 위협을 받는다. 이미 청년층의 상당수가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굶거나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건강검진 같은 직원 복지에서 제외되어 체계적인 건강 관리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편이다. 또한 최근에는 자학적 열패감, 과도한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청년층이 급증하면서 정신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²¹ 좁게는 안양에, 넓게는 경기도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결국 이러한 상황은 청년층의 빈곤 문제로 귀결된다. 즉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년기의 문제와 위기는 청년층 빈곤 문제로 전환되고 있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2023년 6월 기준 안양시의 청년 기초수급자는 28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7%를 차지하며 2021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실시된 안양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생계 유지의 어려움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20세~29세 청년 중 27.1%가 소득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20세~29세는 31.3%, 30세~39세는 27.3%에 달했다.

특히 안양시 청년들이 생활비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분야는 주거비로,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 이로 인해 커뮤니티 참여가 제한되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문화 및 여가생활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²² 따라서 청년층의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6. 안양시의 정책적 대응과 청년기의 삶

2000년 이후 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2015년에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20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안양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16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2월에는 이를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기의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비교적 발 빠르게 청년정책을 추진한 안양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청년

친화헌정대상 수상이 있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을 위한 정책·입법·소통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안양시는 해당 상이 제정된 2018년 이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수상하고 있다.²³ 2023년과 2024년에는 2년 연속으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다.

안양시는 2017년 청년정책 시행 당시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8년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이라는 비전을 마련하였다. 이 비전 실현을 위해 ①안정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②청년과의 소통 및 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친화 정책 추진, ③다양한 취업·창업 기회 확대를 통한 청년 역량 강화, ④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청년 행복 정책 추진이라는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정책 목표로 청년 자립, 청년 성공, 청년 행복의 세 가지를 정하고, 주요 정책 분야를 ①소통·참여, ②취업·창업, ③문화·복지로 구분하였다. ①소통·참여 분야에는 시정 청년 참여 확대, 청년 공간 조성·지원, 청년 활동 조직화 및 지속성 보장 등이 포함되었다. ②취업·창업 분야에는 취업·창업 활동 지원, 일 경험 기회 제공, 청년 창업 활성화, 창업 공간 지원, 청년 역량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③문화·복지 분야에는 청년 생활 안정 지원,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청년 축제 등 문화 여가 활성화, 청년 배당 등의 중점과제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146억 원의 예산으로 총 31개 세부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8년 11월 1일에는 청년정책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관’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실행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²⁴

이를 바탕으로 안양시 ‘제1차 청년기본계획’이 기획되어 실행되었는데, 2019년에서 202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하였다. 일자리, 주거, 기혼 청년 복지 등에 관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 제도적으로는 2019년 이후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2019. 3. 제정),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2019.10. 제정),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2020. 3. 제정),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2023. 10. 제정)를 마련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제도적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안양시는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이라는 비전 아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사업의 수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취업 지원 사업은 2019년 6개에서 2023년 17개로, 주거 지원 사업은 1개에서 6개로, 복지 사업은 4개에서 10개로 각각 증가하였다.



안양시 2019년 청년친화형정대상 수상(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2021년 일자리 박람회 안양시 청년정책관 부스(안양시청 청년광장 제공)



명학마을 청년행복주택 두루미하우스 (202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비산동 청년주택 체육시설(202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비산동 청년주택 북카페(202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동안청년오피스(202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범계역 청년출구 앞의 안양시 청년정책 홍보물(2023년)



안양시는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이라는 비전 아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사업의 수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연성대학교 제공)

정책 대상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2023년 기준 10개의 복지 사업 중 4개는 기혼 청년의 임신·출산·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주거 지원 사업 중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매입 및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기혼 청년을 위한 특화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양시 차원의 주택 공급 사업에서도 주택 평형 기준을 2~3인 가구 중심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를 미혼 청년뿐 아니라 기혼 청년까지 확대하고 있다.²⁵

안양시는 1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차 청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사업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청년정책을 소개한다.²⁶

먼저 소통·참여 분야에서는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등록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범계역 청년출구'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청년인재등록 제도는 안양시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된 청년은 각종 위원회 위원, 강사, 심사위원 등의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취업, 금융, 데이터 교육 등 실생활과 연계된 온라인 무료 교육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양청년광장(청년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범계역 청년출구'는 범계역 롯데백화점 지하 1층 광장 내에 위치한 청년 전용 공간



2024년 안양청년축제(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으로, 회의나 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공간 대관은 물론, 자기진단 및 상담, 소통과 커뮤니티 지원, 직무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의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 가구 이사비 지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임대주택 공급 등이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직업 탐색과 진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ALL Question’ 커리어 고민 솔루션,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 있다.

‘ALL Question’은 16세에서 39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취업, 이직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해 현직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상담해주는 플랫폼이다. AI 자기소개서 분석 서비스도 제공되며, 실무 상담 사례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 자립 준비 중인 청년, 쉼터 퇴소 청년, 복한이탈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도전(단기)·도전+(중기·장기) 유형으로 총 90명을 모



제1회 안양청년축제(2019년)



제2회 안양청년축제(2021년)



제3회 안양청년축제(2022년)



제4회 안양청년축제(2023년)

참고자료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 경기도, 2022.
-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 『안양시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본보고서』, 안양시, 2021.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백서』, 국무조정실, 2022.
- 권오현, 「고독사, 한국사회의 위기와 죽음의 탈사회화」, 『탈사회의 사회학』, 한올아카데미, 2022.
- 더가능연구소,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안양시, 2023.
- 박지영, 「청년이 위험하다, 청년 4고(苦)」, 『복지이슈 FOCUS』 2003-11, 경기복지재단, 2003.
- 변진경, 『청년 흡입 보고서』, 들녘, 2018.
- 안양시, 『ALL 안양청년정책모음』, 안양시, 2024.
- 안양시 여성가족과, 『2021 안양시 성인지 통계』, 안양시, 2021.
- 안양시 청년정책관, 『안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안양시, 2024.
- 최조순·박지영·조해진, 「경기도 청년 인구의 사회적 이동 실태 및 특성」,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5-2, 13, 한국지적정보학회, 2023.
- 희망제작소,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안양시, 2024.

경기데이터드림(<http://data.gg.go.kr/>)
안양시 공식 블로그(<https://m.blog.naver.com/>)
안양청년광장(<https://www.anyang.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지표누리(<http://index.go.kr/>)
청년과미래(<http://ynf.or.kr/>)
청년의 날(<https://2030fair.co.kr/>)

註

-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백서』, 국무조정실, 2022, 31쪽.
- 2 박지영, 「청년이 위험하다, 청년 4고(苦)」, 『복지이슈 FOCUS』 2003-11, 경기복지재단, 2003, 1~2쪽.
- 3 박지영, 앞의 책, 3~10쪽.
- 4 더가능연구소,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보고서』, 안양시, 2023, 115~116쪽.
- 5 희망제작소,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안양시, 2024, 29쪽.
- 6 더가능연구소, 앞의 책, 23쪽.
- 7 국무조정실, 앞의 책, 36쪽.
- 8 최조순·박지영·조해진, 2023, 「경기도 청년 인구의 사회적 이동 실태 및 특성」,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5-2, 한국지적정보학회, 2023, 34~50쪽.
- 9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 앞의 책, 81~85쪽.
- 10 더가능연구소, 앞의 책, 105~106쪽.
- 11 경기지방행정연구원, 앞의 책, 103쪽.
- 12 더가능연구소, 앞의 책, 104~105쪽.
- 13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 앞의 책, 121~126쪽.
- 14 더가능연구소, 앞의 책, 109쪽.
- 15 더가능연구소, 앞의 책, 110쪽.
- 16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 『안양시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본보고서』, 안양시, 2021, 145~146쪽.
- 17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 위의 책, 157쪽.
- 18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앞의 책, 39쪽.
- 19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앞의 책, 39쪽.
- 20 권오현, 「고독사, 한국사회의 위기와 죽음의 탈사회화」, 『탈사회의 사회학』, 한올아카데미, 2022, 305~351쪽.
- 21 변진경, 『청년 흡입 보고서』, 들녘, 2018, 49쪽.
- 22 희망제작소, 앞의 책, 30~31쪽.
- 23 청년과미래(<http://ynf.or.kr/>)
- 24 더가능연구소, 앞의 책, 175쪽.
- 25 더가능연구소, 앞의 책, 193쪽.
- 26 안양시청 홈페이지

제4장

노년기의 생활세계

권오현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1. 또 다른 미래, 노년기와 노인 문제

노년(老年)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때 또는 늙은 나이'를 뜻하며, 노년기(老年期)란 '늙은이가 되어 지내는 시기'를 지칭한다. 노인이 되어 삶을 영위하는 시기가 곧 노년기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1조 2항 5의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조항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항에서도 제도의 주된 대상으로 65세 이상을 언급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은 65세이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62세에서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5세로 늘어날 예정이다.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제도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모두 65세 이상이 기준이다.¹

그러나,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존의 틀로 노인 연령을 규정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노인의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낳고 있다.² 65세 이후를 노년층이라 일괄 규정한다 해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속적인 기대 수명의 증가는 65세 이후로도 세대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노년기를, 65세~74세의 연소 노인(young-old), 75세~84세의 중고령 노인(middle-old),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같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65세의 노인과 85세 이상의 노인은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가 다르며, 그에 따라 전혀 다른 세대라고 볼 수 있다.³ 따라서 노년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광범위한 세대와 연령을 포괄하고 있으며 노

년층은 내부적으로 다양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지닌 연령의 인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년기는 생애 과정에서 성인기를 지나 은퇴와 함께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시기이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 활동의 둔화를 경험하고 건강 상태 역시 과거와 같지 않음을 실감하게 되며, 이는 심리적으로 개인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겪게 되며, 가족 내에서도 그 역할이 축소되어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주변 인물의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점차 고립되고 폐쇄적인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퇴 후 노인은 소득이 급감하고 재취업이 어려운 데 반해, 기대 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기 쉽다.

한국 사회는 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였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 사회의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는 인구 불균형의 초래와 더불어 노년 부양비(老年扶養比)를 증가시켜 노인 빈곤의 문제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⁴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고령자의 수와 비율 증가보다 OECD 최고 수준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60대~70대 노인의 자살률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다.⁵

이처럼 노년기가 오늘날 한국의 사회 문제로 급격하게 대두되는 상황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기대 수명의 증가,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화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개인의 생애 과정을 변경시켜 놓고 있다. 개인의 생애 과정은 지극히 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개인이 속한 사회와 문화가 제시하는 일종의 ‘삶의 시간표’ 혹은 ‘문화적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몇 살까지는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고 또한 그에 적합한 사회적 지위를 성취해야 한다는 통념이 생기게 된다. 구체적으로 특정 나이와 연령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그만큼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오늘날의 노년층에게 이러한 문화적 지침이 갑자기 ‘증발’해버린다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20~30년의 기간을 살아야 하는, 따라서 과거 노년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모두 증발해버린 불확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노년의 삶을 더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⁶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노년층은 사실상 새롭게 길을 개척해가는 세대이며, 한국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년층이 향후 한국



안양시 노인복지센터 개관(2000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안양시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워크숍(2005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장수 노인 위문(1991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사회를 직접 짚어지고 살아갈 미래 세대라면, 노년층은 이들이 어떻게 살게 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늠해 준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미래인 셈이다.

2. 안양시 노년층의 현황

한국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안양시도 노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안양시 총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안양시 노인 인구는 79,282명으로 총인구의 약 14.5%를 차지하여 안양시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노인 인구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안양시 연도별 노인 인구의 변화를 보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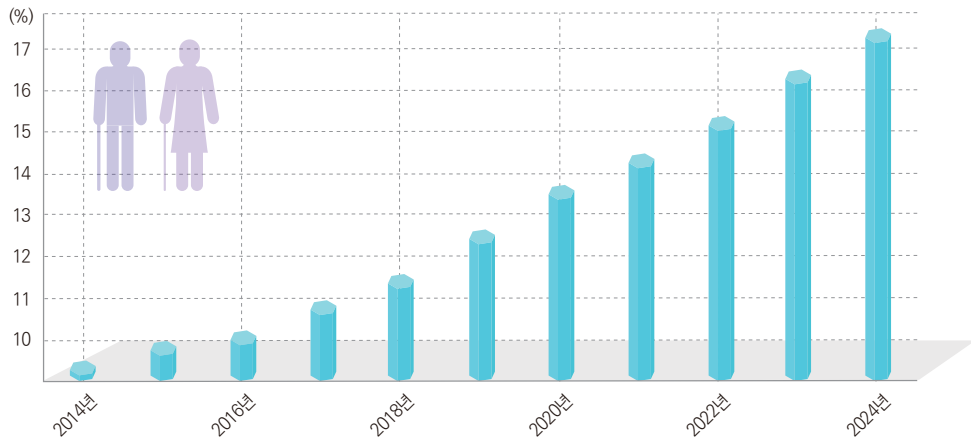
연도별 노인 인구를 살펴보면, 꾸준히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9.42%에서 2024년 17.51%로 증가한 것은, 안양시가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한국 사회와 경기도의 전반적인 추

세와 일치한다.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전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수가 가장 많으나, 노인 인구 비율은 13.5%로 전국 평균 16.7%보다 낮은 편이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경기도의 인구구조는 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⁷ 안양시는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와 비교하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안양시는 성남시(14.5%), 부천시(14.2%), 광명시(14.3%), 고양시(13.9%), 과천시(14.1%), 남양주시(14.4%), 의왕시(14.1%)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⁸ 이 도시들은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일정한 산업 요건과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노인층 인구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젊은 층의 인구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표 1〉 안양시 연도별 노인 인구 변화

2025. 1. 1. 기준											
구분(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인구 (명)	608,309	605,451	604,652	594,697	584,239	567,044	550,027	547,178	548,228	544,660	556,492
노인인구 (명)	57,295	59,809	61,675	64,774	67,680	71,643	75,581	79,282	84,390	90,026	97,448
비율(%)	9.42	9.88	10.2	10.89	11.58	12.63	13.74	14.48	15.39	16.53	17.51

출처 : 안양시청(<http://www.anyang.go.kr/>)



안양시 연도별 노인인구 비율 추이



만안구 노인복지회관(2003년, 안양시청 제공)

안양의 노인 인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시 전체로 본다면 노령층 인구는 노령층의 모든 세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노령층의 인구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한다는 일반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구별로 보았을 때는 표면상으로는 대체로 비슷한 인구수를 보여 주고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7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동안구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동안구에 노령층 인구가 다소 많이 거주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10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만안구와 동안구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규모와 비율은 노년층 생활의 질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자주 언급된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는 노년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노년층은 배우자 사망, 성인 자녀의 독립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는 혼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독거노인은 고독사와 더불어 빈곤층 1인 가구의 실상을 대증적으로 각인시키면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의 노인층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으로 268,019가구로서 전국 시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모든 시도에서는 경기도의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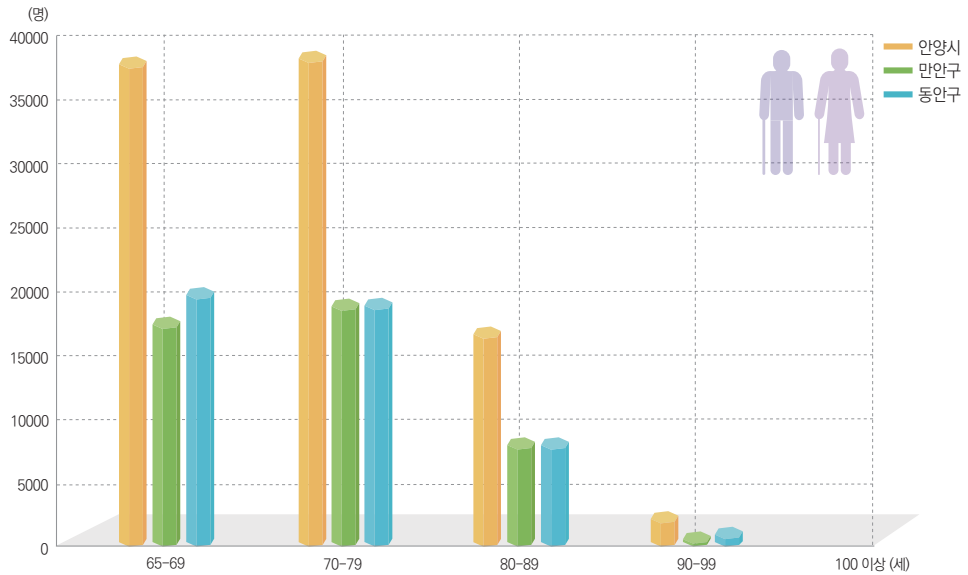
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의 주요 도시와 안양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표 2〉 안양시 노인 인구 현황

2025. 1. 1. 기준, 단위: 명, 세

구분	연령	65~69	70~79	80~89	90~99	100 이상	비고 (노인비율)	
합계	계	97,448	38,410	38,729	17,301	2,947	61	
	남	43,947	18,526	18,354	6,360	697	10	안양시 전체의 17.51%
	여	53,501	19,884	20,375	10,941	2,250	51	
만안구	계	47,483	18,056	19,397	8,666	1,332	32	만안구 전체의 8.5%
	남	21,471	8,682	9,200	3,270	318	1	
	여	26,012	9,374	10,197	5,396	1,014	31	
동안구	계	49,965	20,354	19,332	8,635	1,615	29	동안구 전체의 9.0%
	남	22,476	9,844	9,154	3,090	379	9	
	여	27,489	10,510	10,178	5,545	1,236	20	

출처 : 안양시청(<http://www.anyang.go.kr/>)



안양시 노인 인구 연령대별 분포



호계동 노인회관 준공식(1980년, 안양시청 제공)



안양2동 노인회의 공동작업(1981년, 안양시청 제공)



안양시 주최 경로잔치(1990년, 안양시청 제공)



독거노인 초청 합동 회갑연(1990년, 안양시청 제공)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안양시는 전체 일반 가구(B) 205,695가구 중에서 노인층 1인 가구(A)가 11,300가구에 이르러 독거노인 가구 비율($A \div B \times 100$)이 5.5%에 이른다. 이는 부천시(5.8%), 평택시(5.7%), 안산시(5.0%), 고양시(5.5%), 과천시(5.8%), 구리시(5.7%), 파주시(5.6%), 의왕시(5.1%)와 유사한 비율이다.⁹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한 노인 빈곤의 문제는 소득과 직결된다. 경기도 내에서 노인 가구, 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저소득 비율은 안양의 경우 26.3%이며, 노인 1인 가구의 저소득 비율은 31.4%이다. 저소득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말하며 이는 통계청의 2020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전국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노인 빈곤율은 38.9%이며, 경기도의 노인 포함 가구 저소득 비율은 31.7%이다.¹⁰ 안양시는 노년층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반영된 양상이 노인 빈곤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고양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등의 분포와 유사한 노인 빈곤율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안양시는 이 도시들과 유사한 도시적 특성으로 인하여 빈곤을 포함한 노인 문제와 그 대응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3. 안양시의 노인 대책과 노인복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안양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는 다양한 노인복지의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현재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과 노인복지 시설을 소개한다.¹¹

1)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기초연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선정 기준 적합자) 2024년도 현재 1959년 생일 도래자이다. 선정 기준은 단독 노인의 경우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하, 부부 노인의 경우 소득 인정액 340.8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독



반찬 나눔(2022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노인은 33,480원~334,810원을, 부부 노인은 64,960원~535,690원을 받을 수 있다.

(2) 노인 무료 급식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 등이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급식소 8개소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급식을 지원한다. 8개 급식소는 안양시노인종합



경로당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2012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복지관, 비산종합사회복지관, 부흥종합사회복지관, 율목종합사회복지관,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석수교회, 사랑의 밥상, (사)함께하는 한숲 등이다.

또한, 차상위 이하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 중 거동 불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배달하고 있다. 주 6회 도시락 배달과 주 1회 밑반찬 배달을 하는데, 2024년 현재 도시락 110명, 밑반찬 75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식사 배달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만안종합사회복지관, 가정방문봉사단, 대한적십자봉사회 안양 지구협의회 등이 맡고 있다.

(3)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 관리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정책이다. 지원 기간은 동절기 5개월(1월, 2월, 3월, 11월, 12월)이며,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대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개별 가구이고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4) 경로당 지원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사회봉사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규모는 경로당 회원 수, 급식 인원, 경로당 면적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안양시에는 244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 다음과 같다.

〈표 3〉 안양시 경로당 현황

2024. 4. 30.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경로당 수	시 소유 경로당			민간 경로당 (아파트 등)
		계	일반	다목적복지관	
계	244	61	48	13	183
만안구	112	40	32	8	72
동안구	132	21	16	5	111

출처 :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5) 경기도 우대용 교통 카드(G-PASS)

‘G-PASS’는 경기도 거주 수도권 전철·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경기도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지하철 무임 교통 카드’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1회용 종이 승차권 대신 반복 사용이 가능한 비접촉식 카드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 65세 이상 경기도 거주 노인 혹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경기도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용·체크·현금 카드나 단순 교통 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하여 교통 시설 및 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안양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안양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현황

유형	인원(명)	활동	대상	기간	2024년 기준	
					근무 시간	월 급여(원)
공익 활동	3,155	독거노인, 거동 불편 노인 등 취약 노인 가정을 문하여 안부 확인, 말벗 서비스 제공, 복지·교육 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등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1개월	월 30시간 이상	290,000
사회 서비스형	970	돌봄 시설 및 취약 계층 지원 단체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 제공	60세 이상 (일부 유형)	10개월	월 60시간 이상	634,000
시장형	490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운영(희망작업장, 커피데이, 한마을택배 등)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연중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최저 인건비 준수
취업 앞선형	163	구인구직 연계			구인처 기준	구인처 기준

출처 :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수행 기관으로는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구 지회, 대한노인회 안양시 동안구지회, (사)경기실버포럼,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등이 있다.

(7)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방문이나 전화로 안전·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안정 지원, 가사 및 병원 진료 등 외출에 동행하는 일상생활 지원, 문화 여가·평생교육·체험 등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 참여, 민간 후원품을 발굴하고 전달하는 기타 연계 등이 서비스 내용이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



노인 일자리 접수(2023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노인 사회 활동으로 진행되는 구연동화 활동 '은빛 입속 이야기'(2023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노인 맞춤형 특화 서비스 건강 달력(2023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건강 달력

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다.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차이가 있다. 1~2등급은 재가 급여 또는 시설 급여와 복지 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 급여와 복지 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같은 인지 지원 등급은 주야간 보호와 복지 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9)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양시는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에서 만안치매안심센터와 동안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 환자 등



동안치매안심센터 개소(2019년, 안양시청 제공)

록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 지원 등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는 치매 예방 교실,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치매 파트너 양성, 치매 안심마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치매 극복의 날 행사는 2009년 처음 실시한 이후 2024년 현재 16회에 이르렀다.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 지원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 인지 프로그램, 가족 교실 운영, 가족 상담 및 자조 모임 등이 있다.

2) 주요 노인복지 시설

(1)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 시설 건립은 노인복지의 기반 제공과 복지 서비스 확충 및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안양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시설로는 2000년 5월에 개관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안양 시민 누구나 이용



정형외과에서 지원하는 노인 운동 특강(2023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할 수 있다. 노년층의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을 위한 상담실, 세미나실, 탁구실, 장기·바둑실, 스마트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년층 대상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의 다양한 기관·주민을 연계하여 노인복지를 조직화하고 있다. 위기 및 취약 노인을 지원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및 권익증진, 독거노인을 위한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¹²



해울학교 단기특강 힐링 원예 교실(2023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남성 노인 1인 가구 자립 식생활 지원 사업(2023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특히 안양9동에 위치한 카네이션 하우스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관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가 운영시간이며,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공동작업을 통해 소액이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쉼터로 이용하기도 한다.



안양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한 국수집 '잔치하는 날'(2009년, 안양시청 제공)

(2) 안양시니어클럽

안양시니어클럽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거나 업체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 전담 수행 기관이다.¹³ 2008년 4월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 기준으로 4,778명의 노인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사업의 유형을 보자면 공동체 사업, 노인 공익 활동, 노인 역량 활용이 있다. 대상, 기간, 근무 시간, 월 급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안양시니어클럽은 노년층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되고 있다. 노년층의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자존감 확립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노년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사회적 차원의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하여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현장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인데, 이는 현장에서의 고충을 그대로 보여 준다.

〈표 5〉 안양시니어클럽 사업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 내용
공동체 사업	할미손 도시락	직접 조리한 도시락 판매
	커플데이	바리스타 전문 교육 이수 후 카페 운영
	세자비	천연 비누 제조 및 판매
	한마을 택배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달(택배사와 연계)
	희망작업장	경로당이나 작업장 이용자들에게 일거리 제공
	엄마 찬스	홈메이드 프리미엄 건강 반찬 전문점
	밥이 보약	백반, 커피, 라면을 조리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판매
	길동무	드라이브 스루(DT점) 매장 교통 안전 지원
	Mom's 맘 샌드	샌드위치, 토스트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배달 판매도 진행
노인 공익 활동	복지 도우미	사회복지기관, 관공서 시설 관리(미화) 및 급식 지원
	학교 급식 도우미	초등학교 급식 배식 준비 및 정리, 식사 예절 지도 등 급식 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
	스쿨존 교통 지원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 안전 지킴이
노인 역량 활용	푸르미	지역아동센터 시설 관리(미화) 및 급식 지원
	다솜	장애인 복지 시설 관리(미화) 및 급식 지원
	쓰담쓰담	관내 우체국 또는 경찰서 환경 미화 및 업무 지원
	시니어 안전 지킴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 모니터링, 소규모 취약 시설 안전 점검, 활동처 내 방역 서비스
	다운	관내 학교, 공공 시설 등의 방역 및 소독, 환경 미화 등의 업무 지원
	시니어 बैं크	- 금융 시설 내 보이스 피싱 예방 및 홍보, 취약 계층 업무 지원 - 푸드뱅크 기부처 발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업무지원, 위기가구 발굴 등의 업무 지원
	시니어 공공 서비스 지원	경찰서 내 민원실 안내 등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공헌 유형 업무 지원
	시니어 일자리 지원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상담 및 기타 행정 업무 지원
	시니어 책 지킴이	도서관 도서 대여 및 반납 서비스 등 도서관 이용 업무 지원

출처 : 안양시니어클럽(<http://www.seniorhappytown.or.kr/>)



안양시니어클럽의 커피점 '커플데이' 1호점(2009년, 안양시청 제공)

저희 같은 경우도 한 1,300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취업 알선형 같은 경우는 기업 같은 곳에서 고용해서 직접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70세 이상은 회사에서 어려워요. 안 써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계약직으로 뽑는데 어르신들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요처에서는 저희가 요양보호사 보조 아니면 식당 보조,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조끼 입고 횡단보도에서 안내하고 담배꽂초 줍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다 공익 활동용으로 3시간씩 해서.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되니까 건강보험은 일단 해결이 되잖아요.(전혜인,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고 중앙 정부에서 발표해도. 전년도에 비해 그래서 저희도 막 긴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자리가 늘어도 당연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요처가 없어요.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럼 이것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전혜인,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mom's 맘 샌드의 샌드위치



할미손 도시락의 도시락



'밥이 보약'의 백반 상차림



'세자비'의 비누 판매대

〈안양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과 판매품〉



2022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진 및 수기공모전에서 수상한 안양시니어클럽의 “불어라, 청춘바람”(안양시니어클럽 제공)

4. 고령 친화 도시 안양, 그리고 노년층의 사회적 삶

안양시는 고령 친화 도시의 조성을 목표로 노인 정책과 복지를 수행하고 있다. 안양 시의회는 2018년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고령 친화란 편리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2조 1항)이며, 고령 친화 도시란 고령 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령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년층을 위한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가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시설과 기반 건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시설과 기반 등의 인프라와 정책이 노년층

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의 선호를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교통요지로서 안양의 입지는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노년층 역시 만족하는 사항이며, 주거 여건 등에서도 만족하는 편이다. 특히 평촌신도시와 재개발지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노년층은 안양의 편리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서울도 가깝고 시흥도 가깝고 수원도 가깝고. 여기가 고속도로도 금방 타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 가운데 가서 서울 시흥, 이쪽에 안양시, 여기는 의왕시 그렇죠.(한계만,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여기에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글썄요. 모든 게 여기가 진짜 중심지 같아. 중심지요.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편리하죠.(강명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수강생)

죽을 때까지 안양에 살고 싶어요. 다 편리해요. 백화점도 있죠. 뭐. 적당한 아울렛 같은 거 있죠. 아주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죠. 저는 다른 데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이춘미,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수강생)

그러나 안양시에 대한 노년층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한국 사회에서 대개 도시들은 내부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민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안양시도 마찬가지로 동안구와 만안구 사이에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동안구와 만안구 노년층 간에는 삶의 만족도와 생활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같은 사실은 동안구와 만안구의 격차를 완화하고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양시에 부과한다. 이는 ‘고령 친화 도시 건설’이라는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도시 내의 지역 간 빈부 격차와 이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과 서비스의 격차는 고령 사회에서 노년층의 일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노인 빈곤이라는 화두로 다시금 연결된다. 특히, 노인 빈곤층의 발견은 노인복지와 사회 통합에서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노인 빈곤층의 문제는 청년층이나 아동의 경우보다 발견하여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 이는 건강, 경제적 수입,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심리적·정신적 문제도 동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은빛사랑나눔단의 봉사 활동(2023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독거노인 같은 경우, 맞춤 돌봄이라고 이제 생겼는데 맞춤 돌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정말 은둔형·고립형 그다음에는 우울형 이런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고독사를 막기 위한 거죠. 그게 사실은 좋은 취지인 거죠. 그런데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요.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누구 입에서 입으로 전래동화처럼 얘기해서 발품 팔아서 이 집에 누가 있다 가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전산화되고 시스템화된 상태가 되니 그런 발품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개인 정보 노출 이게 또 제일 문제가 되고요.(전혜인,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저희 사회복지사들이나 주민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케어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양보호사도 파견을 해드리고 또 저희는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생활지원사도 고용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1인당 15명씩 안양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전혜인,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따라서 점차 고립되어 가는 노년층에게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중요해진다. 이는 노인 일자리나 재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방법일 수도 있으며,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거나 각종 취미와 문화적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 단체 혹은 공공기관이 관계 형성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도 봉사라는 거 처음 했는데 재밌어요. 나도 이제 일거리 없으니까 여기 식당 봉사 차원에서 봉사를 하려고요. 아니 여기 그냥 놀면 뭐 해요. 집에서 여기 밥 먹으러 올 텐데, 기다리니 봉사를 하죠. 식당 봉사는 11시 바블 때부터 다 끝나면 1시까지 2시간씩 해요. 그 봉사 점수 안 받아도 좋으니까.(한계만,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퇴직 공무원 10명이 금빛봉사예술단을 조직하여 노인정, 노인대학, 사회복지관, 양로원 등을 순회하며 열심히 위문공연을 한 지도 벌써 햇수로 2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에 100여 회 공연을 마쳤고 외롭고 고독한 노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나름대로 노인 여가 문화 향상에 노력을 해왔다. 그동안 실적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로부터 비영리 단체 인가를 받고 노인봉사 공연을 활동하고 있다.¹⁴

난 친구도 없어. 여기 오기 전에는 그냥 집에 드러누워서 하루종일 TV 보는 게 일이었다니까. 여기 오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 노래 교실이 열릴 때면 춤도 추고 얼마나 재미있다고.¹⁵



24년 안양시니어클럽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문화체험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 하루

공

안양시니어클럽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문화체험(2024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연 봄세 즐겨 봄세



만안노인취미교실 하모니카반 공연(2008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5. 노년기의 문화적 참여, 그리고 자아실현

노년층 역시 문화적 욕구가 강하다. 이는 노인복지관과 평생교육센터 등의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노년층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적 관심과 소양이 높은 노인층의 경우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봉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도슨트 활동 등을 통해 영화, 그림, 사물 등에 관심이 많다. 예술이 이런 거구나. 처음엔 어렵고 힘들게 만났지만 예술과 하나됨을 느낀다. 예술은 영혼을 맑게 해준다.¹⁶

안양문화원에 보니까 하모니카반이 있었다. 하모니카에 빠져서 7년째 하고 있다. 2년인가 3년 배우고 부흥복지관에서 노인잔치를 하는데 연주를 해달라고 해서 12명이 가서 '오빠 생각'을 부르는데, 할머니들이 그 노래를 다 알고 따라 불러서 '이런 것도 봉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¹⁷



동안노인취미교실 작품전시회(2007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쪽 보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라인댄스라는 것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을 아무리 해도 안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강명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수강생)

매일 수업이 있죠. 월요일은 차밍, 화요일은 요가, 수요일은 노래, 또 목요일은 웰빙댄스, 금요일은 라인댄스.(이춘미,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수강생)

이 같은 문화 프로그램 수강과 봉사 등은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행사와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 예컨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의 연말 발표 행사가 그러하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매년 연말에 1년간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18년째 이어오고 있다. 복지관 이용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이웃 그리고 안양시에도 의미 있는 문화 행사가 되고 있다. 2024년에는 안양 아트센터 수리홀과 갤러리 미담에서 제18회 예술제·전시회 ‘젊음의 행진’이라는 이름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의 해울예술제(2022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제공)



다사랑 실버합창단(2023년, 안양시청 역사·포토갤러리 제공)

로 개최하였는데 성황을 이루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 2014년부터 진행한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고령화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노년 문화’에서 출발하여 ‘세대 간 문화 교류’를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문화 다양성 정책의 대표 사업 ‘무지개다리 사업’에 공모하여 공모에 선정된 것이다. ①안양 시니어 문화 현황 맵핑 및 세대 간 교류 전략 수립 연구, ②시니어 전문가 포럼 <노년을 노닐다>, ③시니어 레인보우 극장 <친구랑!>, ④시니어 영상 자서전 제작으로 구성되었다.

2014년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프로젝트에서는 노년에 직접 문화 예술 활동에 뛰어 들었던 노인의 사례도 발표되었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을 개괄하면서 마침내 예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서사화하여 그 속에서 개인적 성취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재작년입니다. 새벽에 등에 심한 통증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진단이 척장염, 즉 척장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하고 패혈증이 또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켰더군요. 꽤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나 다행입니다. 그때 지나온 삶을 쪽 돌이켜보고 가족 친지들도 생각하고 ‘내 생이 여기서 결국 마감이 되는가? 하는 회한이 너무나 깊게 가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보다 세 살 위인 매제 생각이 불쑥 났어요. 재작년에 76살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 자격증을 무려 18개를 뒀어요. 제가 물었어요. “나이 먹어서 그걸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뒤늦게 생각해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마지막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 공부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78살인데도 모 직장에서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월 22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문학에 대해 가졌던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동안 등단은 안 했지만 작품은 쪽 써 왔지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니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타계합니다. 그래도 문상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생의 마지막을 위해 도전해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시를 쓰게 되었지요.¹⁸

은퇴 후 취미를 살려 화가가 된 아버지를 위해 가족들이 전시회를 개최한 사연도 소개되었다.

가끔씩 아버지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림 그리고 붓글씨 쓰고 이런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이 되면서 그런 취미생활을 하거나 예술적 성취감을 느낄 시간이 없으셨던 거고요. 가장으로 가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사업의 나이들 수업 홍보물(2018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제공)



안양문화예술재단 세대문화교류 예술워크숍 '노년을 거닐다' 홍보물(2015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제공)

을 꾸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셨겠죠. 그런데 은퇴를 한 뒤에 아버지가 있고 계셨던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마침 작년에 아버지 칠순 잔치였는데요, 뷔페 빌려서 떠들썩하게 타령 같은 거를 틀어놓고 잔치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칠순 선물을 해드리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전시회를 열어 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¹⁹

보통 은퇴하면 TV 시청으로 일상을 보내거나 지루함, 상실감 같은 걸 느끼셔서 재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아버지는 전시회를 계기로 새로운 용기도 얻으신 것 같아요. 노년의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그냥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꾸준히 하셨고 전시회도 하셨다는 게 저에게도 꿈 하나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은퇴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어진 게 은퇴 이후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을 건강하고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²⁰

노년의 이미지는 무기력하고 초라하며 비참한 모습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과거와 달리 길어진 기대 수명과 노년기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해가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긴 역사 속에서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의 진입은 사상 최초의 일이며, 따라서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과거에 만들어진 노년기의 우울한 이미지로 현재의 노년기를 재단할 이유는 없다. 계속해서 노년기의 새로운 서사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양시의 노년층은 안양의 미래를 또 다른 의미에서 개척하고 있는 셈이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한 안양시 세대 문화교류 축제 (2015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제공)

참고자료

- 경기복지재단a, 『2025 경기도 노인복지 종합계획수립연구』, 경기도복지재단, 2021.
- 경기복지재단b, 『경기도 노인 생활시간의 변화 분석』, 경기복지재단, 2021.
- 권오현, 「고독사, 한국 사회의 위기와 죽음의 탈사회화」, 『탈사회의 사회학』, 한울, 2022.
- 김정현, 「고령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노인의 연령 기준」, 『한국노년학연구』 28-2, 한국노년학회, 2019.
- 김은표,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이슈와 논점』 제189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 김주명, 「인생은 일흔 살부터」, 『안양의정포럼』 6호, 안양시의정회, 174-175쪽.
- 성은미·주사랑, 「경기도 31개 시군 저소득 가구 실태와 복지 욕구」, 『복지이슈 FOCUS』 2022-15, 경기복지재단, 2022.
- 안양문화예술재단a, 『안양 시니어 문화 현황 맵핑 및 세대 간 문화교류 전략』, 안양문화예술재단, 2014.
- 안양문화예술재단b, 『노년을 노닐다: 안양 ‘오버 더 시니어 레인보우’ 프로젝트 시니어 문화 전문가 포럼』, 안양문화예술재단, 2014.
- 정진웅,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2012.
- 조연현·김정석, 「고령화 사회, ‘노인 빈곤’ 문제와 한국 정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0호,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6.
- 질 쿼다그노(Jill Quadagno) 지음, 이정환·양정빈·염지혜·차승은·신승연·황명진 옮김, 『사회노년학』, 도서출판그린, 2021.
- 신승희, 「“소일거리도 있고, 친구도 있고... 외로울 틈이 없네” 카네이션 하우스」, 『경기도뉴스포털』, 2015.
(<https://gnews.gg.go.kr/>)
-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 안양시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
- 안양시니어클럽(<http://www.seniorhappytown.or.kr/>)
-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https://www.aysilver.kr/>)

註

- 1 김정현, 「고령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노인의 연령기준」, 『한국 노년학연구』 28-2, 한국노년학연구회, 2019, 109~117쪽. 김은표, 「노인 연령기준의 현황과 쟁점」, 『이슈와 논점』 189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1~4쪽.
- 2 김은표, 앞의 논문.
- 3 질 퀴다그노 지음, 이정환·양정빈·염지혜·차승은·신승연·황명진 옮김, 『사회노년학』, 도서출판그린, 2021, 23쪽.
- 4 권오현, 「고독사, 한국 사회의 위기와 죽음의 탈사회화」, 『탈사회의 사회학』, 한울, 2022, 305~351쪽; 조연현·김정석, 「고령화 사회, '노인 빈곤' 문제와 한국 정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0호,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6, 11~48쪽.
- 5 경기복지재단, 『2025 경기도 노인복지 종합계획수립연구』, 경기도복지재단, 2021, 11~15쪽.
- 6 정진웅,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2012, 13~16쪽.
- 7 경기복지재단a, 앞의 책, 16쪽. 경기복지재단b, 『경기도 노인 생활 시간의 변화분석』, 2021, 경기복지재단, 8~9쪽.
- 8 경기복지재단a, 앞의 책, 18~19쪽.
- 9 경기복지재단a, 앞의 책, 20~22쪽. 경기복지재단b, 앞의 책, 11~12쪽.
- 10 성은미·주사랑, 「경기도 31개 시군 저소득 가구 실태와 복지 욕구」, 『복지이슈 FOCUS』 15호, 경기복지재단, 2022, 4~26쪽.
- 11 안양시청, 안양시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
- 12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https://www.aysilver.kr>)
- 13 안양시니어클럽(<http://www.seniorhappytown.or.kr>)
- 14 김주명, 「인생은 일흔 살부터」, 『안양의정포럼』 6호, 안양시의정회, 2004, 174~175쪽.
- 15 신승희, 「"소일거리도 있고, 친구도 있고. 외로울 틈이 없네" 카네이션 하우스」, 『경기도뉴스포털』, 2015.(<https://gnews.gg.go.kr>)
- 16 안양문화예술재단a, 『안양 시니어 문화 현황 맵핑 및 세대 간 문화 교류 전략』, 안양문화예술재단, 2014. 170쪽.
- 17 안양문화예술재단a, 위의 책, 200쪽.
- 18 안양문화예술재단b, 앞의 책, 91쪽.
- 19 안양문화예술재단b, 앞의 책, 178쪽.
- 20 안양문화예술재단b, 앞의 책, 180쪽.

집필(가나다순)

권오현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김선화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회원
김영숙 시인, 수필가, 안양문인협회 회원
김은진 시인, 안양문인협회 회원
김재민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영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안정순 안양문인협회 회원
우은주 인왕마을네트워크 대표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기획총괄

김현미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자료정리

설혜영, 김정서

편집·교정

이승연, 김현미

안양시사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19-5

ISBN 979-11-94861-09-6 (세트)

